내일의 화제_시와 건축에 관한 단상

Tomorrow's topic – brief thought about poetry and architecture

글. 오은_ Oh, Eun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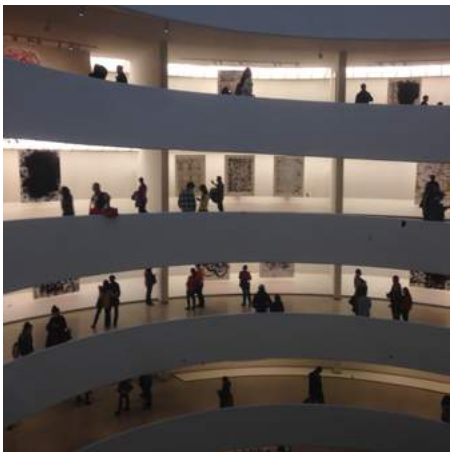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위대한 건축사는 ―필연적으로― 위대한 시인이다." 자신이 몸담은 시대를 독창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그는 덧붙인다. 건축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구비한 뒤 예정된 프로세스대로 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다. 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건축 이전과 건축 이후에 자리할 관념(idea)에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자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인데, 이는 건축물이 들어설 자리에 관념이 먼저 뿌리를 내리게 됨을 시사한다.

몇 년 전 뉴욕에 갔을 때 나는 자체적으로 미술관 투어를 했다. 기능적으로 작품들을 배치해놓은 곳도 있었고 작품들이 소장된 저택 자체가 거대한 미술관인 곳도 있었다. 뉴욕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까지 생생하게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구겐하임미술관이었다. 구겐하임미술관에는 내가 좋아하는 화가인 클레와 칸딘스키의 작품들이 많았다. 맨 처음 방문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저 이유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미술관을 나서는 순간, 나는 미술관 내에서 봤던 작품보다 미술관이 더 기억에 남았다. 처음에 바깥에서 미술관을 봤을 때 고개를 갸웃했었다. 똬리를 튼 것 같기도 하고 달팽이 같기도 한 외관은 둘째치고라도,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신기해서였다. 마치 아이스크림콘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어색해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도 널따란 1층이 상부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길 건너에서 바라보니 신호등과 나뭇가지조차 미술관과 어울려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구겐하임미술관에 들어간 뒤에는 자연스럽게 비밀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자연스러운 비밀이라니, 언뜻 형용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구겐하임미술관은 생각지도 않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보통 한 작품을 보고 옆으로 몇 발짝 떼서 다음 작품을 보는 게 일반적인 미술관 동선이다. 한 공간에 있는 작품들을 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구겐하임미술관은 달랐다. 아래서 위로 나선형 구조를 따라 이동해도 되었고 엘리

베이터를 타고 맨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품들을 관람해도 되었다. 거대한 달팽이관 속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온몸의 신경을 한 작품을 향해 쏟아 붓는 느낌이었다. 이쪽에 서서 맞은편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살은 미술관 전체에 시종 활기를 불어넣어주었다. 공간 구획을 잘해놓아서 작품을 관람하는 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었다. 작품들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느 순간, 나 자신이 하나의 '굽이'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이렇듯 구겐하임미술관에는 건축 전후의 관념이 있었다. 미술관을 찾은 관객들까지 하나의 건축 요소가 되고 있었다.

내 시 「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로코코, 로코코/내일의 화제(話題)처럼 불이 났다//나는 그제야 짓기 시작한다/표정을/표정들로 이루어진 위태로운 집을" 나는 시와 건축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시 또한 언어로 짓는 집이기 때문이다. 자재가 중요한 건축물처럼, 한 단어가 잘못 들어가면 시 전체에 비가 질질 새고 급기야 무너질 때도 있다. 1층이 2층을 짐작하듯, 1연은 2연과 각별해야 한다. 시 또한 건축처럼 유기적이면서도 어딘가에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내일의 화제를 품고 있어야 한다. 모험의 여지가 시를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건축사가 건축물에 자신만의 숨결을 불어넣듯, 시인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오롯이 새기는 과정이다.



SJ빌딩

SJ Offic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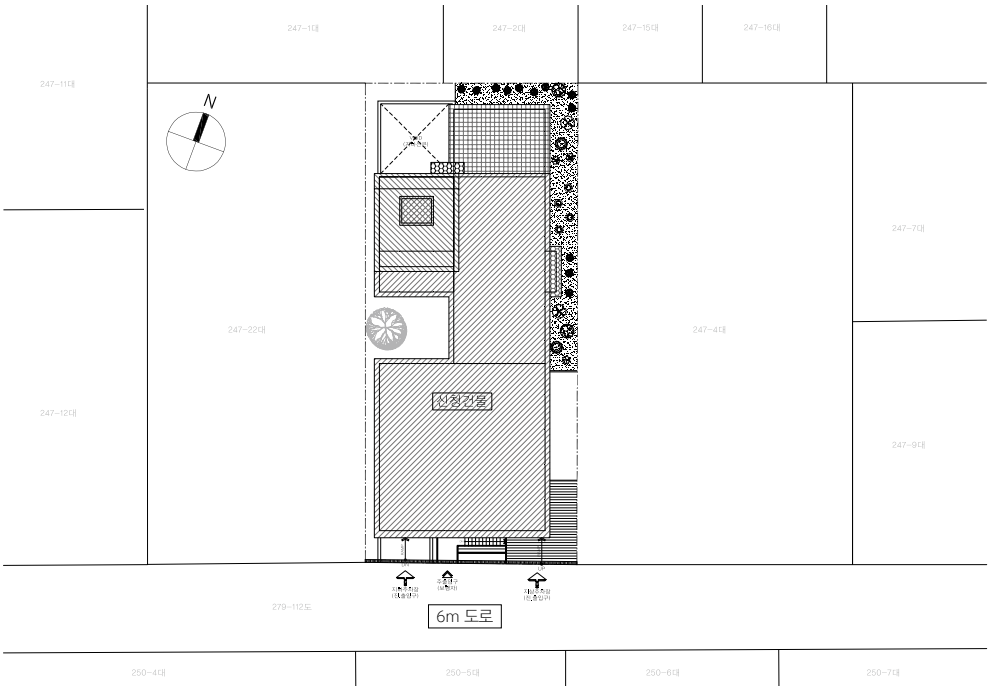
설계자 | 천국천_KIRA |
(주)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SJ
감리자 | (주)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유림아이엔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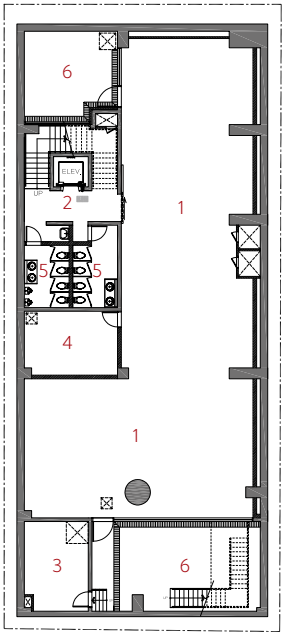
· 설계팀 : 이영모, 김혜란, 나혜미, 강승욱
· 전문기술협력
– 인테리어 : (주)르씨지엠
– 구조분야 : (주)다스구조 엔지니어링
– 기계설비·소방분야 : (주)평상
– 전기·통신분야 : (주)부건종합건축
– 토목분야 : (주)오이디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6길 21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소매점)

대지면적 | 516.30㎡
건축면적 | 304.97㎡
연면적 | 1,477.59㎡
건폐율 | 59.07%
용적률 | 144.04%
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전벽돌, 노출콘크리트, 로이삼중유리, FRP그레이팅
– 내부 : 노출콘크리트, 친환경페인트, 에폭시코팅
설계기간 | 2014. 05 ~ 2014. 09
공사기간 | 2014. 10 ~ 2015. 07
사진 | 김재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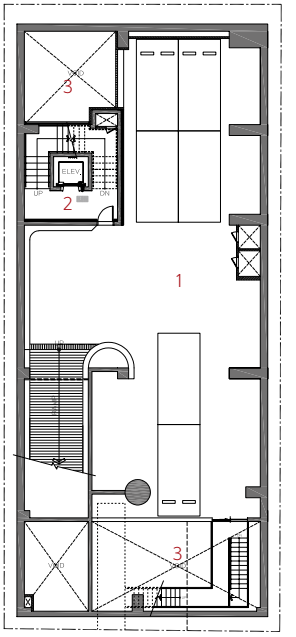


배치도 0 1 3 6 10m



1. 제1종근린시설 (소매점)
2. HALL
3. 갱의실
4. 펌프실
5. 화장실
6. SUN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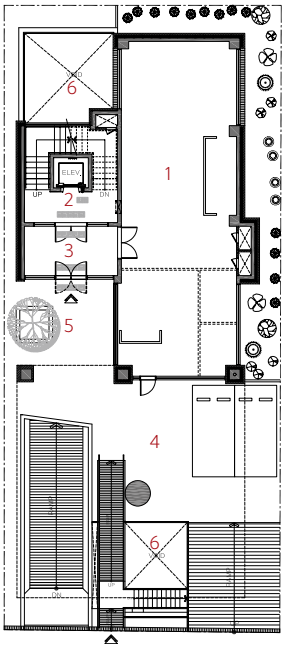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0 1 3 6m



1. 주차장
2. HALL
3. SUN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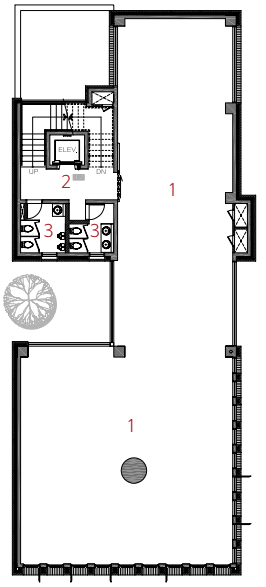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 제2종근린시설
   (사무소)
2. HALL
3. 방풍실
4. 필로티/주차장
5. 중정
6. SUN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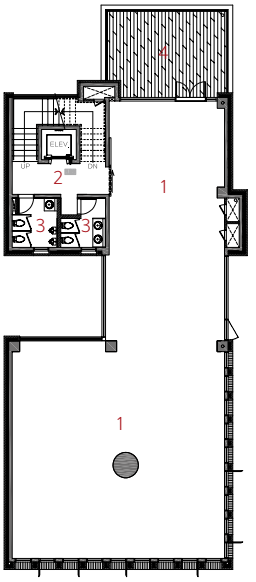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 제2종근린시설
   (사무소)
2. HALL
3.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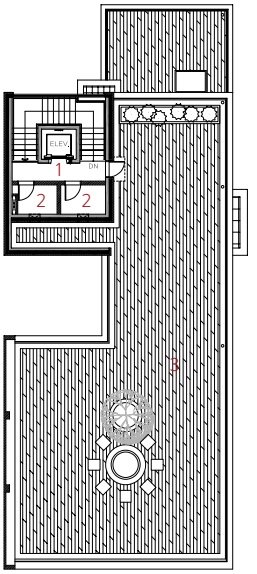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제1종근린시설
   (소매점)
2. HALL
3. 화장실
4. 테라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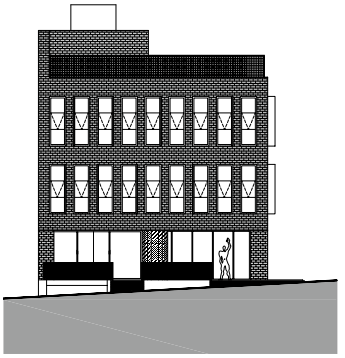
1. 계단실
2. 창고
3. 옥상정원



옥탑 및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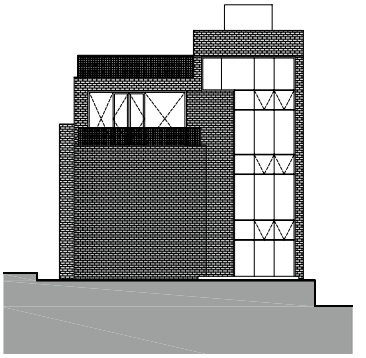
동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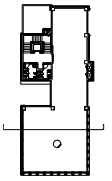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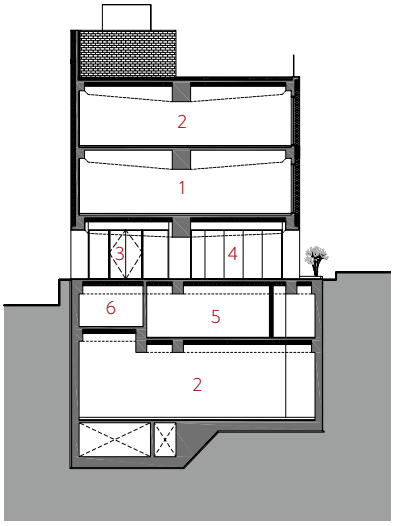
남측면도

0 1 3 6m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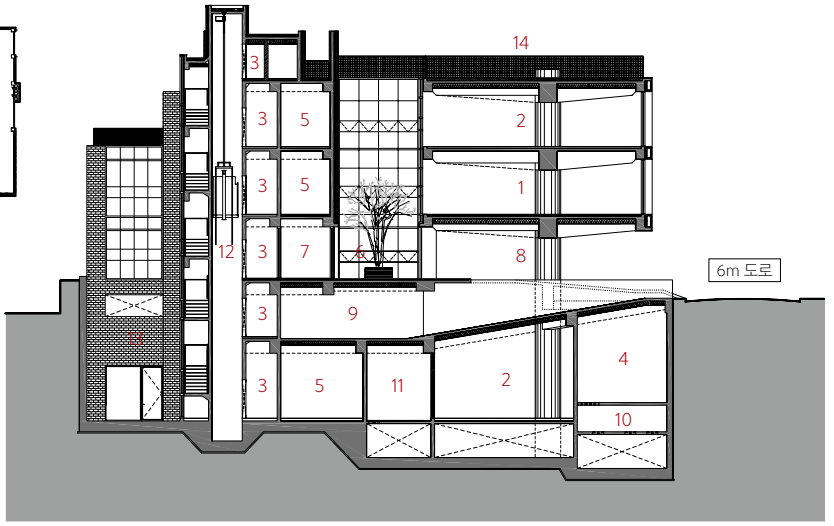




1. 제2종근린시설(사무소)
2. 제1종근린시설(소매점)
3. 주출입구/중정
4. 주차장(지상)
5. 주차장(지하)
6. RAMP

종단면도

1. 제2종근린시설(사무소) 2. 제1종근린시설(소매점) 3. HALL 4. 갱의실 5. 화장실 6. 중정 7. 방풍실
8. 필로티/주차장(지상) 9. 주차장(지하) 10. 정화조관리층 11. 펌프실 12. 계단실/ELEV. 13. 썬큰 14. 옥상정원



0 1 3 6m

횡단면도

대지읽기

과거 단독주택지로서 정방형에 가까운 대지였으나 분할을 거듭하여 도로와 수직으로 면한 장방형의 대지가 되었다. 협소한 전면도로는 보차혼용도로에다 일방통행으로 어수선하며 위험하다. 정면과 배면에는 주거, 좌우측 인접건물은 상업용도로서 사옥의 용도가 입지하기에 만족할만한 곳은 아니었다. 대지는 전면도로 좌측 꼭짓점에서 1m 높으며 다시 도로는 좌에서 우로 1m의 레벨을 갖고 있다. 현황을 그대로 이용하는 스킵플로어 계획으로 도로 좌측의 낮은 부분으로는 지하주차장의 출입으로 램프길이를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대지레벨과 동일한 도로 우측으로는 보행자 출입으로 계획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매스와 볼륨

장방형 대지에 낮은 용적률(3층)로 인하여 자칫 볼품없는 육중한 수평적 외형을 피하기 위해 솔리드(solid)와 보이드(void), 열림과 닫힘을 각각 벽돌과 유리로 수직적 매스를 적절히 분절하여 재료와의 대비, 조화가 되도록 하였다. 매스와 볼륨의 결정은 인접건물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나 채광, 환기, 조망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사용자와 방문객을 고려한 필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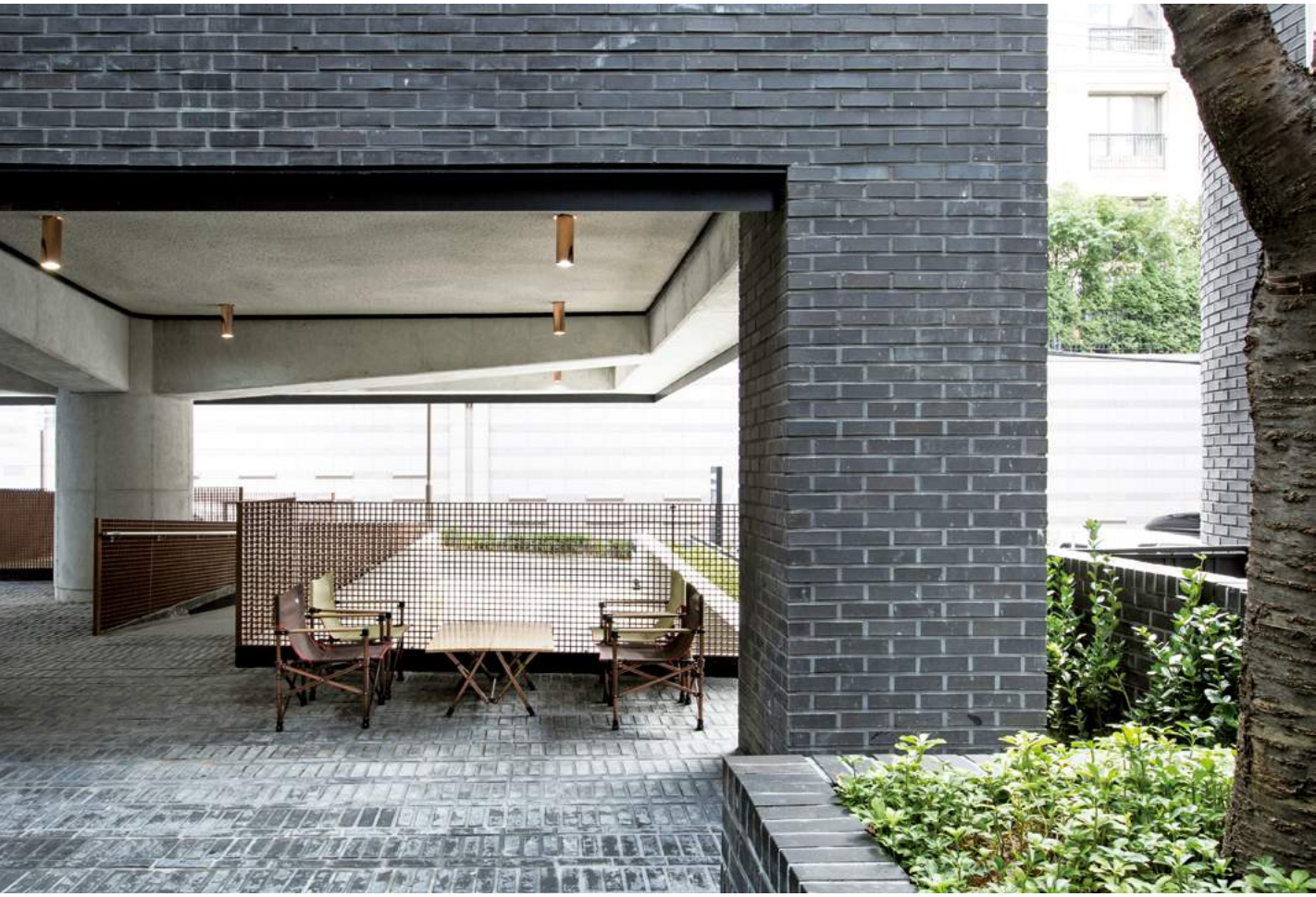
협소한 전면도로는 일방통행에다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뒤엉켜 복잡하고 위험할 것을 염두해 주차는 지하를 선택했으며, 단순 실용성만이 아닌 사용자와 방문객을 고려하여 **필로티(Pilotis)**로 계획하였다. 12m×12m 매스의 하중을 열십자 4개의 보에 전달하고 그 중심축에 하나의 기둥만으로 떠받는 필로티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본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며 그 의미와 의도가 분명함을 이야기하고 싶다. 과감하거나 무리한 구조를 내세워 돋보이려 하지 않았으며 "시계회사"로서의 상징과 오로지 사용자와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친숙한 느낌을 갖도록 함과 동시 자연스럽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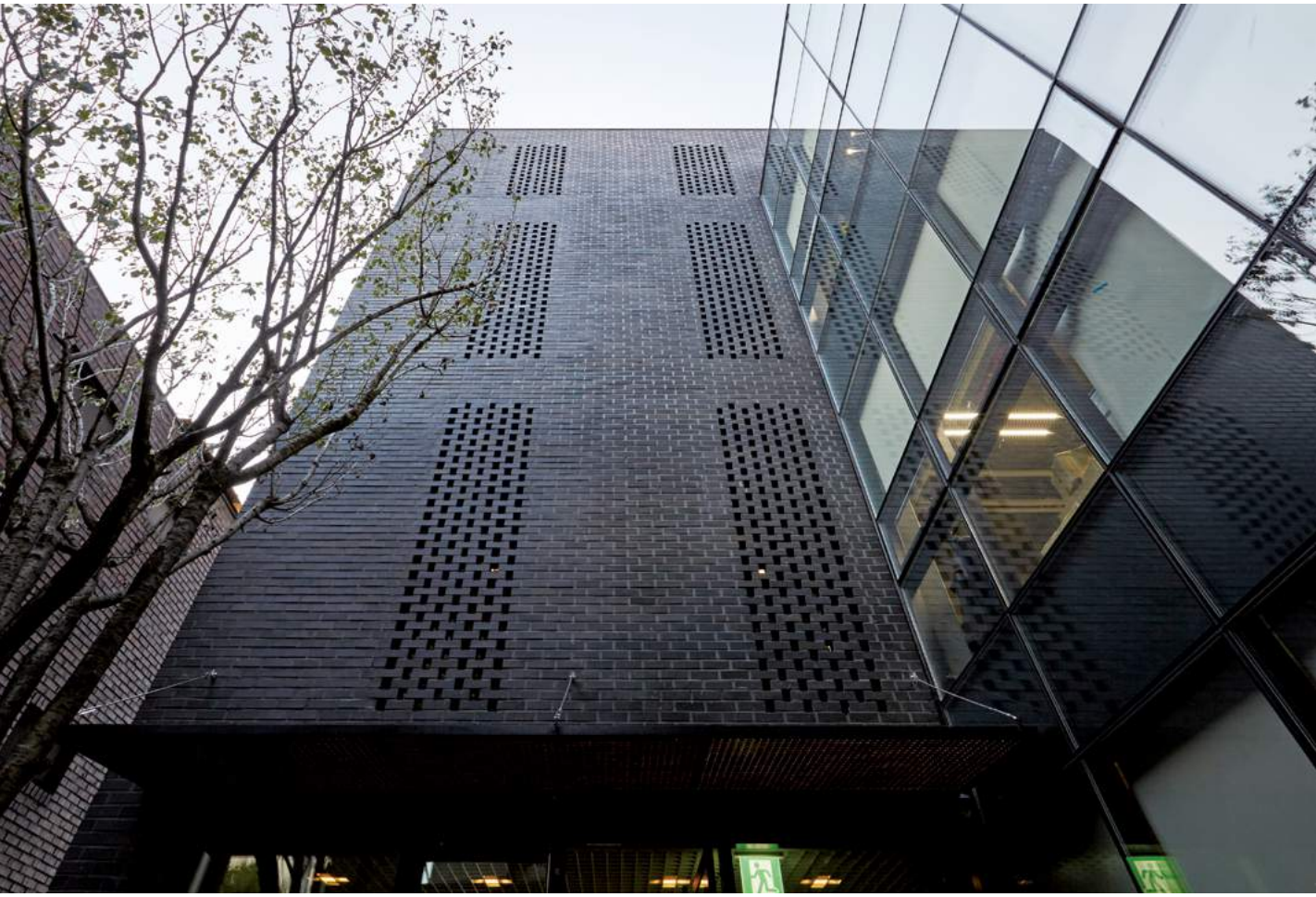
중정과 썬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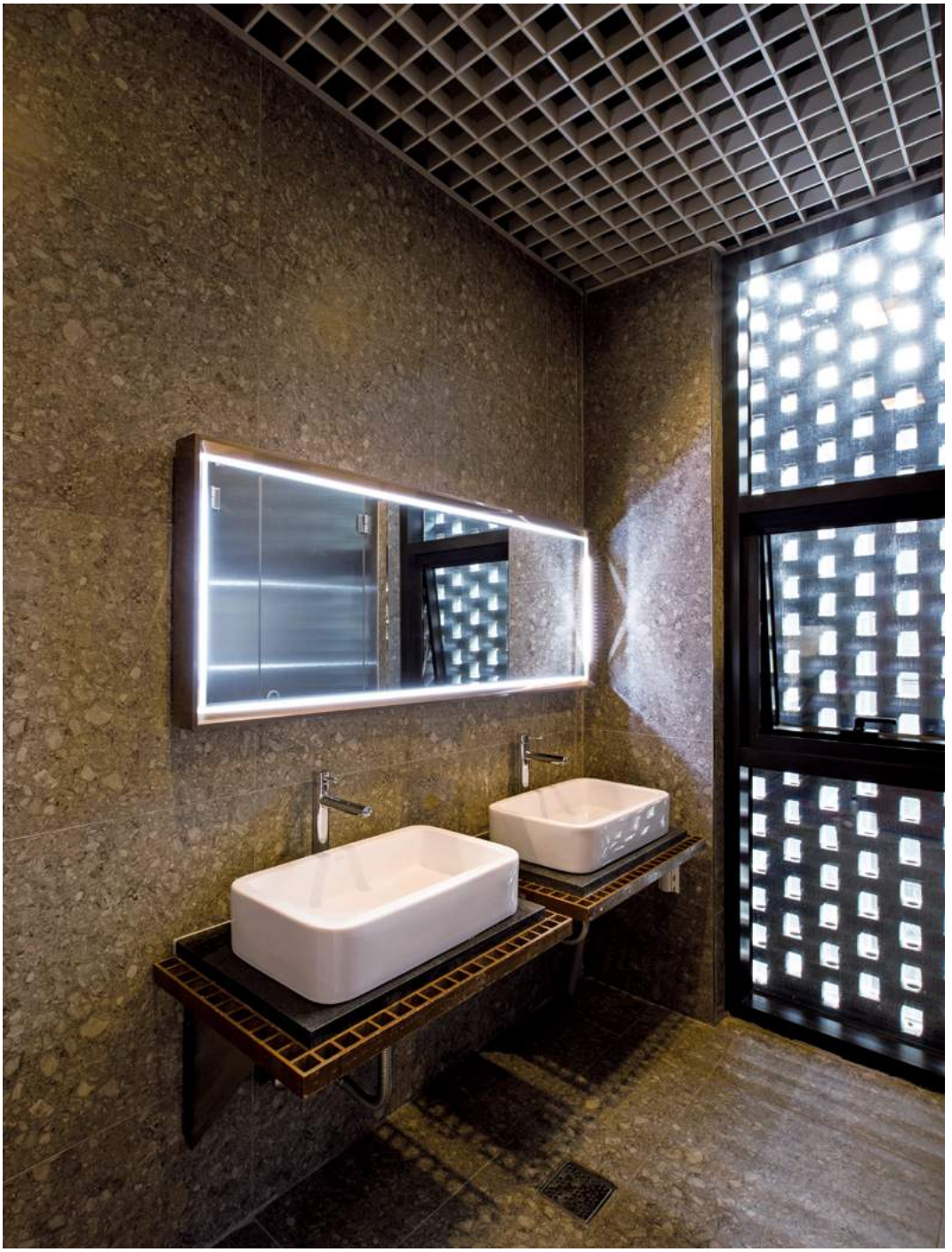
필로티 진입 후 맞이하는 전이공간인 **중정(中庭)**은 작지만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깊고 중압감이 드는 필로티를 지나 하늘이 열린 밝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며, 정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내부공간으로 이어지는 출입마당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내부공간으로 이끈다. 내부 사무공간에서 느끼는 중정의 역할도 빠뜨릴 수 없다. 실내 공간들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보이게 하며, 인접건물과의 좁은 이격거리로 기대할 수 없었던 부분이 비록 작지만 이를 통해 내부공간에 빛을 열어주고 바람을 불어넣어 업무 분위기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데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다. 더불어 한그루의 나무는 다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의 공간에 자연이 지닌 생기와 우아함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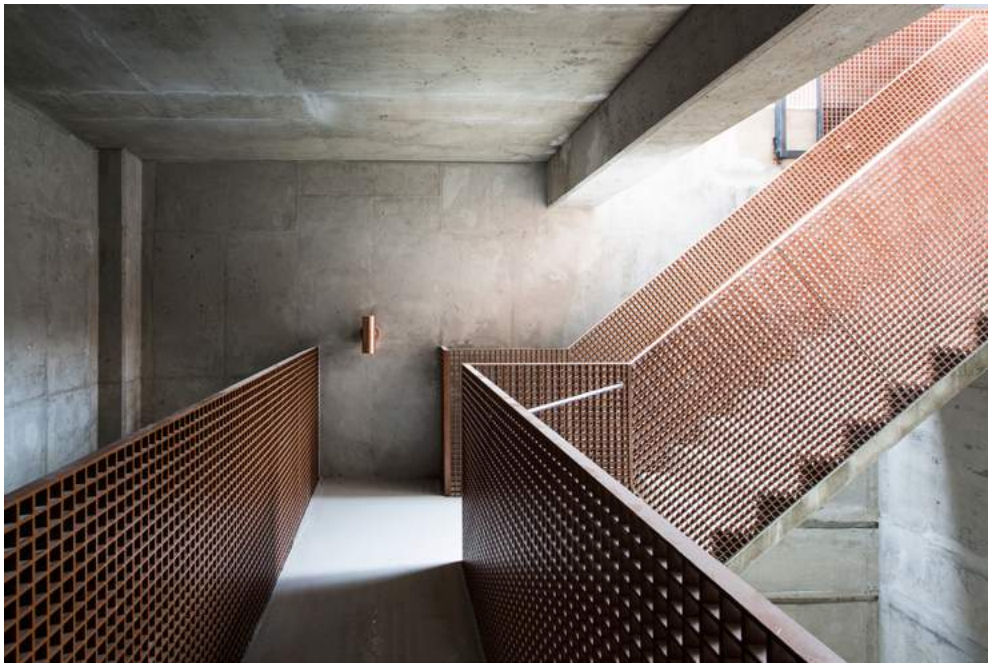
장방형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덕택에 건축물 전·후면으로 지하2층(근생)에서도 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썬큰(Sunken)**을 계획하여 채광, 환기,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하공간의 환경적 취약요소를 개선하는 효과와 더불어 이용자의 휴식, 안마당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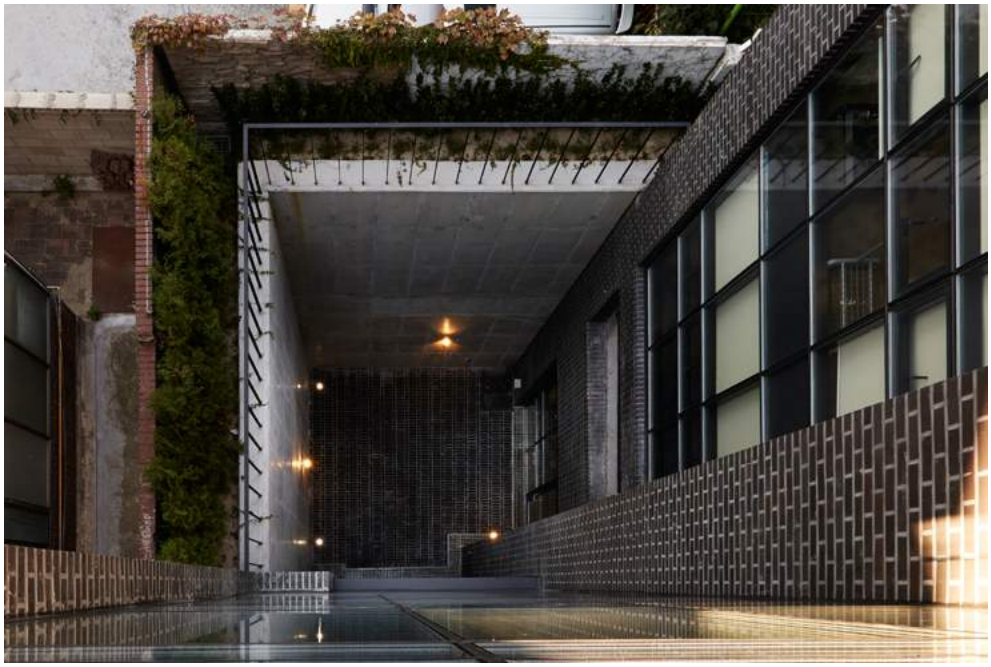
Parking
Parking











Parking

GRAC
PARTY
GRACE KELLY

들꽃처럼 피어나는 집

Blooming House with Wild Fl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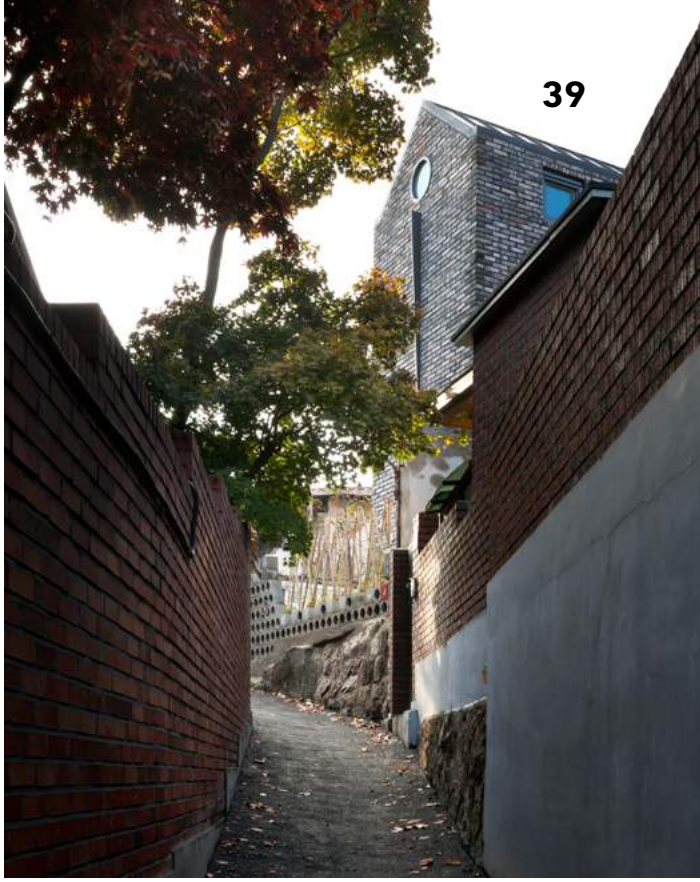
설계자 | **임형남**_KIRA |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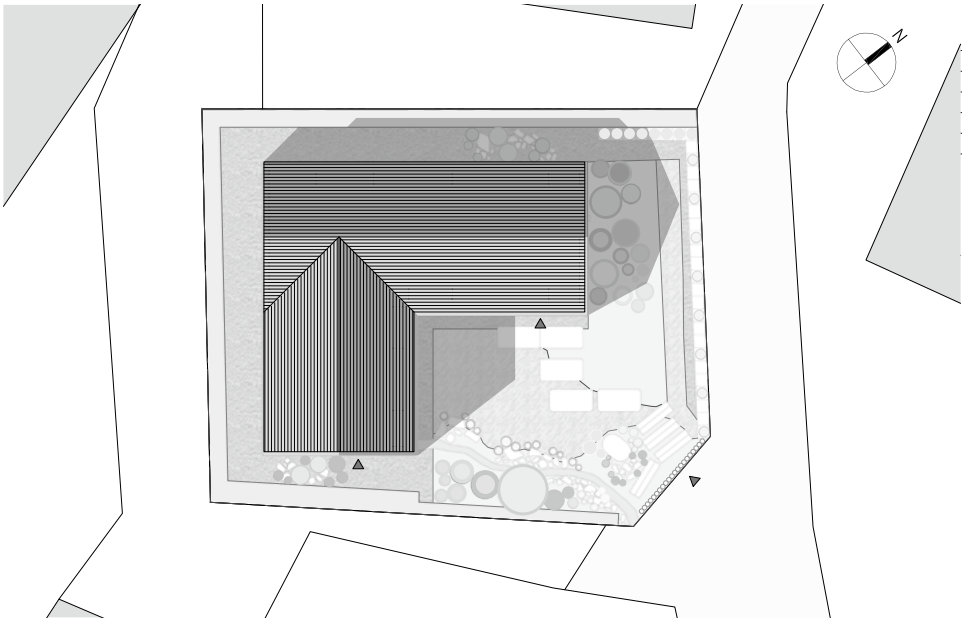
건축주 | 개인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시공사 | 스타시스

· 설계팀 : 최민정, 문주원, 이상우, 손성원, 이성필, 이한뫼, 박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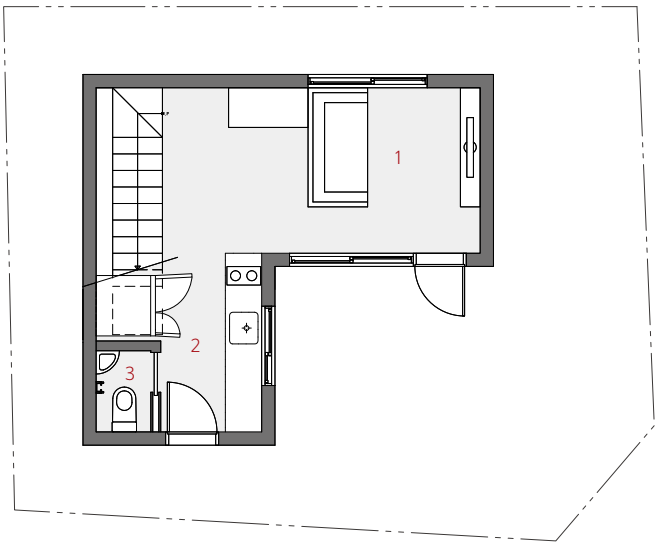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5-14번지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76㎡
건축면적 | 23.49㎡
연면적 | 46.98㎡
건폐율 | 39.79%
용적률 | 79.57%
규모 | 지상 2층
구조 | 경량목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치장벽돌타일, 징크
- 내부 : 벽지, 타일

설계기간 | 2014. 07~2015. 03
공사기간 | 2014. 09~2015. 07
사진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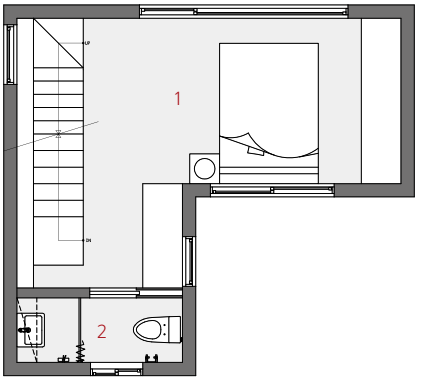


배치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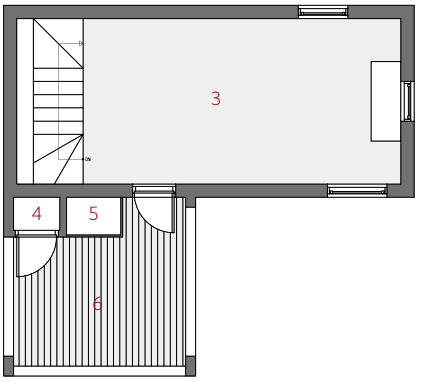
1. 거실
2. 주방
3. 화장실

1층 평면도 0 1 3 6m



1. 방
2. 화장실
3. 다락
4. 보일러실
5. 창고
6. 발코니

2층 평면도



다락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0 1 3 6m

단면도

한 남자가 서울의 오래 된 마을 안쪽,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20평 남짓한 땅을 하나 보았는데, 그 땅에는 아주 낡은 빈 집이 한 채 있었다. 그리고 땅을 가득 메우며 들어앉은 그 집엔 손바닥만 한 마당이 있었다. 규모가 작더라도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었던 그는 그 집을 고쳐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샀다.

그 작은 집의 설계를 맡게 된 우리는 그 동네를 찾아갔다. 빨리 지나가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정도로 좁을 골목의 두 번째 집……. 너무 낡아서 손가락으로 튕기면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낡은 집이 한 채 있었다.

일단을 고치자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저런 보강과 이런저런 칸막이와 방수와 통기와 채광을 하면서 보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집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다시 원점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건축법에 적합한 안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한 층의 면적이 7평정도 밖에 되지 않고 층수도 3층 이상은 불가능 했다.

결국 집의 연면적이 14평인데 그 면적으로는 아무리 단출한 살림을 한다고 해도 턱없이 작았다. 결국 2층 위에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의 다락방을 넣어 2.5층의 집을 짓게 되었다. 여러 가지 공사여건상 가장 적합한 방식은 경골 목구조 방식이었다. 집들로 둘러싸인 동네에서 가급적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얇은 집'의 형식으로 지었다.

1층은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고 2층은 침실의 용도 그리고 다락 층은 누마루와 서재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단 쪽 벽에 책장 겸 수납장을 붙여 웬만한 소품들은 다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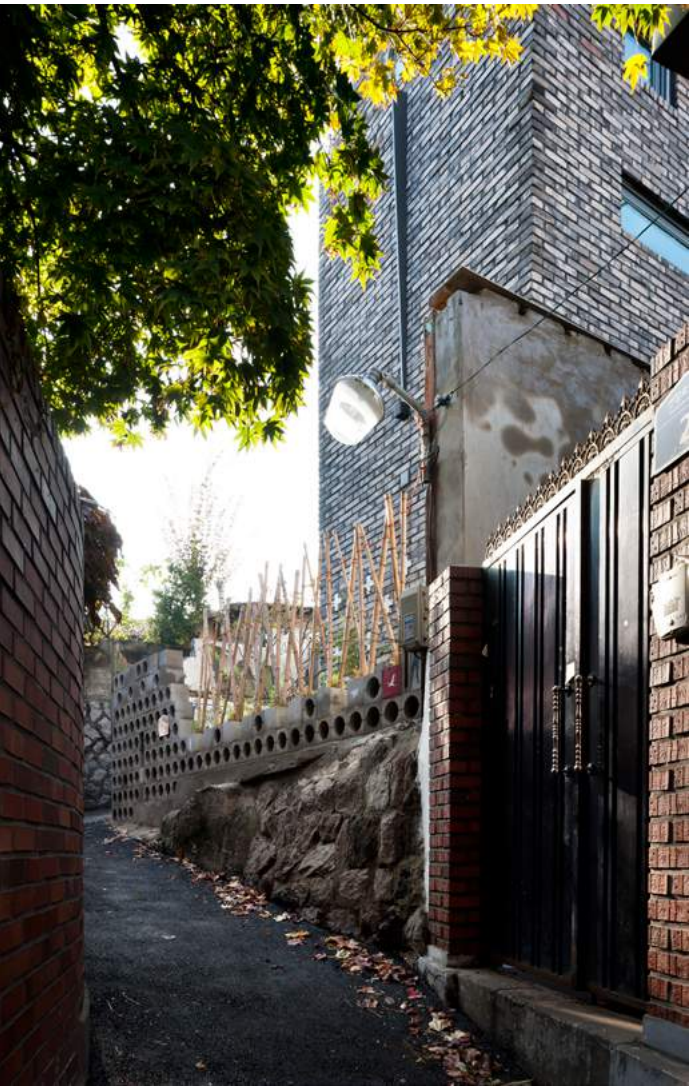
매스가 좁고 높은 점을 감안, 벽의 아래쪽에는 <수원 화성>에 쓰였던 십(十)자 모양의 문양을 빌려와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다락의 원형 창 아래로 삼각형의 세로로 긴 철판을 매달아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햇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변화하는 벽이 되도록 했다.

다락의 일부는, 한국의 전통건축에서 안과 밖의 경계를 뜻하는 '누마루' 같은 분위기가 나도록 지붕 아래 벽을 없애고 난간을 달았다.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누마루는 주인이 휴식을 하면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다.

작아도 좋으니 나무나 꽃을 심고 바라볼 수 있는 정원을 꼭 만들고 싶다고 했던 주인의 요청에 대하여, 원래 있었던 구조체 벽은 일부를 남겨 담장으로 만들고, 집과 담의 사이에 남은 틈새는 바람이 통하는 서비스 공간이자 작은 마당이 되도록 했다.

작은 땅에 들어선 작은 집, 마당 또한 작지만 다양한 풍경을 담도록 궁리했다. 일단 담장을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편안한 벽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감나무를 한 그루 심어 계절을 느끼고 특히 열매가 열리는 가을의 주황색을 감상하도록 했다. 나머지 모든 빈 곳과 틈새를 마당으로 설정하여 볕이 들지 않는 그늘에는 고사리와 관중 등 음지식물을, 대문 앞마당에는 다양한 들꽃을 50종 정도 열심히 심었다. 담장 대신으로 블록을 쌓고 대나무를 꽂아 넣은 동쪽 마당에는 다양한 기호를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기 전에는 그냥 뭉뚱그려 '잡초'라고 불렀던, 담벼락에는 심었던 들꽃들의 이름과 위치를 적은 '들꽃지도'를 그려 넣었다. 정원은 계절마다 빛깔을 바꾸며 주인과 함께 하는 가족이 된 것이다. 집이 완성되자 그저 깊고 어두운 그늘만 같았던 동네가 훤해졌다. 마치 꽃씨가 날아와서 메마른 시멘트바닥 틈새에 한 홉도 안 되는 땅을 찾아 느닷없이 꽃을 피우듯이, 오래된 동네에 들꽃처럼 집이 하나 피어 난 것이다.



판교 시전당

Pangyo Sijeond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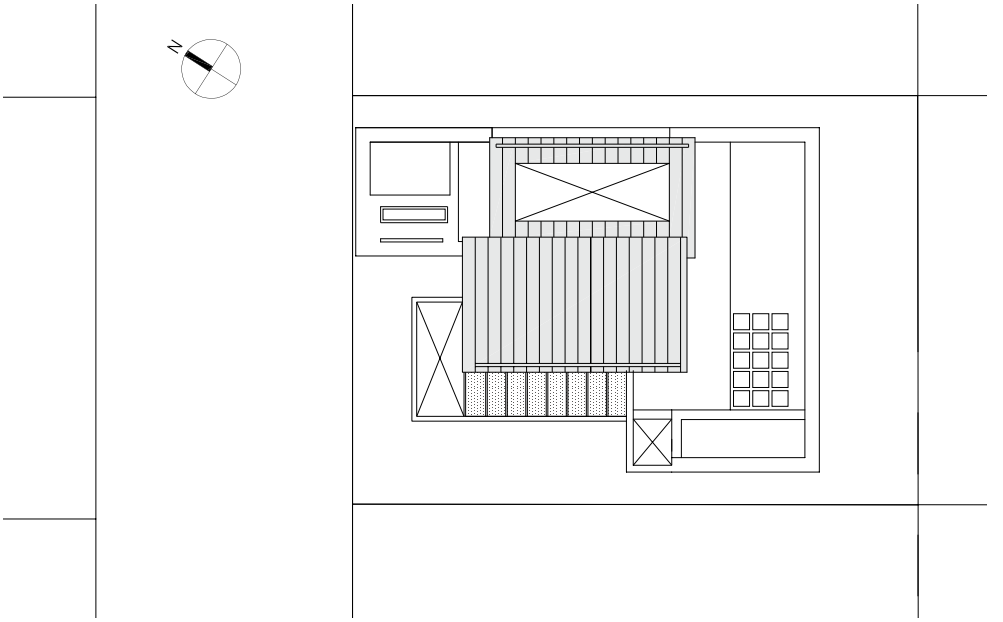
설계자 | **유주헌**_KIRA | 제이에이치와이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박봉현
감리자 | 제이에이치와이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원근건설

- 설계팀 : 박성우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모아구조
  - 기계설비분야 : (주)타임테크
  - 전기분야 : (주)신한전설
  - 소방분야 : (주)신한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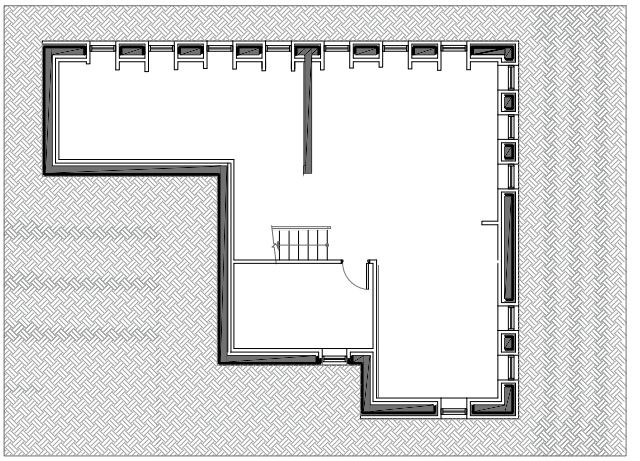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주요용도 | 단독주택(다가구)
대지면적 | 224.8㎡
건축면적 | 111.753㎡
연면적 | 294.175㎡
건폐율 | 49.71%
용적률 | 91.89%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치장 벽돌, 스타코 플렉스, 징크패널
- 내부 : 천연페인트, 실크벽지, 오크마루

설계기간 | 2013. 04~2013. 07
공사기간 | 2013. 10~2014. 09
사진 | 신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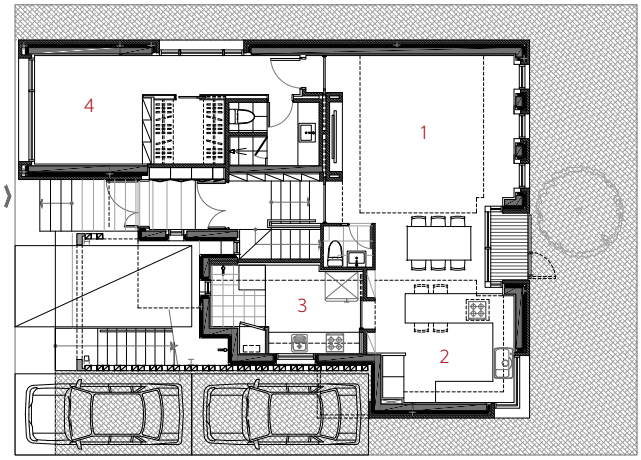
배치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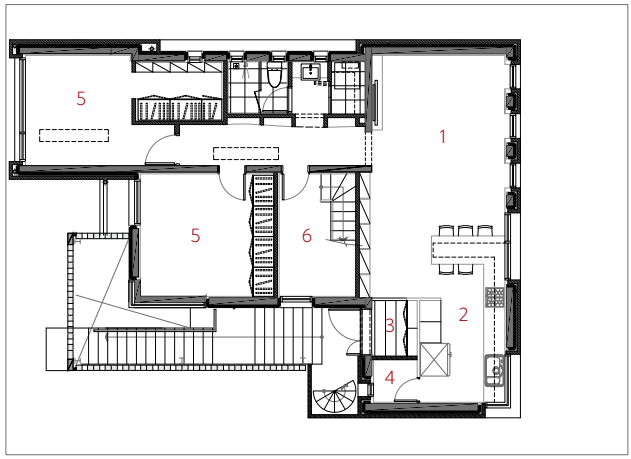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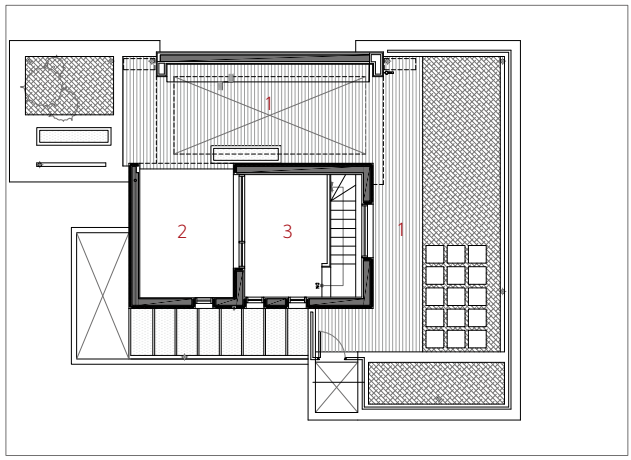
1. 거실
2. 주방
3. 다용도실
4. 방

1층 평면도



1. 거실
2. 주방
3. 현관
4. 창고
5. 방
6.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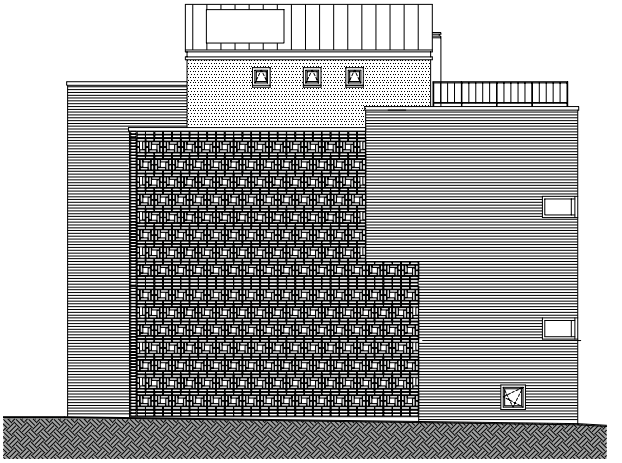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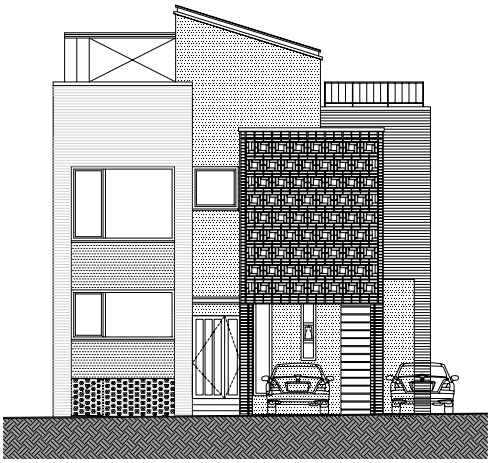
1. 데크
2. 실외기공간
3. 옥탑

옥탑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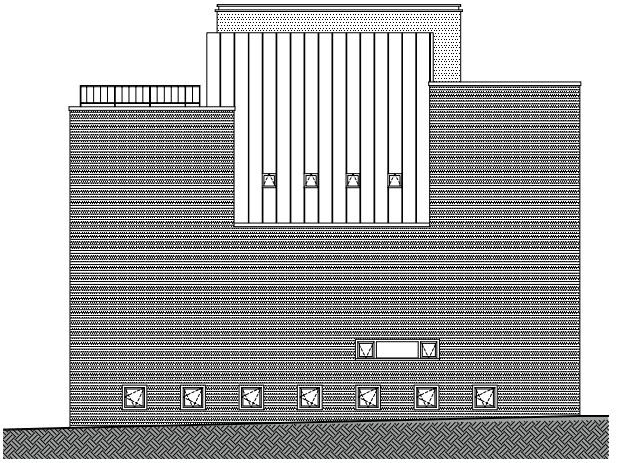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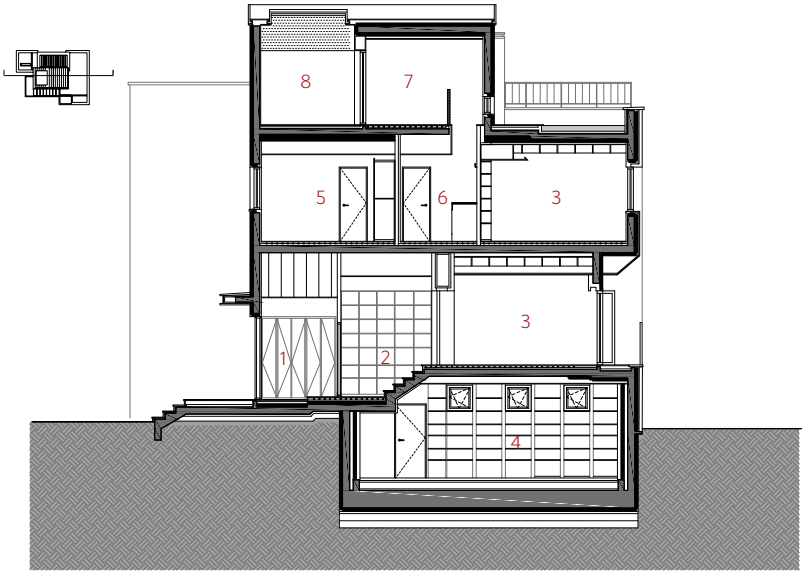


배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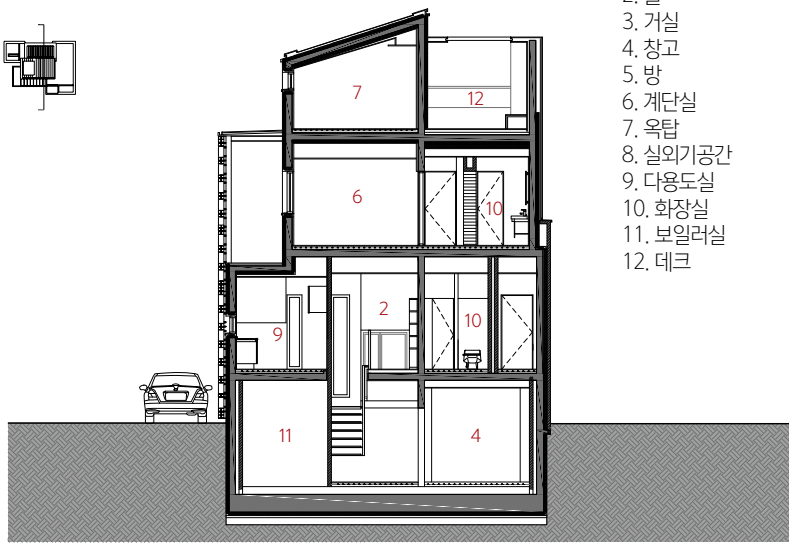


우측면도



횡단면도

1. 현관
2. 홀
3. 거실
4. 창고
5. 방
6. 계단실
7. 옥탑
8. 실외기공간
9. 다용도실
10. 화장실
11. 보일러실
12. 데크



종단면도

판교 12블록에 위치한 시전당은 2가구를 위한 다가구 주택이다. 두 아들이 있는 건축주는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큰아들과 함께 할 집을 짓고자 한다. 오랜 기간 아들과 떨어져 지낸 건축주는 장성한 아들이 결혼을 해서도 한 집에서 살기를 바란다. 건축주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판교와의 인연은 아들에게까지 이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건축주는 아버지의 판교 땅에서 자란 감나무와 가을마다 손자들에게 감을 따주셨던 아버지를 말하며 삼대를 시전당(柿塼堂)으로 단단히 묶고자 했다.

각 세대는 한 층을 온전히 사용하여 비교적 넉넉한 공용공간을 확보하며 지하와 옥상을 서비스 공간으로 갖는다. 1층 세대는 지하공간을 창고 및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2층 세대는 옥상을 정원과 다목적실로 사용한다. 각 세대는 개별 출입구와 진입 동선을 확보해 독립성을 높였고, 2층 하부의 주차공간에 차량이 없을 때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다공의 벽돌 가벽은 이웃집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시각적 불편함은 거르고 햇빛과 바람은 받아들인다. 단단한 벽돌벽체 매스와 다공의 벽돌가벽 매스는 서로 대비를 이루며 남쪽 공유 외부공지에 심은 감나무와 함께 판교주택의 개성과 상징을 만든다.

1층 거실과 식당 사이에 위치한 발코니 공간은, 볕이 잘 드는 중간영역으로 외부로 나가는 전이공간이다. 지하층의 채광과 환기를 위해 양보한 접지성을 보완하기 위해 1층 공용공간에서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앞마당으로 내려간다. 발코니 공간은 빨래 건조 공간, 장독대 등 삶의 구체적인 요구를 해결해주는 공간이 된다.

2층 주거는 독립된 진입동선을 갖는다. 벽돌 가벽은 이웃집의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주며, 진입공간의 첫인상을 만든다. 상부 캐노피는 계단실을 쾌적하게 만들며 내·외부의 경계가 흐릿한 공간으로 만든다. 계단실은 단순히 이동하고 통과하는 기능적인 공간만이 아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만나는 사이공간이 된다.

하하 하우스

HAH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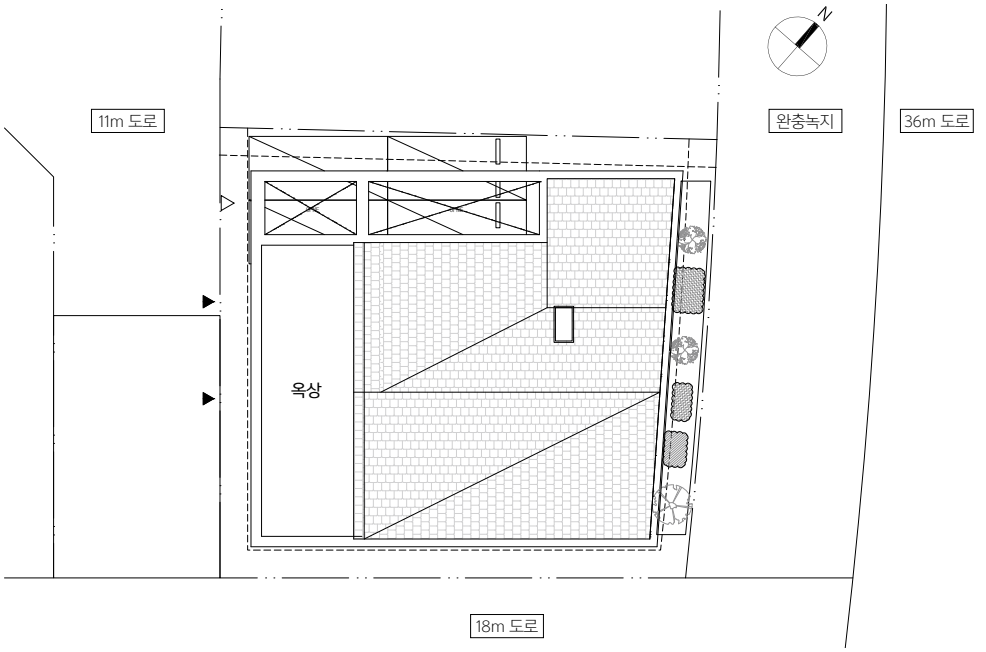
설계자 | **백강욱**_KIRA | 백강욱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박윤희
감리자 | 백강욱
시공사 | 자가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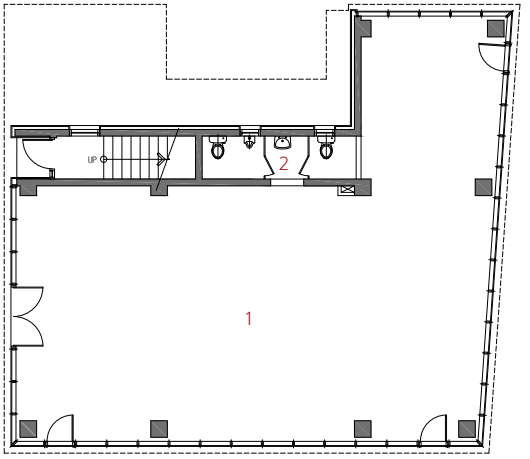
- 설계팀 : 백강욱, 권미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삼우구조
  - 기계설비분야 : (주)세명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주)세명엔지니어링
  - 소방분야 : (주)세명엔지니어링
  - 유틸리티 : (주)세명엔지니어링

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4307-1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다가구)주택
대지면적 | 279.4㎡
건축면적 | 165.23㎡
연면적 | 428.46㎡
건폐율 | 59.14%
용적률 | 153.35%
규모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 외부 : 포르투갈 벽돌, 컬러강판, 외단열시스템 + 스터코
- 내부 : 실크벽지, 파벽돌(화이트 컬러)

설계기간 | 2014. 09~2015. 04
공사기간 | 2015. 04~2016. 03
사진 | 변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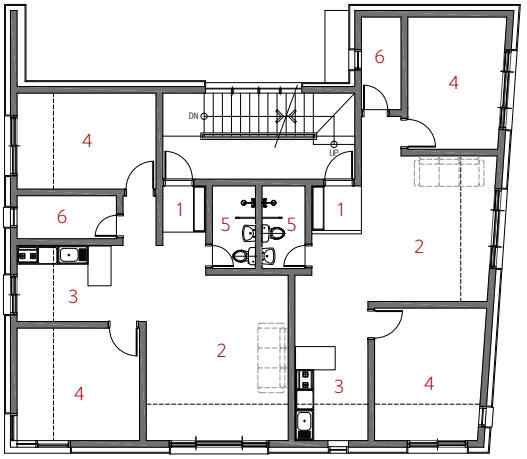


배치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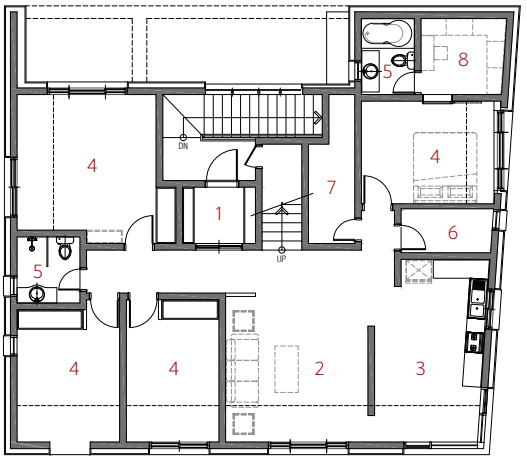
1. 근린생활시설
2. 화장실

1층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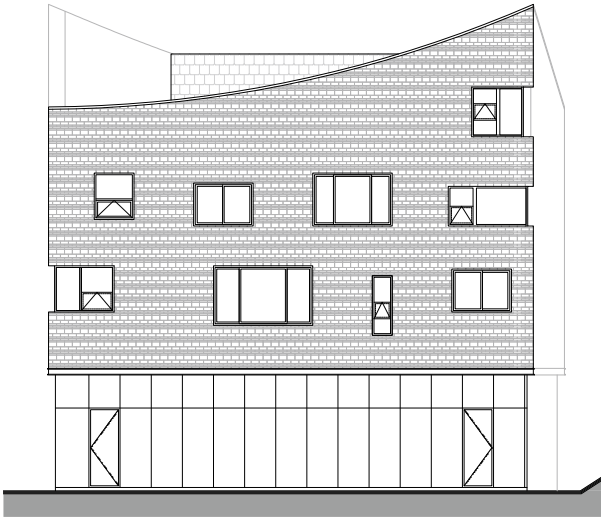


1. 현관
2. 거실
3. 주방
4. 방
5. 화장실
6. 유틸리티
7. 서재
8. 드레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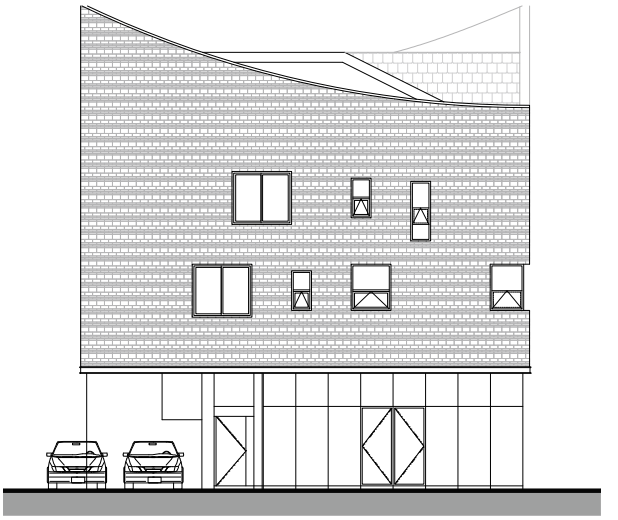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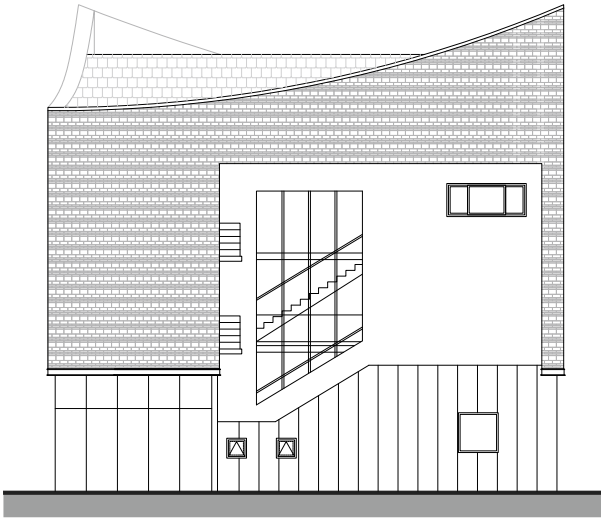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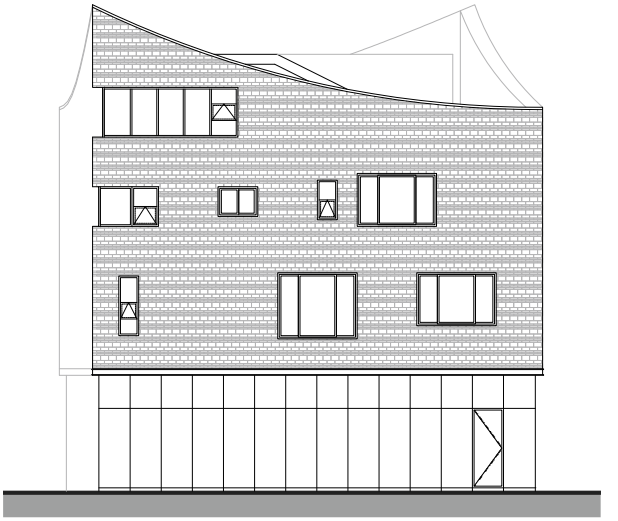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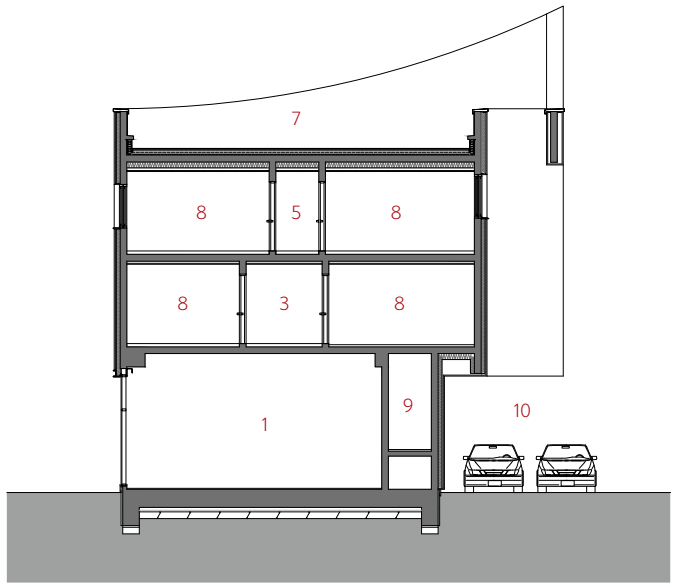


배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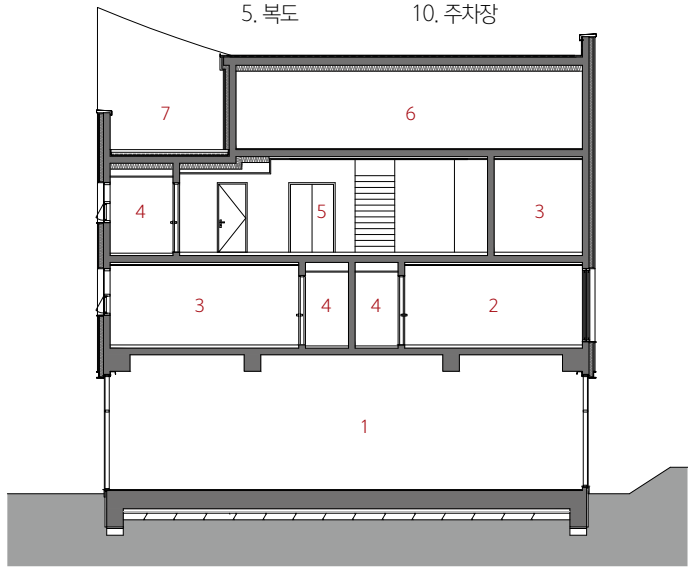


우측면도



종단면도

1. 근린생활시설
2. 거실
3. 주방
4. 화장실
5. 복도
6. 다락
7. 옥상정원
8. 방
9. 계단실
10. 주차장



0 1 3 6m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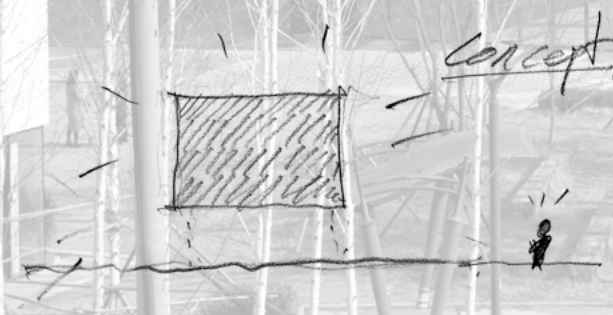
건축주를 만난 것은 1년 전 이맘때인거 같다. 건축주는 이미 다른 설계사무실에서 계획설계라는 것을 한두 번 해보았다고 하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설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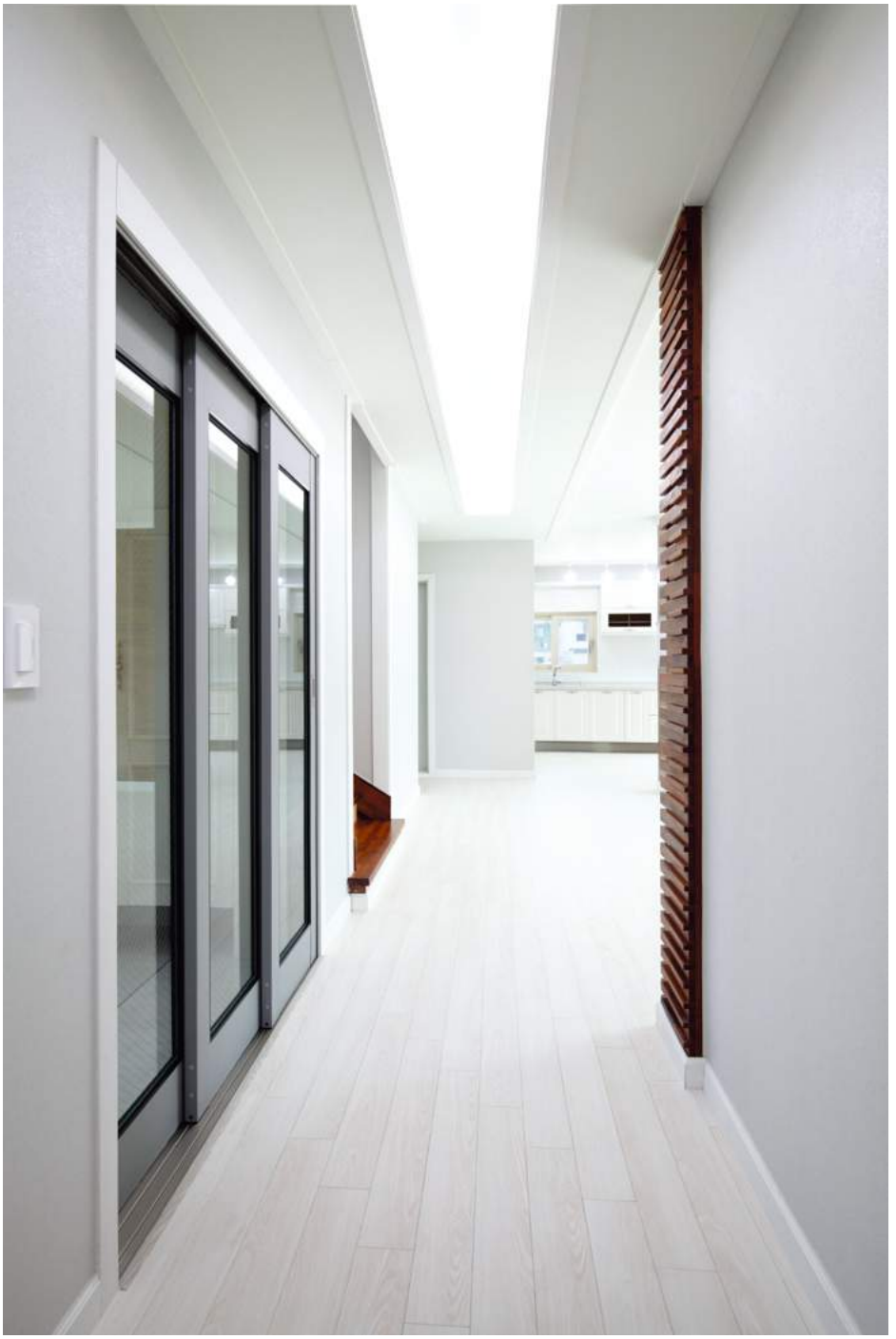
처음의 만남에서 건축주들이 원하였던 것은 자신들의 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강한 느낌이 있는 집을 짓고 싶다는 것과 자신들의 대지 위치가 블록의 중심이 아닌 외곽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대지를 보았을 때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대지가 블록의 외곽에 위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록의 시작점에 위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은 같은 거니와 또한 이 대지는 광장과 접해있고 사거리의 초입에 위치하여 블록을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대지의 앞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현재 사람들의 건축주의 대지 앞을 지나 블록내로 이동하고 있음) 나는 이내 이들과 나의 상반되는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처음의 만남을 맞추었다.

건축주와의 두 번째 만남은 부지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되었다. 이 대지는 다른 대지와는 다르게 3면이 광장 및 도로에 접해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시작점으로 인식을 주기 위하여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건축주에게 나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보여주었다. 아래는 비워지고 상부는 단단한 덩어리로 채워지는 형태이다. 중력에 역행하는,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질서이다. 중력과 무관하게 아래는 비워있고 상부에는 무거운 덩어리로 채워주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자는 것이었다.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가 그렸던 “피렌네의 성”과 같은 당혹감, 진실과 거짓이라는 거대한 의미는 아니더라도 이 그림처럼 건축물의 허공에 떠 있다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느낌표를 주지 않겠는가 말이다.

세 번째 만남이다.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물체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하여 좀 더 다양성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사각형이라는 직선속의 한옥의 곡선. 지붕이라는 형태로 곡선의 그려지는 것이 아닌 지붕을 배제하고 한옥의 곡선만 대입하여 자칫 직선의 단조로움에 다양한 해석과 이야기를 더해주려 하였다.

P.S _ 이 집의 이름은 하하의 집이다. ‘하하’라는 이름은 건축주의 닉네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집의 지붕의 모양처럼 웃음 짓는 입 모습 같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집을 보고 하하하 하면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원주혁신도시는 원주가 건축문화를 꽃피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이에 원주시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좋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RichVille

행복한 마당집

Happy house with yard

설계자 | **서정석**_KIRA | 무위건축사사무소

건축주 | 이병규
감리자 | (주)소마이앤씨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건축 : 미건건축(김철호) / 인테리어 : 이효은

· 설계팀 : 이예정, 차재석, 김송이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SNS구조
– 기계설비분야 : 대명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고려FAMC
– 소방분야 : 대명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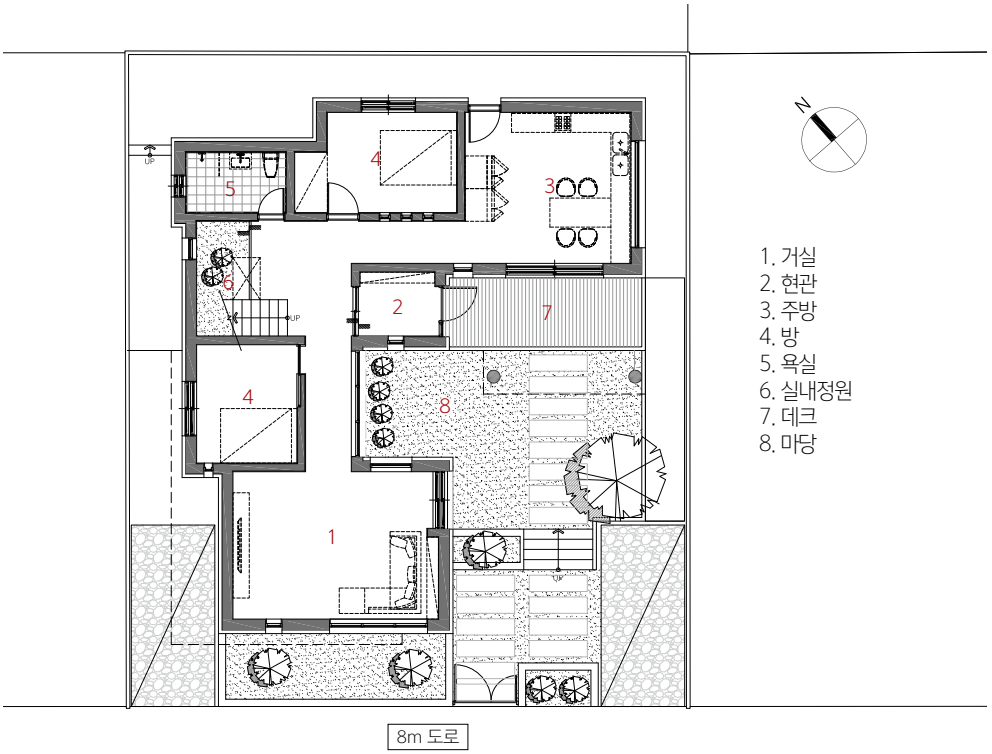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34-10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277.9㎡
건축면적 | 128.57㎡
연면적 | 228.77㎡
건폐율 | 46.26%
용적률 | 82.32%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 외부 : 고벽돌마감, 로이복층유리, 징크마감
– 내부 : 천연페인트, 지정타일, 강화마루
설계기간 | 2014. 11~2015. 04
공사기간 | 2015. 05~2015. 09
사진 | 차재석

어느 날 60대 초반의 건축주가 불쑥 찾아왔다. 마치 틀에 맞춘 듯 만들어진 오래된 주택에서 세월을 보낸 건축주는 그가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 부인과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자녀들이 다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지금보다 마당이 넓고 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가족 모두의 집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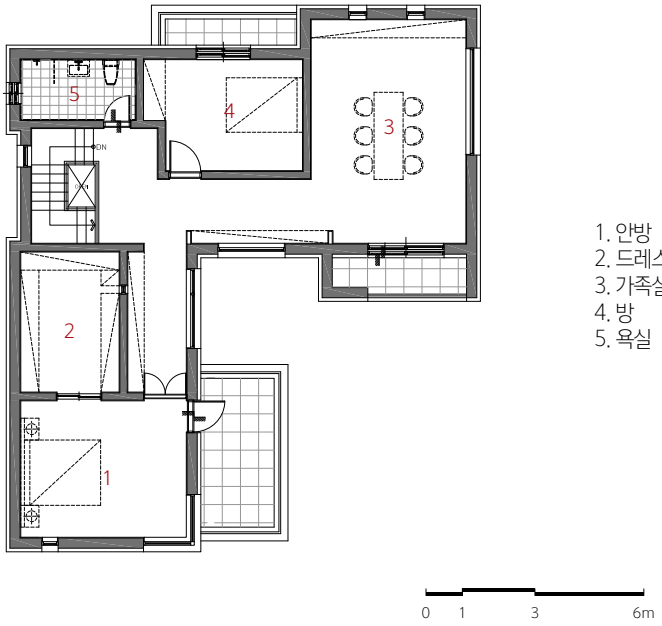
대지는 남서 방향에 8M 도로를 제외하고 모든 방향이 주택으로 막혀 있어서 채광이 좋지 못하였다. 채광이 자유롭지 못한 대지 내에서 빛을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여 건물 내부 어떤 공간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동방향을 열어주었다. 열어줌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지 내의 큰 공간은 노모와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마당이 되었다. 마당과 건물의 호흡을 조금 더 공유하기 위해, 건물 일부를 마당과의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하여 돌출시켰다. 이 요소로 인하여 마당은 여전히 비워진 공간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비운 공간이 되었다. 여허공간(餘虛空間), 자연을 향한 개방과 흡입으로 결국 내·외부를 매개시키는 사이공간으로 마당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그 어떤 공간에서도 빛이 들어오며, 사계가 변하는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외부마감은 빛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의 표정을 편안하게 담아내기 위해 모노톤의 자재를 사용하였다. 흰색 벽돌은 하늘의 색깔, 기후 등을 반사하고 흡수하며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이며, 검정색 벽돌은 빛의 세기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을 통하여 무게감을 다르게 보여줄 것이다. 모노톤의 색들과 상반되는 생기 넘치는 색상을 가진 나무와 풀들은 건물의 모습을 더욱 또렷하고 명쾌하게 담아낼 것이다.

자연을 담은 마당과 마당을 감싸 안으며 배치된 모든 실들은 다양한 빛으로 집에서 살아갈 가족의 마음과 내·외부 어느 장소도 따스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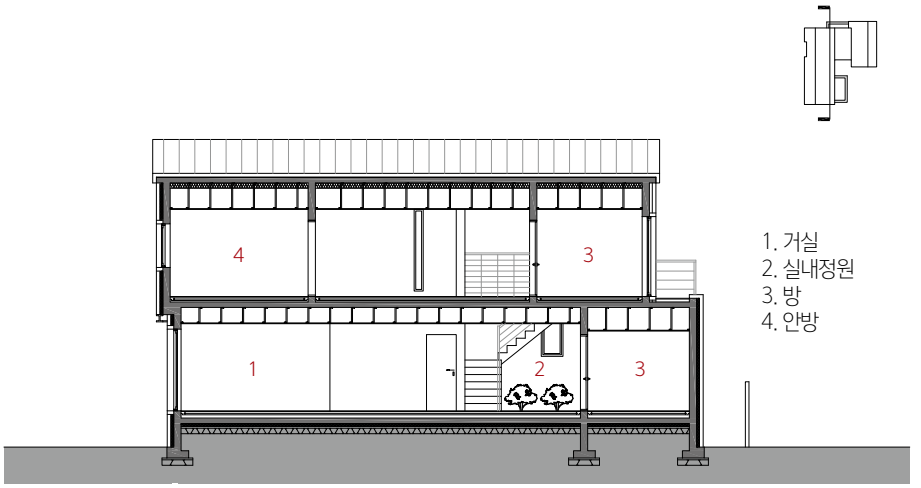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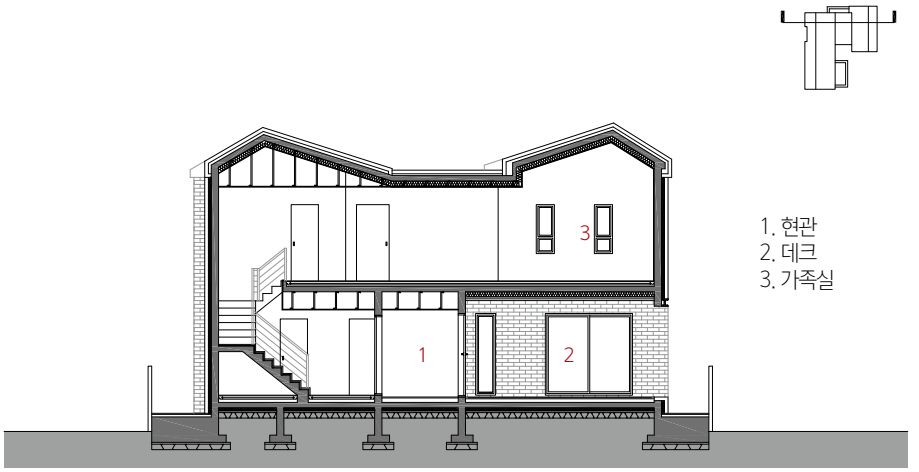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0 1 3 6m



종단면도



횡단면도

SALIM RO 162. 14

파라메트릭 디자인Ⅷ

Parametric DesignⅧ

글. 성우제_ Sung, Woojae
Grimshaw Architects / Associate
www.woojsung.com, www.selective-amplification.net

지난 두 회에 걸쳐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전형에 가까우며 현재의 건축 및 시공 기술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두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여기셨을 분들을 위해 앞으로 몇 회간은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실제의 현상을 모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미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뮬레이션은 아마도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서 자연현상이나 물리적 법칙에 의한 사물의 거동 등을 본뜨고자 하는 목적의 특수효과를 위한 시뮬레이션, 과학자들이 자연의 현상의 이해 및 예측, 혹은 가설의 검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이 물체의 물리적 화학적 거동을 시험해 보기 위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법칙을 찾아내어 이를 디지털 모델화 하여야 합니다. 몇 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를 찾아내고 미처 이해하지 못한 변수들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하는 상수 등으로 이러한 과학적인 법칙을 도출하게 됩니다. 싸고 막강한 성능의 컴퓨터 및 데이터 저장 방법 등을 등에 업은 빅 데이터(Big Data)를 통한 방법론이 이미 통계 및 확률의 분야에서 전통적인 알고리듬에 바탕을 둔 시뮬레이션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건축의 보수적인 속성 및 좀 더 많은 것에 대해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건축인들의 애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건축에서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역은 아직도 알아야할 가치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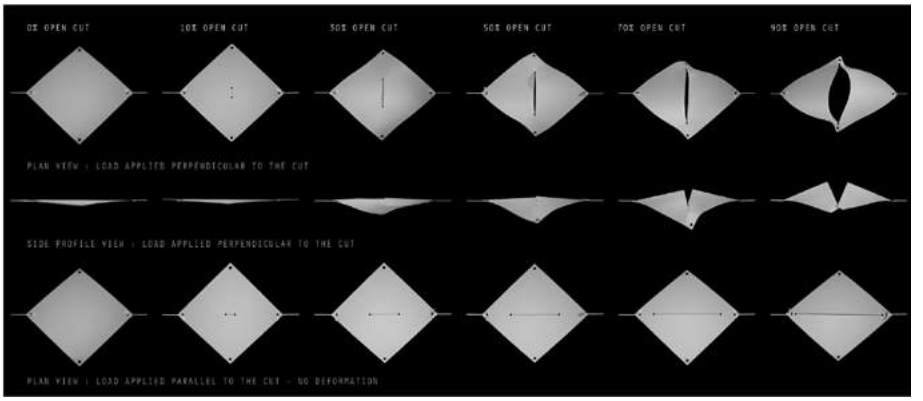


Figure 1

이야기에 앞서 이번 회에서 살펴볼 프로젝트는 홍익대학교 건축과 홍규선 교수 (www.ksharch.com)와 함께한 설치 작품을 위한 작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재료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특성의 변화와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그 재료를 어떻게 변화 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리적인 특성에의 변화와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변수로 삼는 파라메트릭 모듈을 생성하고 이들을 증식시켜 큰 시스템을 이룰 때 각 모듈이 인접한 모듈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보고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형상을 지니게 될 변수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재료의 물성과 재료에 가해지는 변화와 외부의 자극에 의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Composite material이나 나무패널과 같은 재료들은 재료의 특성상 거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이런 이유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파라메트릭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 균질한 성질을 가진 재료인 Mylar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정사각형으로 재단한 이 모듈에 물리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자르지 않은 모듈과 대각선 변길이의 10%에서 90%까지 이르는 총 6개의 variation을 가지는 패널을 물리적으로 재단하고 이를 자른 방향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른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이는 모듈의 특성을 파라메트릭 툴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른 방향과 수평으로 잡아당기는 경우는 자른 길이에 상관없이 같은 물리적 거동을 보여주었으며 자른 방향과 수직으로 잡아당기는 경우는 잘린 변의 중

심점들이 잘리지 않은 면기준으로 면의 normal방향으로 솟구치고 재단선상의 잘리지 않은 변들을 포함한 모듈상의 변들이 미묘한 twisting을 통해 일종의 spring역할을 하며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fig.1).

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파라메트릭 모듈은 아래 그림(fig.2)과 같이 두 가지의 variables와 두 가지의 constraints를 가지게 됩니다. 당기는 힘의 크기와 재단의 크기가 사용자가 시스템에 가하는 변수가 되고 두 변수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당기는 힘과 재단의 길이는 모듈의 형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힘이 가해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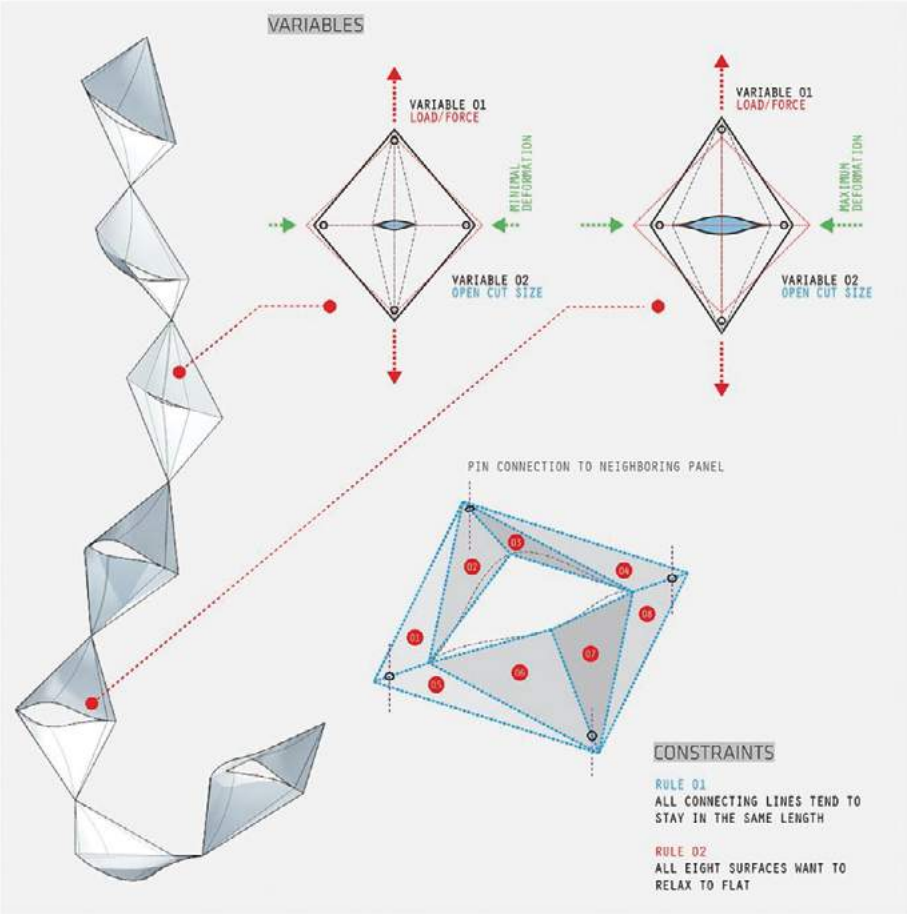


Figure 2

않는 두 점(초록색)의 변위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변위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모듈의 변형을 원래대로 돌리려는 힘에 작용과 반작용으로 기여를 하게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옆의 모듈들을 끌어당김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형상의 변화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물리적 거동의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두 가지의 constraints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쉽게 말해 힘을 가했을 때 변형되고 힘을 제거했을 때 혹은 힘의 크기가 작아졌을 때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spring action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모듈의 각 변들(파란색 점선)이 항상 직선이고 같은 길이를 유지하려는 특성, 두 번째 가정은 각 면들(붉은색 점으로 표현된 영역들)이 항상 평평한 면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모듈들을 정사각형 그리드에 배치를 하고 서로를 연결시킨 후 이를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모듈의 꼭짓점들을 이용해 천정에 매어 달게 됩니다. 이제 각 모듈의 수직적인 적층으로 인한 자중으로 시스템의 형상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몇몇의 연결점에 별도의 추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힘을 가하면 아래 그림(fig.3/4)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형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Rhino3D와 Grasshopper 및 Kangaroo라는 physical simulation engine을 통해 구현되었습니다(fig.5).

마지막으로 그림(fig.6)에는 재단의 크기 및 분포(파란색 패턴)와 가해지는 점 하중의 분포(붉은색 패턴)를 통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이 변형하는 모습들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뮬레이션의 동영상은 http://selective-amplification.net/portfolio/cut-it-curling-it-u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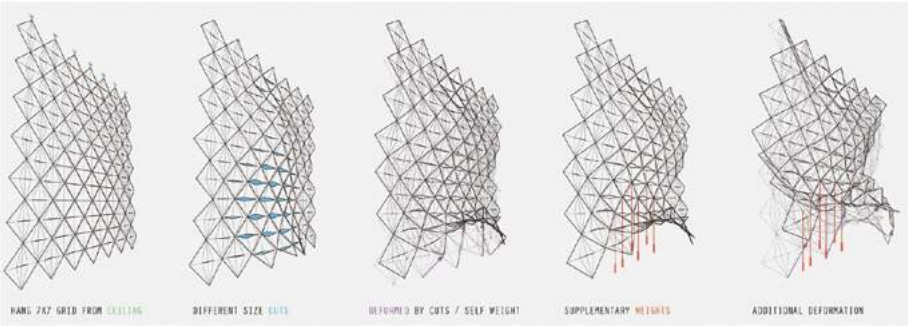


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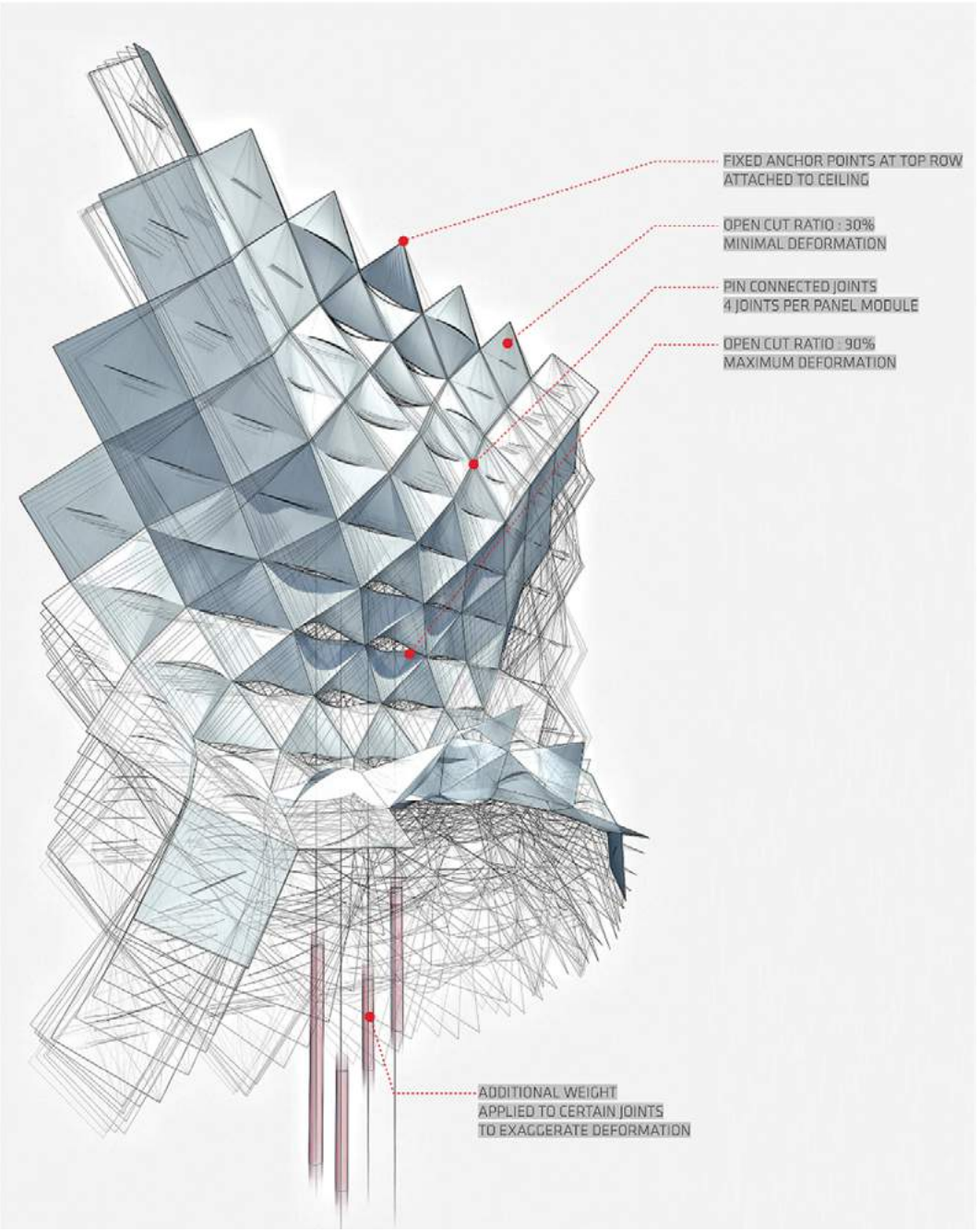

FIXED ANCHOR POINTS AT TOP ROW
ATTACHED TO CEILING
OPEN CUT RATIO : 30%
MINIMAL DEFORMATION
PIN CONNECTED JOINTS
4 JOINTS PER PANEL MODULE
OPEN CUT RATIO : 90%
MAXIMUM DEFORMATION
ADDITIONAL WEIGHT
APPLIED TO CERTAIN JOINTS
TO EXAGGERATE DEFORMATION

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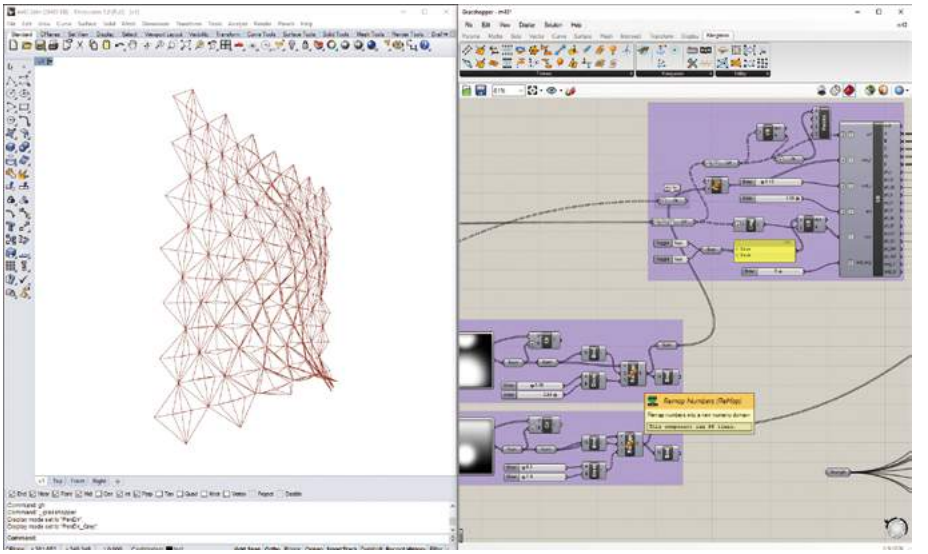


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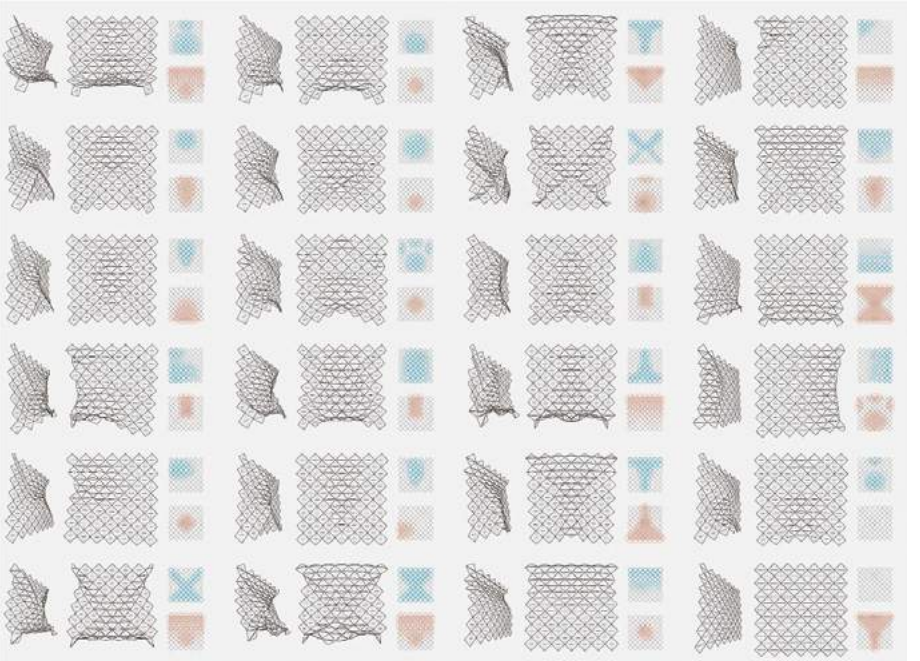


Figure 6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Architectural Odyssey : The Abys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글. 김홍기_ Kim, Hongki ·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연재 목차

1. 마크 로스코와 로스코채플 / 예술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2. 앙리 마티스와 로사리오성당 / 성미술 운동의 본질
3. 필립 존슨과 뉴욕현대미술관 /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배후
4. 롤프 펠바움과 비트라가구단지 / 현대건축의 실험실
5. 루이스 칸과 킴벨미술관 / 건축의 본질을 찾아서
6. 렌조 피아노와 메닐컬렉션 / 테크롤로지 미학의 배후
7. 다니엘 리베스킨트와 펠릭스 누스바움 / 디아스포라의 유산
8. 샤우라거와 헤르조그 앤 드 뫼롱 / 물성과 표층의 미학
9. 마리오 보타와 장 팅겔리 미술관 / 호모 루덴스의 미학
10. 호세 루이 세르트와 매그 파운데이션 / 낭만적 건축의 배후
11. 안도 다다오와 랑엔 파운데이션 / 폐허 속에 피어난 예술공동체
12. 에빈 헤리히와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 / 자연과 건축의 공생
13. 렌조 피아노와 파울클레센터 / 공감각 예술과 건축
14. 로버트 어윈과 디아 비콘 미술관 / 공장미술관, 현대미술의 보고

14

공장미술관, 현대미술의 보고

로버트 어윈과 디아 비콘 미술관

Robert Irwin and Dia Beacon

그림 1) 현대미술의 명소 디아 비콘 미술관 전경

버려진 낡은 공장을 개조해 만든 디아 비콘(Dia:Beacon) 미술관이 2003년 문을 열었을 때, 미술잡지 '아트포럼'은 그 해의 '국제 미술계 10대 사건'으로 꼽았다. 미술 비평가인 할 포스터를 비롯해 많은 미술관계자들이 디아 비콘을 가장 감명 깊은 미술관이라고 상찬했다. 뉴욕 그랜드센트럴 스테이션에서 기차를 타고 허드슨 강을 따라 한 시간을 넘게 가면 비콘이라는 마을에 도착한다. 경춘선이 지나는 북한강변의 한적한 마을처럼 뉴요커들이 번잡한 도시생활을 피해 하루 코스로 다녀올 만한 위치에 입지한 디아 비콘은 뉴욕을 찾았을 때 꼭 방문해야 할 현대미술의 명소로 자주 언급된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의 테이트모던, 북경 798 예술구의 공통점은 발전소와 철도 역사, 공장처럼 전기 산업시대에 건립된 산업건축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1929년에 세워진 나비스코 공장을 개조해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한 디아 비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공사례 중에 하나로, 디아 비콘의 리노베이션 작업은 조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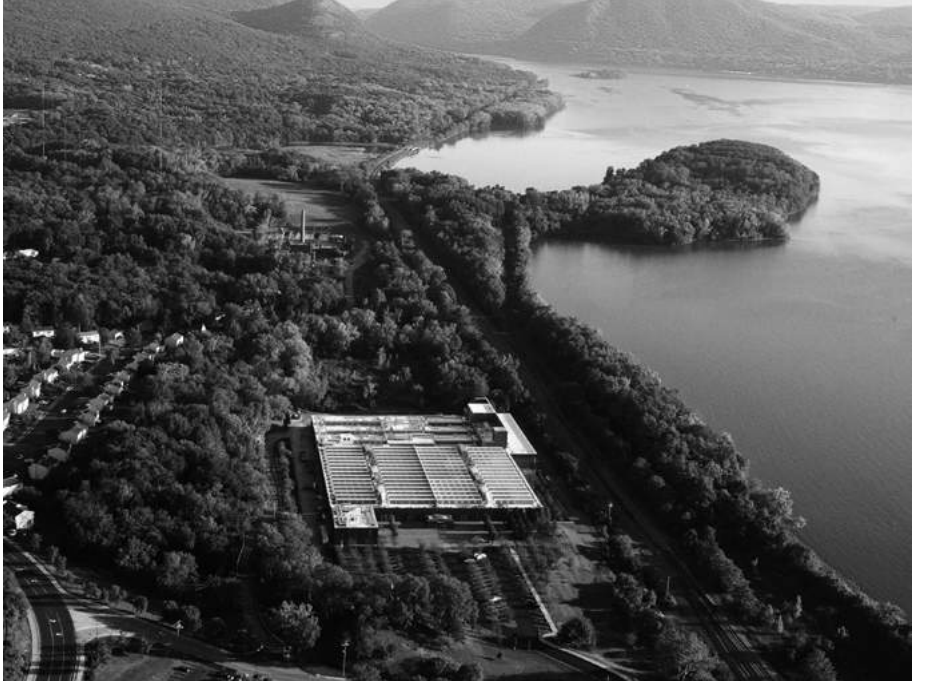


그림 2)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디아 비콘 미술관 전경

로버트 어윈(Robert Irwin)과 맨해튼의 건축 사무실 오픈 오피스(Open Office)가 공동으로 맡았다. 디아 비콘에는 요셉 보이스와 앤디 워홀, 도널드 저드, 솔 루윗, 댄 플래빈, 리처드 세라, 로버트 스미드손, 월터 드 마리아, 마이클 하이저, 존 챔벌레인 등 196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을 좌지우지했던 24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미식 축구장만한 넓은 공간 속에 숨 쉬고 있다. 디아 비콘의 건축적 특성과 소장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디아 비콘의 성장배경

발터 벤야민은 1931년에 미술품 수집의 몰락을 예견했다. 경제공황 탓이었을까? 그는 열정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집가의 유형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예언이 종종 그렇듯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술시장은 엄청나게 확대됐고 미술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뉴욕만 해도 1940년대 초에 20여개에 불과하던 전위적 화랑이 1970년대 중반에는 300여개로 늘어났다. 미술관 건립이 잦아지면서 갤러리, 아트센터, 쿤스트할레, 파운데이션처럼 미술관을 일컫는 호칭들도 다양해졌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르, 특정한 작가들을 다룬 블록버스터형 전시 기획이 늘어나고, 관람객의 기호 또한 특화된 미술관을 찾는 쪽으로 선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뉴욕이 특히 그랬다. 모더니즘 미술 전반을 이해하려면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미국 현대미술을 섭렵하려면 휘트니미술관을, 프라고나르와 와토로 대표되는 로코코 시대의

미술을 보려면 프릭미술관을,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보려면 뉴뮤지엄을 찾아 나서야 한다. 1960년대 융성했던 미니멀조각과 개념미술작품의 진수를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할까? 모더니즘 미술의 성소로 불리는 모마를 떠올릴 수 있으나 1960-70년대의 현대미술 심연을 심층적으로 접하기 위해선 디아 비콘 미술관이 제격이다. 디아 비콘의 컬렉션은 매우 독특하다. 대부분의 현대미술관들이 인상파부터 현대미술까지 폭넓게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비해 디아 비콘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미술 작품만을 고집한다.

미술사를 다룬 대부분의 서적들이 미국 현대미술의 시작과 중심을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와 팝아트로 보지만 디아미술재단은 진정한 미국적 미술의 역사를 1960년 중반 이후의 미니멀리즘과 1970년대의 개념주의 미술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공업 재료들을 매체로 사용한 미니멀 작가들의 작품이야말로 순수한 미국적 미술이고, 이때부터 비로소 주체성을 확보한 미국 작가들의 작품이 유럽 미술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서 단토는 '예술의 종말'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종말을 고한 1962년 이후, 수많은 양식들이 현기증 나는 속도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는 이 시대를 양식의 발작기라고 불렀다, 팝아트, 옵아트, 하드에지 추상, 미니멀리즘, 아트포베라, 대지미술, 개념미술 등이 봇물처럼 이어졌기 때문이다. 백가쟁명 식으로 생성된 미술운동 중에서도 1960년대의 미술 흐름을 지배해온 두 개의 큰 관문을 꼽으라면 팝아트와 미니멀 아트일 것이다. 도널드 저드, 솔 루윗, 댄 플래빈 등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미술가들이 파종한 미니멀 아트는 1960년대 말 개념미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디아 비콘에는 바로 이 시기, 즉 현대미술의 발작기에 활동한 24명 작가들의 작품이 포진해 있다. 디아 비콘의 모체는 뉴욕에 본거지를 둔 디아미술재단(Dia Art Foundation)으로, 이곳은 현대미술의 모종판이나 다름없었다.

미국 현대미술의 모종판 디아미술재단

초기 백과사전에는 패트론을 미술친구, 후원자, 그리고 이타적인 예술과 학문의 촉진자로 정의하고 있다. 예술 후원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개인의 이익과 유익하게 결합된 행위이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디아미술재단의 후원 시스템은 잘 짜인 미술 후원의 모범 답안이었다.

그림 3) 디아미술재단이 후원한 월터 드 마리아의 '라이팅 필드'

디아미술재단은 1974년 뉴욕과 퀼른을 오가며 활동하던 독일 출신의 아트 딜러 하이너 프리드리히(Heiner Friedrich)와 그의 아내 필리파 드 메닐(Philippa de Menil)이 설립한 비영리 미술 재단으로 출범했다. 그리스어로 디아 Dia는 'Through'라는 의미이다. '~통하여'라는 의미에 걸맞게 디아미술재단은 실현되기 힘든 실험적인 미술 프로젝트를 실현 가능케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작가를 후원해 왔다. 디아미술재단이 후원한 작품들의 면면을 되짚어 보면 그 역할이 얼마나 뜻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

해발 7천200피트에 달하는 뉴멕시코 주 퀴마도 인근의 높은 사막 지대, 미국 내에서 낙뢰가 가장 빈번한 지역에 400개의 스테인리스 막대를 설치해 벼락이 치는 모습을 연출시킨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의 '번개치는 벌판'(The Lighting Field)과 미국 유타주 그레이트솔트호에 설치한 로버트 스미드손의 '나선형 방파제'(Sprial Jetty) 역시 디아가 후원하지 않았다면 완성되기 어려운 작품들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텍사스 마파 들판에 세워진 도날드 저드의 작업장 치나티 파운데이션(Chinati Foundation)과 뉴욕 브리지햄턴에 위치한 댄 플래빈의 전시장 역시 디아가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들이었다.

디아미술재단이 후원한 미술품과 작가들을 살펴보면 미니멀 조각과 대지미술, 설치미술 영역에 속하는 작가들이 많다. 그러나 디아미술재단의 예술후원은 1980년대 중반 위기를 맞이했다. 디아의 자금원은 텍사스의 석유회사 슐렘베저사를 이끄는 메닐가문으로, 디아미술재단을 설립한 필립파 드 메닐은 메닐 컬렉션을 설립한 텍사스의 석유재벌 도미니크 드 메닐의 딸이었다. (미술 후원자인 도미니크 드 메닐의 역할에 관해서는 2015년 10월호에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예술 후원은 무엇보다 자금력이 풍부해야 했다. 1970년대 후반 슐렘베저사의 주가가 폭락하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디아의 자금줄도 위협을 받았다. 결국 1985년 필리파 드 메닐부부는 디아미술재단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디아미술재단은 시애틀 출신의 찰스 라이트(Charles Wright) 관장과 도전적이고 야망 넘친 큐레이터 리네 쿡((Lynne Cooke)의 주도로 운영된다. 뉴욕 웨스트 22번지에 4층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하여 '디아 센터'(Dia Center)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젊은 개인 작가들을 지원하는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최해왔다. 1995년 찰스 라이트의 뒤를 이어 반스앤노블의 오너인 레

그림 4) 디아미술재단이 후원한 로버트 스미드손의 '나선형 방파제'(Sprial Jetty)

너드 리지오(Leonard Riggio)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 디아미술재단은 보다 안정적인 성장의 기틀을 구축하게 된다.

리처드 세라의 전시회와 디아 비콘의 탄생 배후

1990년대 중반 디아미술재단의 큐레이터들은 리처드 세라의 작품전을 기획하면서 고민에 빠진다. 리처드 세라가 자신의 작품 구상이 담긴 스케치를 보여주자 큐레이터 리네 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미술관 관계자 어느 누구도 세라가 제시한 구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를 못했다. 무게가 120톤이나 되는 거대한 철제 조각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디아미술재단은 첼시의 웨스트 22번지에 전시장을 사용해 왔으나 거대한 리처드 세라의 작품 '비틀린 타원들'(Torqued Ellipses)을 전시하기에는 턱없이 작았다. 5미터가 넘는 세라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천장고가 우선 높아야 했고, 폭이 8미터에 달하는 작품을 세 개나 설치해야 했다. 여느 미술관 같으면 쉽게 포기할 법한 프로젝트였지만 디아미술재

그림 5) 디아 비콘 내부에 전시된 세라의 'Torqued Ellipses'

그림 6) 뉴욕 첼시 디아 아트 미술관에 전시된 세라의 조각

단은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관장인 레너드 레지오는 리처드 세라의 열렬한 팬이었다. 디아미술재단은 근처 웨스트 545번지의 창고건물을 개조하여 전시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설계는 미술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이 많은 리차드 굴럭만(Richard Gluckman)이 맡아 슬라브 일부를 철거하여 천장고를 높혔고, 자연광이 유입돼 따뜻한 분위기가 되도록 목재 트러스를 손봤다.

철판을 비틀어서 타원형으로 세운 'Torqued Ellipses'는 리처드 세라가 이제까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었다. 작품구상부터 완성까지 4년이 걸린 "Torqued Ellipses"가 대중들에게 선보인 것은 1998년 6월 14일이었다.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온 레너드 리지오는 실험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규모의 전시장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디아미술재단의 소장품이 700점을 돌파하면서 전시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때마침 1929년 박스 인쇄 공장 용도로 지은 나비스코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디아 예술 재단에 공장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버려진 나비스코 공장을 미술관을 개조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 5천만 달러. 관장이자 반스 앤노블의 최고 경영자인 레너드 리지오가 3천 5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민간 및 정부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충당했다. 쓸모없는 거대한 공장이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발달된 기부 문화 덕분이었다.

나비스코 공장과 미술관 건축의 정합성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95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비콘의 인구는 1만 4천명 밖에 되지 않지만, 뉴욕주 최초의 정착 마을 가운데 하나로 뉴요커 사이에서 흔히 '히스토릭 비콘(Historic Beacon)'으로 불린다. 철도가 인접해 있어서 독립 전쟁 시기에는 군수 물자를 제조하는 공장이 들어섰고, 미국 모자 생산의 중심지로 불릴 정도로 모자를 만드는 공장이 많았다. 1929년에는 제과업체인 나비스코사가 포장용 박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세웠다. 모더니즘 건축의 교리에 충실한 가능주의 양식으로 세워진 벽돌마감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장이었으나, 60여년의 세월이 흘러 나비스코 공장이 가동을 멈추자 1991년 이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세계적인 목재 제지회사 인터내셔널 페이퍼사가 인수하지만 여러 해 동안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건축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돼 뉴욕주가 지역 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보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인터내셔널 페이퍼가 공장을 디아미술재단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자 미술관 관계자들이 뉴욕에서 기차로 한 시간 거리인 비콘

그림 7) 1929년 건설된 나비스코 공장

그림 8) 리모델링 이전의 나비스코 공장 내부

을 찾았다. 오랫동안 방치된 나머지 이름 모를 식물들이 벽과 홈통을 타고 올라 픽쳐레스한 풍경을 연출했다. 코울타르로 방수 처리된 지붕은 흉측하기 짝이 없었고 경량 콘크리트 지붕판 곳곳이 파괴되어 있었다.

실내공간에 들어서자 '높은 천장고와 넓은 면적의 공장 내부가 시야에 들어왔다. 디아미술재단이 후원해 온 대형 미술품을 소화하기에 적격이었다. 나비스코 공장은 다른 공장 건물에 비해 뛰어난 채광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크래커 제품을 포장할 박스를 칼라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색채를 정확이 인지할 수 있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균질한 자연광이 필수적이어서 톱날형 천창들이 지붕 전체에 설치되어 있었다. 북향의 톱날형 지붕에서 유입되는 빛이야말로 미술품을 자연 상태에서 보여주기에 최적이었다.

한 변의 길이가 90미터에 가까운 이 거대한 공장 내부 역시 12미터의 기둥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대형 미술작품을 전시하기에는 적합했고, 단풍나무가 깔린 공장의 바닥 역시 관람객

에게 촉각적인 안정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설치미술이 놓이기에 적합했다. 공간계획과 조경계획은 조각가인 로버트 어윈에게 맡기기로 결정됐다. 어윈은 공공건물의 설치작품 및 조경작업을 통해 널리 이름이 알려진 건축적 성향이 강한 조각가였다.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붕처리가 최대의 난관이었다. 45도로 나있는 톱날형 천창은 미술관 조명의 생명이나 다름없기에 디아미술재단은 지붕과 천창에 대한 설계와 시공기술이 축적된 뉴욕의 건축사무소 오픈오피스(Open Space)에 지붕설계를 맡겼다. 공간과 조경 설계를 맡은 로버트 어윈은 1999년 일을 맡자마자 몇 달을 현장에서 보내면서 미술관 재생 프로젝트에 몰입했고, 2000년에는 현장 근처로 이사를 해 그곳에 머물면서 미래에 찾아 올 미술관 관람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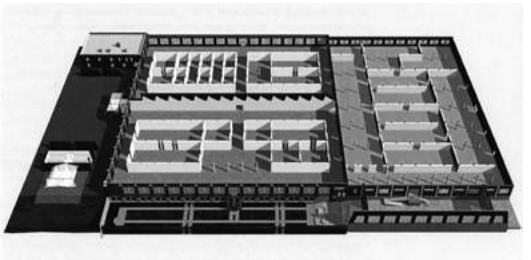


그림 9) 로버트 어윈이 계획한 미술관 내부 배치 모형

그림 10) 디아 비콘 로비

댄 플래빈과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

디아 비콘의 리지오 갤러리는 1층과 지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공장 내부가 칸막이벽 사이로 나타난다. 동선의 선정은 자유지만 시계방향으로 동선을 택하는 경우 제일 먼저 만나는 작품은 댄 플래빈의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Monument for V. Tatlin) 시리즈이다. 6.25전쟁 당시 미공군 소속 기상관측 기술병으로 한국에서 복무한 바 있는 댄 플래빈은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술공부를 마친 후, 추상표현주의적인 회화와 콜라주 등의 작품을 거쳐 196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형광등을 이용한 작품을 발표해 왔다.

왜 형광등일까? 왜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일까? 1960년대부터 플래빈은 이젤 회화에서 벗어나 예술적 기교와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작품의 생산을 강조한 러시아 구성주의에 감탄했다. 1960년대 초반 그럴만한 사건이 있었다. 영국의 미술사가 커밀라 그레이가 쓴 <위대한 실험: 러시아 미술 1863-1922>이 1962년 발간됐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블라디미르 타

틀린의 '제3인터내셔널 기념탑'(1920)이나 로드첸코의 '노동자 클럽'(1925)과 같은 유토피아적인 계획이 실려 있었고, 산업과 예술을 결합시키려는 타틀린이 주창한 생산주의의 실험적인 작업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1960년대 미니멀리즘 미술가들은 타틀린과 로드첸코의 구성주의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산업적 재료의 사용과 기본단위들을 반복함으로써 구축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했다. 특히 플래빈은 산업적인 재료의 채택, 제작과정의 공개, 건축적 장소화를 선언했던 타틀린에 완전히 매료되어, 타틀린이 1920년에 설계한 '제3인터내셔널 기념탑'에 경의를 표했다. 1964년 댄 플래빈은 2피트, 4피트, 6피트짜리 기성품 형광등을 결합하여 타틀린의 나선형 기념탑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다. 작품 속에는 타틀린의 구성주의와 뒤샹의 레디메이드라는 두 패러다임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뒤샹의 경우와는 달리 플래빈에게서의 레디메이드는 단지 미술의 탈신비화나 탈물신화를 수행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댄 플래빈은 형광등을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현대의 테크놀로지적인 물신"으로 여겼다. 타틀린 시대의 구성적 방식을 도입해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예술에 담고 싶어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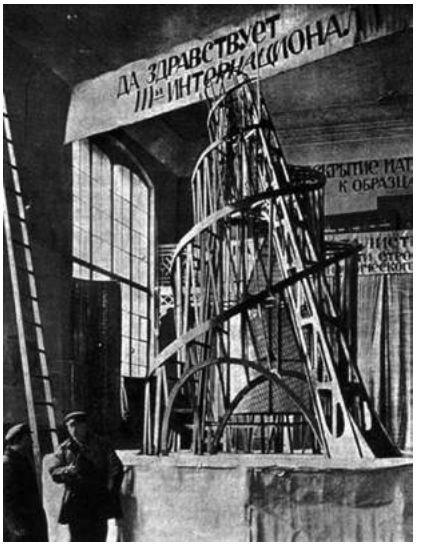


그림 11) 타틀린의 제3인터내셔널기념탑,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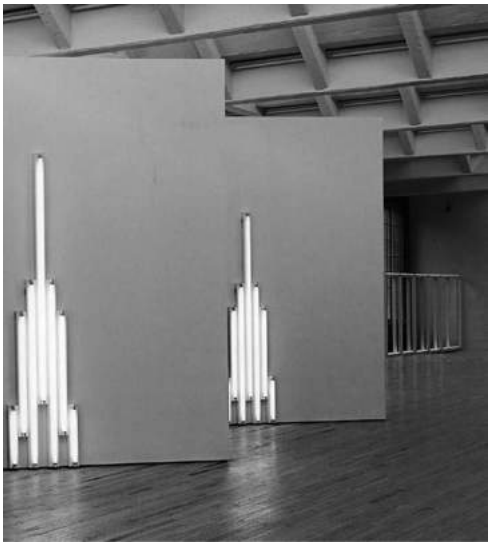


그림 12) 댄 플래빈의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

장누벨이 설계한 리움미술관 1층 전시장에서도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를 만날 수 있긴 하나. 디아 비콘에서는 여러 점을 만날 수 있다.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를 마음껏 보려면 디아 비콘을 방문하라고 할 정도다. 디아 비콘 전시 작가 24명 대부분은 1960-70년대 현대미술

을 이끈 작가들로,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해 관람할 필요가 있다. 댄 플래빈은 도날드 저드(Donald Judd) 솔 루잇(Sol LeWitt)과 함께 미니멀 조각가 그룹에 속하는데, 1960년대 미니멀리즘을 선도해 미니멀 조각가들 또한 디아비콘에서 만날 수가 있다.

도널드 저드와 미니멀 조각의 전형들

미니멀 조각과 관련한 최초의 전시회는 1964년 1월 코네티컷 주의 하드포트에 위치한 워드워스 아데나움에서 개최된 블랙 화이트 앤 그레이(Black, White and Gray)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니멀 조각의 특성이 시각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표출된 것은 1965년 뉴욕 유태인 미술관에서 개최된 '프라이머리 스트럭쳐'(Primary Structure)전이었다.

수많은 조각가들이 참여했지만 이 전시회의 주역은 1960년대 미니멀 조각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도널드 저드(1928-1994)와 솔 르윗(1928-), 로버트 모리스(1931-), 칼 안드레(1935-), 댄 플래빈(1933-1996) 다섯 명이었다.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태어났고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이 작품은 전시회의 타이틀처럼 기본구조로 환원된 단순형태의 작품들이었다.

열 개의 전시장으로 나뉘어 전시된 이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도날드 저드와 로버트 모리스의 조각이 전시된 제5 전시실로, 똑같은 크기의 입방체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도널드 저드의 작품은 조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체나 구조물처럼 보였다. 종래의 조각이 좌대 위에 있었으나 저드의 조각은 좌대를 거부한 채 바닥에 놓이거나 회화처럼 벽면에 부착되었다. 도널드 저드는 자신의 작품을 '특수한 사물'이라고 부르면서 조각으로 불리기보다는 하나의 사물로 불리길 원했고, 대부분 '무제(Untitled)'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내용보다는 형식, 그 어떤 내용이나 의미도 전달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저드는 이를 위해 산업용 재료인 콘크리트와 철판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크릴판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료는 균일한 구조와 정확한 공정을 가능하게 했고 몰개성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기에 적합했다.

디아 비콘에는 합판으로 제작한 도널드 저드의 15개 작품이 질서 있게 나열되어 있다. 다섯 개씩 3열로 배치된 육면체의 목재 상자로, 작품인지 일상적인 사물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도널드 저드와 함께 미니멀리즘을 주도한 솔 루윗의 미니멀 조각 작품 또한 디아 비콘에서

그림 13) 디아 비콘의 도널드 저드의 조각

만날 수 있다. 입방체를 형태 중에서 가장 감정이 없는 것으로 여긴 솔 루윗은 형태의 구조를 찾기 위한 작업 속에서 큐브 프레임이라는 어휘를 설정하게 된다. 백색의 입체격자로 구성된 그의 조각은 마치 건축적인 구조물을 연상시킨다. 디아 비콘에 전시된 작품 역시 그런 속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디아 비콘 전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작품은 수많은 선들로 이루어진 솔 루윗의 벽면 드로잉으로, 범례화시키면 그것은 개념미술이다. 미니멀리즘을 선도하던 솔 루윗은 1967년 어느 날 개념미술로 전도된다.

개념예술, 반전통적 제스처와 언어적 표현

개념 미술은 형태와 재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념과 의미에 관한 것으로, 서구의 현대미술은 재현에서 추상으로 다시 추상에서 의미의 영역으로 점차 그 외연을 넓혀가면서 개념미술의 씨앗을 파종해 왔다. 출발은 전통적인 미술의 조건들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나왔다. 미술은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한 괄호치기이자 전통적 형식에 대한 도전이었다. 일상용품의 맥락에 놓여있던 남성용 소변기가 샘이라는 작품명으로 전시장에 놓였을 때 그 의심은 발아되어, 미술의 문제는 이후 '형상'에서 '개념'으로 관심사가 바뀌었고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개념미술의 시작점으로 인식되었다. 뒤샹적 반예술. 그것은 1960년대 말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미국의 신진 개념미술 작가들에게는 아이디어의 원천과도 같은 것이었고, 모더니즘의 교리가 붕괴되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사이 개념미술은 미술사에서 확고하게 존재의 의미를 획득했다.

1967년 미니멀 아트와 연계되어 있던 솔 루윗이 '개념미술에 대한 단평'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외침이었다. 그가 발화한 '컨셉츄얼 아트'라는 용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었고, 1969년 1월 뉴욕의 화상 세스 지겔라우프(Seth Siegelaub)가 기획한 '1월전(January 5-31,1969)'은 개념미술전의 효시로 평가받았다. 유럽에서는 치열한 논쟁 끝에 1972년 개최된 '카젤 도큐멘타5'에서 공식적으로 개념미술이 인정받기에 이른다.

개념예술가들 중에는 자유분방한 사고를 지녔던 캘리포니아 대학 출신과 요셉 보이스에게 사사한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출신들이 유독 많았다. 디아 비콘 24명의 작가들 중에는 솔 루잇을 비롯하여 베른트 베허와 헬라 베허(Bernd and Hilla Becher), 한나 다버벤(Hanne Darboven), 온 카와라(On Kawara), 로렌스 와이너(Lawrence Weiner), 부르스 나우만(Bruce Nauman)등 7-8명이 개념예술가군에 속한다. 디아 비콘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벽면에 숫자가 적인 카드보드판을 나열한 온 카와라의 작품과 문자를 나열한 로렌스 와이너의 작품이다. 일본출신의 개념미술가 온 카와라는 1966년부터 2000년대까지 40여 년 동안 여행하면서 여러 도시에 머문 시각을 검은색 카드보드 위에 기록해, 무감각하게 흘려버리기 쉬운 시간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했다. 플럭서스 계열의 작가 헨리 플린트가 1961년 발표한 논문에서 언어를 다루는 방식이 개입된 미술을 '컨셉트 아트'라고 명명했던 것처럼, 언어를 이용한 작품은 개념미술의 중심부에 있었다.

그림 14) 개념미술가 온 카와라의 작품

1960년대의 개념미술은 몇 가지 분화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문자를 사용하여 순수하게 언어적으로 이해되는 개념미술 형식과는 별도로 미니멀 아트에서 발전하여 수학적-기하학적으로 환원되는 형식, 다니엘 뷔렌처럼 줄무늬나 도형을 통해 개념을 형상화하는 방식, 사진이나 영상 매체를 이용한 유형학적 혹은 전기적 형식의 개념적 접근 등 다양하게 구현된다. 개념미술보다 앞서 진행되었던 미니멀 조각가들의 작품이 광의적인 측면에서 개념 미술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만들어진 상태보다는 완성되기 이전의 개념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아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디아 비콘에 전시된 작품 중에는 사진이나 영상 매체를 이용한 개념미술 작품들도 눈에 들어온다.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출신인 베른트 베허와 알라 베허의 작품이 대표적인 경우. 공동 작업을 해온 이들 부부는 산업건축물의 유형학이라는 주제로 저수탑 용광로 냉각탑 등을 찍은 여러 장의 흑백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 쇠락해가는 산업건축물을 개념화시켜 표현했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은 여러 개의 유사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높은 천장고에 넉넉한 전시 공간을 구비한 디아 비콘은 미니멀 조각가들과 개념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인 것이다.

디아 비콘 실내공간을 파고든 대지미술

디아 비콘 참여 작가 중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은 대지미술가들이다. 대지미술 역시 1960년대 후반 태어났다. 그 징후가 명료히 드러난 것은 1968년 뉴욕 드완갤러리에서 개최된 '대지예술'(Earth Work)이라는 제목의 그룹전이었다. 이 때 참여한 작가들 중 마이클 하이저(Michael Heizer)와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리차드 스미드손(Robert Smithson)의 작품을 디아 비콘에서 만날 수 있다. 1944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태어나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회화공부를 마친 마이클 하이저는 1966년 뉴욕으로 이주하여 칼 안드레, 댄 플레빈, 토니 스미스 등과 어울리면서 미니멀리즘의 세례를 받은 후 영국의 리처드 롱과 미국의 로버트 스미드손, 월터 드 마리아, 크리스토 등과 교류하면서 대지미술의 선단을 걸었다.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당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환경운동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기존의 인습적 표현 소재에서 탈피하는 데 있었다. 화랑이나 미술관에 국한된 작품 제작에서 벗어나 사막과 초원, 고지, 해변 등과 같은 광활한 야외에서 자연물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마이클 하이저는 1969년에 '이중 부정'(Double Negative)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이중부정'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 깊이 40피트, 길이 100피트의 두 개의 구덩이로

그림 15) 디아 비콘의 마이클 하이저의 대지미술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대지미술로, 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관람자는 깊은 계곡 속에 함몰된 자신의 신체를 이동시키면서 작품과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이 신체의 연장이고 신체는 또다시 작품의 일부가 되는 그의 대지미술은 작품과 감상하는 주체가 분리되지 않고 환경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융합된다. 하이저는 이보다 2년 앞선 1967년 네바다 사막에 원과 사각형, 삼각형 구덩이를 판 '동서남북'이라는 작품을 디아미술재단의 도움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디아 비콘으로부터 상설전시 작품을 의뢰받은 하이저는 이 작품의 스케일을 축소해서 디아 비콘 미술관에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네바다 사막에 120피트(36.57미터)의 깊이로 설치했던 것을 20피트(6.1미터)의 깊이로 축소한 것이었다. 네바다 사막을 가지 않더라도 관람객들은 하이저의 대지미술의 실체를 전시장 내부에서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과 사각형, 삼각형 같은 순수기하학을 사용한 마이클 하이저처럼, 월터 드 마리아 역시 기하학적 형상을 즐겼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역사와 미술을 공부한 후 전설적인 록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에서 드럼을 치면서 음악적 개념이 담긴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던 월터 드 마리아가 뉴욕으로 이주한 것은 1960년으로, 그는 이 시기에 다른 대지미술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니멀리즘의 세례를 받는다. 미니멀 작가들의 공통점은 정형기하학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 디아 비콘에 전시된 월터 드 마리아의 작품 'The Equal Area Series'에서 그런 경향은 한층 더 농밀하게 나타난다. 디아 비콘은 월터 드 마리아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전시장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넓은 공간은 마치 대지와도 같다. 그 위에 5인치 폭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원환과 정사각형 프레임세트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원과 정사각형의 기하학적 도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극히 개념적이다. 이 작품은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 그리고 대지미술로 연결되는 그의 작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모형을 들고 있는 마이클 하이저

로버트 어윈의 정원계획

로버트 어윈(Robert Irwin)은 화가이자 설치미술가로 알려져 있지만 게티미술관의 센트럴 가든과 디아비콘 정원을 설계해 건축계에도 꽤나 알려진 캘리포니아 출신의 작가이다. 화가가 정원을 디자인한 경우는 역사적으로 윌리엄 켄트를 비롯해 몇몇 존재하지만 대부분 18세기의 일이다. 그림을 그리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설치미술가로 변신한 그는 1990년대부터 정원계획에 참여한다. 초기 그림은 엘즈워스 케리처럼 색면 추상이며, 설치미술은 제임스 터렐처럼 빛과 공간을 다룬다. 로버트 어윈이 디아미술재단과 접촉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으로, 뉴욕 첼시의 디아 미술관에서 몇 번의 전시를 연 것이 계기가 되어, 비콘에 세워질 미술관의 마스터 플랜을 맡게 된다. 출입구 디자인과 창문디자인, 정원 디자인은 어윈이 맡아 디자인하였으며, 천창의 교체작업을 비롯한 건축물의 마감과 보존과 관련한 부분만을 뉴욕의 설계사무소 오픈 오피스에서 맡았다.

로버트 어윈이 게티센터에 참여할 때 리처드 마이어와의 갈등이 매우 심했다고 알려져 있다. 상호배타적 성향을 지닌 두 사람은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대립했다. 빌바

그림 17) 로버트 어윈의 디아비콘 특별전 '사각형에 대한 경의'

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프랑크 게리와 리처드 세라 사이에서 발생된 불화와도 비슷했다. 게리가 아티스트 역할을 취하자 세라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 당했다는 불만에 사로잡혔고, 친구 사이로 의기투합했던 두 사람 사이가 깨진 것이다. 주관과 지향점이 뚜렷한 건축사와 조형예술가 사이의 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디아 비콘에서는 어윈이 조형적 측면을, 오픈 오피스가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면서 큰 문제없이 과업이 완수된다. 어윈의 디자인은 대부분 기하학으로 조율되어 있다. 정원과 창문 디자인은 모두 사각형이 모듈이 지배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디아 비콘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되고 있는 로버트 어윈 전시회의 제목 또한 '사각형의 경의에 대한 여담(Excursus: Homage to the Square)'이다. 이곳에서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반투명한 사각형 구조물 속에서 유동하는 관람객의 실루엣을 지각적 차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별 전시 작품과 조응하는 창문 디자인과 정원디자인에 반영된 사각형은 기존 공장의 맥락을 유지하려는 어윈의 몸짓처럼 보인다.

디아 비콘 방문하기

뉴욕 그랜드센트럴 역에서 비콘을 가기 위해서는 포킵시(Poughkeepsie)가 종점인 메트로 노스라인 기차를 타야한다. 비콘행 열차는 오전 8시 50분, 9시 50분, 10시 50분, 11시 45분, 12시 45분 등 다섯 차례 있고 목적지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기차표를 구입할 때에 미술관 티켓과 열차 왕복티켓이 패키지로 결합된 원데이 겟어웨이(One-Day Getaway) 티켓을 구입하면, 왕복 기차표와 함께 미술관 입장권을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가격은 25.5달러. 개방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르다.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개방하는 반면 동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디아 비컨 미술관 자체와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날씨가 흐린 날은 개방하지 않기도 한다. 하절기에는 월요일만 휴관인데 비해 동절기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만 개방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 카페의 정취가 좋지만, 주변에 미술관을 제외한 상업시설이 없으므로 미리 점심을 준비해 허드슨 강변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매월 1-2회씩 미술 비평가를 초대해 소장 작가에 대해 토론하는 'Gallery Talk'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음악 연주회와 댄스파티와 같은 이벤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미술관 방문에 앞서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로 대변되는 1960년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숙지하고 가면 감상의 깊이를 높일 수 있다.

그림 18) 로버트 어윈이 디자인한 디아비콘 정원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 방법

Solutions of legal disputes which happen under subcontract

글. 김주덕_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문화신문을 보니, 김철민 건축사가 안산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건축사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정말 의외였다. 의사나 변호사, 교수 직업분야에서는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건축사는 지금까지 아무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 김 의원이 건축사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축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규정 개선, 건축물 내 전기설비, 소방설비 설계 발주제도 개선, 소규모건축물 승강기 바닥면적 산입기준 완화 등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국내건축경기는 매우 침체된 상태에 있다. 제주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동산침체에 대한 강한 우려감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축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6년 1/4분기 건설엔지니어링기업 경기실사지수(CEBSI)가 79.8로 지난 해 4/4분기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기업 경기실사조사 지수

(CEBSI)는 건설 경기의 현재와 향후에 대해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건설업계가 향후 건설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다.

이러한 전반적인 국내외 건설경기의 침체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담합시비와 대형안전사고의 계속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울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건설회사가 부도나면 그에 딸린 수많은 하청업체가 연쇄적으로 부도나게 된다. 건축을 추진하던 사업주체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건축업자나 건축사도 피해를 보게 된다.

대부분의 공사에서 공사를 맡은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하청업체에 맡긴다. 그래야 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공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급인 – 수급인 – 하수급인 세 사람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말썽이 생길 소지가 많다. 그러다 보면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세 사람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서는 하도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건축주와 수급인, 그리고 하청업체 3자간의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축관계에서 분쟁이 많은 이유는?

건설이나 건축에서는 오늘도 많은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송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사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의 폭이 너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생각하는 공사의 의미와 건축업자가 실제 시공하는 공사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건축주는 실용성과 기능성을 갖춘 건물을 짓고자 한다. 건축업자가 좋은 품질의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튼튼하게 건축을 하기를 바란다. 설계하는 건축사도 자기 건물을 짓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설계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공사를 맡을 때에는 건축업자는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싼값으로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건축을 할 것처럼 말한다. 다른 건축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견적서에 기재한다. 많은 공사를

해온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믿고 맡기라고 한다.

건축에 경험이 전혀 없는 건축주는 중간에 소개해 준 사람 말만 믿고, 건축업자가 대단히 실력이 있고 공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견적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건네준다. 그러면 모든 것을 건축업자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려니 생각하는 것이다.

막상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좋게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부실시공, 공사 중도포기, 대금미지급, 하청업체와의 분쟁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건설건축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특히 하도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Ⅲ.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많은 공사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를 맡은 건축회사 또는 건설회사에서 모든 공사를 혼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회사 또는 건축업자를 믿고 공사를 맡긴 것인데, 정작 공사를 할 때에는 직접 하지 않고 부분별로 모두 하청을 주어 공사를 하게하고, 나중에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문제가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된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건축업자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선급금도 받고, 중간에 공사한 공정 이상으로 기성고를 받은 다음, 건축자재나 물품도 모두 외상으로 사오고 하청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한다.

이 때 물품대금을 받을 납품업자나 공사를 한 하청업체들이 몰려들어 건축주에게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게 된다. 공사는 중간에 중단된 상태이고, 다른 업자를 구하려고 해도 기존의 건축업자나 하청업체가 공사현장을 비워주지도 않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수법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건축업자의 입장에서도 하청업체를 잘못 만나면 부실시공을 하는 등, 돈은 받아가고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또한 건축업자가 져야 한다. 공사가 끝난 다음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청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원청업자가 지는 것이지, 나중에 하청업체가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장해야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Ⅳ. 하도급계약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도급계약은 건축공사를 맡기는 계약이다. 하도급계약은 처음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 다시 새로운 아래 단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에서 체결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충적으로 맺어지는 계약이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은 건축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건물을 짓는 사람이 도급인이 되고, 건축업자가 수급인이 된다.

이러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업자는 구체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의무는 없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제3자에게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길 수 있으며, 건설공사에는 전문화된 다양한 공종이 있어 전문분야를 전문건설업자가 공사하는 것이 품질향상이나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시공능력을 믿거나, 공사의 성질상 수급인만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여서 수급인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급인이 임의로 하도급을 줄 경우 하수급인의 공사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다.

Ⅴ. 건축업자와 하청업체의 관계

하도급법의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사업자인 원수급인은 몇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중요한 의무내용을 보면, ① 서면의 발급 및 서류 보존 ② 선급금의 지급 ③ 검사결과 통지 ④ 하도급대금지급 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⑥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⑦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이다.

하도급법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도급인이나 수급인,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 어려운 한자말이어서 한글세대는 선뜻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전문용어는 가급적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한다.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기명날인한 하도급계약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얼마의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공사에서 선급금은 매우 중요하다. 선급금은 건축공사계약에서 자금이 부족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구입비와 임금을 먼저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착수 전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선급금은 구체적인 공사의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사전에 일부를 지급하는 돈이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4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의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VI. 건축주와 하청업체와의 관계

발주자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써 발주자의 수급인 등에 대한 공사대금지급과 수급인 등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 등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Ⅶ.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실제 건축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건축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기성고 이상으로 공사대금은 다 받아 챙기고, 하청업체에 하청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부실한 건축업자는 부도를 내고 도망간다. 더 이상 공사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건축주는 공사는 중단되고, 하청업체들은 와서 일한 대가를 달라고 난리를 친다. 새로운 건축업자를 구해 중단된 공사를 하려고 해도 방해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법과 계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힘이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법에 하소연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와 사실상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건축주도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보아 억울한데, 이중으로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주자니 그렇고, 공사는 해야겠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된다. 하는 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절충을 해서 하청업체에게 돈을 물어주고 다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업자와 합의를 하여, 공사대금을 건축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를 직불합의(直佛合意)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건축업자는 하청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건축업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애당초 하청업체에게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건축업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인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건축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급인이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건축주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업자가 처음부터 장래에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을 하청업체에게 양도하고, 이와 같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인 건축주가 승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건축업자는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아예 하청업체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을 가지지 않게 된다.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Ⅷ.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계약

어떤 공사를 A회사와 B회사가 공동으로 도급을 받은 다음, 이 가운데 일부 공사를 C회사에 하청을 준 경우 하청업체인 C회사는 공사대금에 대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건설도급공사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조합으로 보게 되면, 공동수급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조합 및 합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채권이 발생할 당시의 시점에서 조합원의 손익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시점에 있어서의 조합원의 손익부담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똑 같은 비율로 나누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갚을 수 없는 부분의 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에게 똑 같은 비율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공사대금채무의 부담은 외부적으로 공동책임이지만 내부적으

로는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하수급인도 민법 제712조에 따라 구성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그 지분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구성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구성원이 자력이 없어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13조에 따라 그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구성원이 균분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된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Ⅸ. 일괄하도급의 금지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축업자가 자신이 맡은 공사를 모두 일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주는 것을 일괄하도급이라고 한다. 건축주는 건축업자를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몽땅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면 신뢰가 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중간에 원수급인이 수수료 형태의 돈을 많이 받아먹으면 자연히 부실시공의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하도급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한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

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리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다.

Ⅹ. 하도급에서의 책임 문제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준 사람은 원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가 한 행위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유는 건축주는 오직 원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은 원건축업자가 물어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하도급은 건축주가 관여하지 않는 건축업자와 하청업체 사이의 별개의 계약이며 법률관계다. 다만, 하도급은 원도급에 종된 계약이므로, 원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기타의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하도급의 목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도 종료될 수밖에 없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일을 하도급한 경우에 하도급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지 못하면 하도급과 관련 없이 여전히 수급인의 지위에서 도급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지게 된다. 수급받은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는 물론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부담하고 하수급인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권

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법률 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일의 완성의무,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수급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XI.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나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XII. 맺는 말

이상에서 하도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건축업자를 잘 선택하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을 정하고,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업자 역시 하청업체를 잘 만나야 하고, 중간에서 하청대금을 착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청업체도 건축업자의 재정상태나 신용을 확인하고 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하도급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조금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보는 건물에너지절약 정책방향

Direction of construction energy-saving policy viewed in field

글. 이기완_ Lee, Kiwan · ㈜에코존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한건축사협회 녹색·에너지위원장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1979년부터 건축물 부위별 단열재 두께규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3년에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시작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제 등 제도가 마련되어 녹색건축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1992년부터 2012년은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한 리우회의, 교토의정서, 발리로드맵, 코펜하겐, 칸쿤 등 연례적인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협약 등의 국제적 이슈들이 있었으며 국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13년엔 건축분야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녹색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와 각 지지체들이 법 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공공건축에 적용하면서 일반건축에 구분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축건물보다는 기존건물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 유형과 규모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절실하며 도시단위의 녹색정책도 필요해 지고 있다.

정부의 건물에너지절약과 녹색건축의 단계별 세부 로드맵의 필요성

첫째로는, 2015년 12월초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이후 정부의 건물에너지절약과 녹색건축의 단계별 세부 로드맵의 필요성이다. 구속력과 의무사항이 확정되는 2020년부터 실행되는 신기후체제에서 건축분야에도 2012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

법 제정 이후로 보다 강화된 규정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리라 생각 된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수차례에 걸친 에너지절약계획서(EPI)의 강화(2016년 7월 개정)와 2017년까지 패시브 건축 의무화와 에너지총량제로의 전환,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세부 로드맵에 대한 홍보, 교육, 제도 적용의 혼선, 발주처 및 건축주의 인식부족, 설계자의 역량 및 현실적인 감리와 유지관리 부재, 부실 자재 및 시공 등 현장에서 시행하는데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술적 해결 전에 법규가 먼저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설계 및 건설, 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처와 건축주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비용지불과 이익에 대한 명확한 신호와 인식전환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제도 적용 단일화 논의되어야

둘째로,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녹색건축과 건물에너지 정책의 기준 적용에 중복성으로 인한 설계적용의 혼선이 있으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제도 적용의 단일화 및 행정업무의 간소화 방안도 논의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기준과 서울시의 경우「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각 자치구가 개별로 적용하는 경우 건축 인허가 시 서로 다른 기준 적용에 따른 통합기준 마련과 사용승인 시 현장에서 정확한 기준적용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개별 프로그램(e-BESS)의 적용에 따른 중복성이 있는 경우 중앙정부에서 EPI와 같이 한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기준적용으로 전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통일된 업무대행제도 및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기준 마련 필요

셋째로, 서울시 경우에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 대상인 500㎡이하의 주로 서민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아직도 설계 및 시공부실로 인한 단열 및 결로문제가 있어 에너지성능 개선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면과 서류를 통한 육안으로 현장에서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하고 있으며 성능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단열재 적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용승인 검사 시 허가도면상 외벽에 120㎜단열재로 표기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설계 및 감리자도 모르게 시공 상 이유로 열반사단열재로 교체되어 구성체 시험성적서상에 열관류율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층을 누락하고 기밀성능의 보강 없이 임의로 시공되어 열성능을 보증 할 수 없는 현장이 지금도 양산되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만의 사례가 아닐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대행제도 및 서민들의 안전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설계도서의 개요에 녹색건축적용 내용과 견실한 시공이 확보되도록 감리체크 사항에도 단열재 등 녹색건축사항을 기재하고, 유명무실한 소규모 건물에 실효성 있는 감리업무의 개선과 사용승인 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건물의 안전도 확보될 것이며, 에너지 성능도 우수한 건물이 시공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제정된 건축물유지관리관련 법의 시행도 정비하여 현장에서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개요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단열·에너지성능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녹색건축물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녹색건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 녹색건축의 근본은 패시브 설계

네 번째로는 녹색건축에 대하여 일반인이나 일부 전문가조차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건축이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가 전부인 양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건축의 근본은 패시브(passive) 설계이다. 배치, 단열 및 창호(천창, 측장 등), 자연채광 도입 및 환기, 아트리움, 썬큰 등 건축적 방법으로 에너지 부하를 최소로 만들고, 냉난방, 조명 등 설비용량(액티브 설계)을 줄여서 총체적으로 에너지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이다.

2015년 5월에 차양 및 일사조절장치 설치 기준 등 패시브설계 요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자연채광 등 패시브 설계 적용 시 녹색건축인증기준 및 EPI 등에 점수화하고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에너지절약계획서상 모든 건축물에 단열재, 창호 등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설계자(건축사)의 창의적인 설계를 제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향후 에너지소비 총량제로 바뀌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건물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지구단위, 단지 및 도시계획에서의 구체적인 녹색도시 정책 필요

다섯 번째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가는 녹색건축 관련 정책에서 이제는 마을단위, 지구단위, 단지 및 도시계획에서도 구체적인 녹색도시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지구면적 1%의 도시에서 75%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80%가 넘는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개별 건축물로는 총체적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해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 및

심의 단계에서 건축 및 에너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리적 생태자원(일조, 지형, 수자원,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미기후를 조정하는 등 우선 도시적 차원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패시브(passive)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및 마을단위의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여 지역별 에너지원이나 수급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개별 건축물이나 도시단위의 에너지 동향을 예측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기준이 마련되어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건물 및 도시의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향후 신도시 개발 보다는 도시재생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개별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각종제도를 통합하여 도시규모에 따라 녹색마을, 녹색단지, 녹색도시 인증제도도 단계별로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련 제도와 법규를 디자인에 녹여 건축과 도시를 설계하는 건축사 및 기술사 등 엔지니어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시공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나의 녹색건축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성능을 요구하는 녹색건축물의 설계, 감리 및 시공지도, 자재선정, 유지관리, 안전 등 모든 건축물의 탄생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무한 책임이 주어진 전문가로서 현장에서의 그 역할이 점점 막중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와 감리 개선 문제, 부실시공은 현장에서 왜 근절 되지 않을까? 단순한 결론은 건축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설계부터 공사 전반에 저비용의 악 순환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최초로 재원을 들여 건축과 도시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은 발주처, 건축주, 시민들이다. 미래의 도시는 건축주와 설계자 및 전문가가 함께 바꾸어야 한다. 기꺼이 적정한 비용을 들이고 녹색건축의 성능과 안전을 철저히 요구해야 한다. 에너지를 자립하고 텃밭과 녹화된 시원한 옥상이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물과 숲으로 재생된 새로운 녹색도시와 건축물을 상상해 보자.

신기후변화 체제가 신기회변화 체제가 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야한다.

2016 태국건축사협회 총회 및 엑스포 참관기

Report : 2016 National Convention of ASA

글. 이승석_ Lee, Seungseok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6년도 태국건축사협회 엑스포 및 건축사총회가 4월 27일부터 5일 동안 방콕 임팩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우리협회(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이하 KIRA)는 태국건축사협회(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이하 ASA)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변국의 리더역할을 넘어 세계무대를 향해 약진하고 있는 태국 건축의 현주소를, 이 지면을 통해 여러 회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몇 년 전 태국을 여행으로 다녀올 때만 기억하더라도 이 나라는 그저 불교사원과 다양한 음식문화를 자랑하는 관광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물론, 호텔이나 리조트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아직은 모든 면에서 개발을 더 필요로 하였고, 번화한 거리 이면에는 가로환경 정비 등 공공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그런 나라로 보였다. 하지만 올해 태국 건축사 총회 및 건축엑스포를 참관하고 느낀 점은 건축 및 관련 산업

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며, 그 동안 어떻게 이러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국의 관문인 수완나폼 국제공항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회장님을 비롯, 올해 인천에서 치르게 될 건축사 대회의 조직위원장님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까지, 우리 일행도 관광객들 사이로 줄지어 입국 수속을 마쳤다. 올해로 30주년을 맞고 태국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건축 엑스포 및 태국건축사협회의 총회에 참가하고자 방문한 이번 태국 일정은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을 필두로 조충기 회장님의 태국건축사협회 명예회원증 수여식이 있었고, KIRA 와 ASA의 협력현안을 나누는 간담회와 건축 엑스포 참관 그리고 행사운영에 대한 실무 팀과의 미팅까지 매우 바쁘게 진행되었다. 이번 ASA 총회 및 엑스포에는 KIRA를 비롯하여 일본(JIA), 싱가포르(SIA), 라오스 (ALACE) 등 ASA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주변국 건축단체 귀빈들도 참석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이튿날 아침 건축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인 임팩트 컨벤션 센터로 이동하였다. 컨벤션 센터 입구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을 비롯하여 행사장의 이곳저곳을 알리는 안내판에는 참가하는 업체들의 로고가 빼곡히 새겨져 있어, 이 행사가 얼마만큼 관련 업계의 이목을 받고 있으며 대중들의 관심 안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로비 중앙에 준비된 자리에 앉기 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모인 태국건축사협회 주요 인사 및 정관계 내빈 그리고 주변국 건축단체 대표자들과 인사할 수 있었다. 태국건축사협회는 왕실에서 인증하는 조직이므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며 왕실을 대표하는 공주의 입장과 더불어 시작이 된다. 그 뒤를 따라 주요 내외빈의 입장이 시작되며, 일반 관람객의 입장은 이날 오후부터 가능하다고 한다.

약 7만 5천 평의 행사장에 8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건축엑스포는 우리의 코엑스에서 열리는 웬만한 대형 전시회의 규모와 맞먹는다. 태국 내의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낯익은 글로벌 브랜드의 부스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변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업체들이 전략적 거점으로 태국에 지사 및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 전부터 건축자재부분 제조업이 대기업과 내수 위주로 재편 돼버린 우리나라와는 아쉬운 대조를 이룬다. 전시장의 맨 중앙에는 ASA ZONE(태국건축사협회 특별 전시)이 위치해 있으며 전체 엑스포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해마다 전시의 주제를 알리는 슬로건과 휘장을 새로이 만들어 안내판과 홍보물 등에 일관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는 그 해의 행사가 다른 해와 구별되는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ASA에서 선정한 올해의 건축상 작품들을 비롯하여 학생 국제공모전 수상작, 일본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및 최근 설계를 마치고 건설 중에 있다고 하는 국회의사당 신청사 설계관련 내용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밖에 ASA ZONE 한편에 하우징 클리닉이라는 부스를 운영하며 엑스포를 찾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관련된 모든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었는데 열띤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ASA ZONE은 부동산, 제조업 등 건축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일반인에게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 직업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관람에 지친 몸을 이끌고 찾은 ASA CLUB이라는 공간은 건축사협회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휴식 공간이며 가벼운 스낵과 음료를 제공한다. 바로 옆 ASA SHOP에서는 협회 로고 또는 엑스포 슬로건과 휘장을 새긴 티셔츠 모자 등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점심 후에는 명예회원증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태국건축사협회는 해마다 협회를 위해 공로가 있는 건축 외 타 분야 인사와 교류국가 단체장 가운데 선별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를 한다. 올해에는 조충기 회장님께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셨으며 태국건축사 총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다음에 준비된 일정은 행사에 참석한 외빈들을 위한 건축투어다. 먼저 찾은 곳은 태국은행 박물관으로 오래 전 태국 왕실의 일부였다가 근 현대 시기에 태국은행 본점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제는 태국의 화폐 및 금융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관람객이 우리 일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예약제로만 관람이 가능했기 때문이 아닐까. 관람 전 마련된 조촐한 다과를 비롯하여 아무도 없는 박물관을 편하게 관람하면서 느낀 점은 손님을 대하는 태국건축사협회의 세심함 이었다. 관람을 마친 각국 일행은 좀 더 격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다음으로 장소를 옮긴 곳은 최근 준공한 THE COMMONS라는 상업시설이다. 눈에 띄는 노출콘크리트 외장과 거대한 필로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 외부 공간을 엮어놓았는데 건축적인 컨셉이나 레스토랑 및 식음료 시설의 배치 등이 매우 흥미로웠다. 방콕 도심에서도 가장 번화한 지역에 가장 트랜디한 건축물이라는 이 시설은 건물 구석구석에 감추어진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들이 사용자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었으며 또한 태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사의 작품이라는 점도 한 번 더 눈 여겨 보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방문 삼일 째에는 양 단체 간의 간담회가 오전 일정으로, 태국 건축엑스포 실무 팀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오후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매년 교차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ASA와 KIRA는 상호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주요 안건은 양국에서 벌어지는 전시, 건축탐방, 청년 인턴쉽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적 교류 및 작품교류이지만 향후에는 정부발주 용역에 양 국가의 건축사가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한국은 2017년도 세계건축대회를 치를 예정이기에 이와 관련한 ASA의 참여계획 등이 언급되었으며 KIRA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번 태국방문에는 올해 건축사대회를 준비하시는 조직위원장님과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특별히 동행을 하셨다.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내용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건축사대회는 이렇게 끊임없는 벤치마킹과 연구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태국 건축엑스포 실무 팀과의 미팅에서 많은 현실적인 내용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갔다. 엑스포는 30년 전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참가업체 수가 820여개에 이르며, 매년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원하고 있다. 현재 태국 내에서 열리는 건축 산업 관련 엑스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면서 무료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이 행사는, 참여업체의 부스대여료 만으로 수익을 만들고 ASA ZONE이라는 특별전시를 통해 엑스포가 단순히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건축은 우리의 경제를 담당하는 산업의 한 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한 분야라는 인식을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 행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서 말한 ASA

ZONE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전체 엑스포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행사로 진행되는지 등등 여러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가는 오랜 시간 동안 회장님 이하 우리 일행은 많은 공감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며 더 나은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위한 마음을 다졌다.

태국건축사협회 회장 주최 만찬을 참석하는 것으로 이번 출장의 마지막 일정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우리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돌아오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 이유는,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를 산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더 미숙하다는 판단 때문일까. 행사의 규모와 내용뿐만 아니라 홍보와 진행 같은 실무적인 것에서부터 대중과 호흡하며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건축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에 이르기까지, 이번 태국 건축엑스포와 건축사협회 총회는 많은 점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단순히 놓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글로벌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영업 및 생산기지로 삼고 있는 태국의 건축 산업 성장 잠재력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각 나라의 건축사협회는 그들만의 다양한 현재와 과거를 담는 메인이벤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과 어떤 역사를 담아내야 할까. 올해 건축사대회를 기대하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2016 전국건축지도자회의 개최

2016 전국건축지도자회의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본부 임원,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 및 임원, 124개 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KT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의 의의는 '건축사의 권익과 위상, 협회발전, 국민 행복'이라는 뚜렷한 목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올해 정관 및 윤리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선진형 협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공 그리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건축사를 위한 건축사윤리강화 및 건축사관리방안, 건축사업 확충과 합리적 대가기준 정립 등에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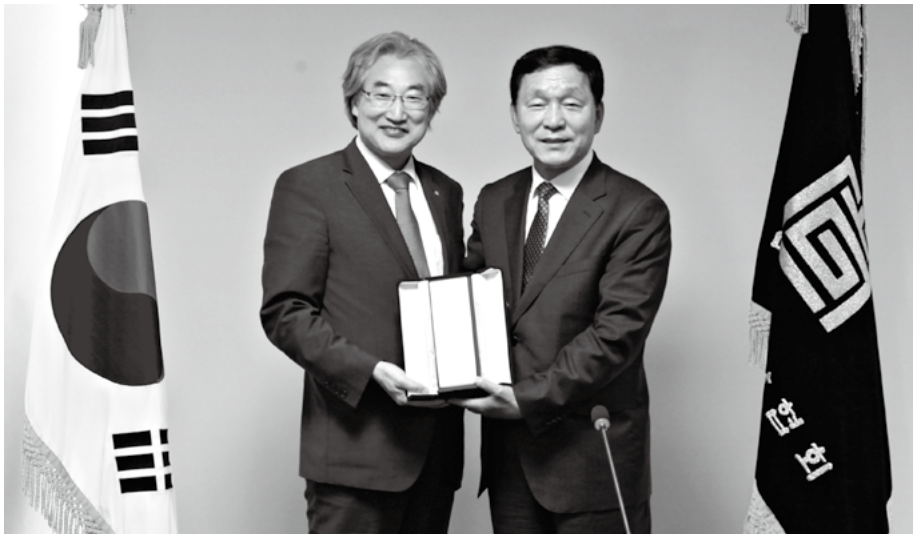
이어 "건축사는 '국가 공인건축가'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국민이 행복한 건축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건축사면허대여, 금품수수, 불법묵인 등 건축사답지 못한 행동이나 윤리적 해이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건축사제도의 몰락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기 모인 전국의 건축지도자들이 건축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대를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사가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건축관련 법제정에 대한 깊이 있는 대처, 국민에게 건축사를 알리는 노력, 건축사 스스로의 소통·변화·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건축사협회 새로운 50년의 창조적 여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핵심 5대 사업으로는 'R&D, 법제도 선도적 개선, 미래인재 육성, 사회공헌사업, 대외홍보'를 꼽았다.

이틀에 걸쳐 개최된 이번 지도자회의는 첫날 조충기 회장의 기조연설, 국토교통부 안충환 건축정책관의 초청강연, 8개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이 있었다. 이튿날은 김봉회 부회장의 발제, 정책토론 결과 발표, 회장과의 대화를 겸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건축지도자회의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김철민 건축사가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김철민 건축사는 "건축사분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건축사의 자부심을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국회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철민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패 전달



대한건축사협회가 5월 11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회 이사회에서 김철민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충기 회장은 김철민 당선자에게 "현역 건축사로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건축사 위상을 제고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향후 건축계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지진피해' 위로 메시지 "구마모토 지진피해 위해 역할할 것"

건축사협회가 지진피해를 입은 구마모토의 일본건축가협회(JIA)측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충기 건축사협회 회장은 JIA측에 "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로와 함께 피해복구를 응원하며, 대한건축사협회(KIRA)도 건축전문가단체로서 돕기 위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JIA(일본건축가협회) 타로 아시하라 회장은 "계속된 여진으로 지진피해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축사협회의 진심어린 걱정과 관심, 응원에 감사하고 진행상황을 계속 전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본 구마모토 현은 4월 14일 지진규모 6.5의 전진과 4월 16일 지진규모 7.3의 본진으로 1,100명의 사상자와 3조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11년 일본 지진 피해 당시 2천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지원했으며, 이외에도 2010년 발생한 아이티 지진과 지난해 네팔 지진에 성금과 위로서신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재난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제2회 합동회의 개최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6일 인천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제2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조충기 회장은 이날 각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축사대회를 건축사만이 아니라, 국민과 호흡하는 행사로 만들자"며 "그와 연장선으로 가족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회 조직위원장도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대한건축사협회이니만큼, 그간의 행사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보자"며 각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선 행사대행업체 수정 제안서 검토와 분과위원회별 업무배정, 협찬지원 및 초청인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협회 최초 국제 업무협약 체결한 오웅석 전임 회장 별세

故 오웅석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제15대('84.10.22-'86.10.30), 20대('93.6.8-'94.11.25) 회장을 역임한 오웅석 건축사(주.신조 종합건축사사무소)가 5월 4일 향년 86세로 별세했다. 故 오웅석 건축사는 1963년 12월 16일 '건축사법'이 공포되고 처음으로 시행된 1965년 4월 25일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대한민국 원로 건축사다.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 후 1965년 7월 23일부터 서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해 대한건축사협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제15대와 20대, 2번의 걸쳐 재임했다.

오웅석 건축사는 제15대 협회장 재임동안 국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협회 역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업무협약인 "한일건축사 교류촉진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미국건축사협회(AIA) 총회를 최초로 방문하는 등 대한건축사협회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재임기간 동안 '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를 편찬했고, 제20대 재임동안에는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요구한 건설사 설계겸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원안을 부결시켰다.

캔버라어코드 KAAB 평가단 대한건축사협회 방문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에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기 위한 국제협약기구인 캔버라어코드(Canberra Accord)의 KAAB(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방문평가단이 5월 4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해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 및 등록관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온라인 등록 오픈!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의 온라인 등록이 개시됐다. 온라인 등록은 공식홈페이지(www.uia2017seoul.archi)의 Registration(등록) 페이지를 방문해 홈페이지 가입 후 진행할 수 있다. 선착순 2,000명까지 조기등록비가 적용된다. 일반등록 및 현장 등록비는 국내참가자 기준 25만원, 학생 5만원, 동반자 8만원이고, 조기등록비는 일반참가자 기준 20만원, 동반자 5만원이다. 학생 등록비는 조기등록비와 일반등록 및 현장등록비가 동일하다. '도시의 혼(SOUL of CITY)'이라는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도시(Nature)', '역사문화도시(Culture)', '하이테크도시(Future)'라는 소주제로 진행될 이번 세계건축대회는 2017년 9월 3일(일)부터 10일(일)까지 8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학술발표 및 전시, 현장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등록 관련 사항은 registration@uia2017seoul.org 혹은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02-6288-6309)로 문의 가능하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16 추대회원 초청행사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5월 12일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추대회원 41명을 초청해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문화재단지 일대에서 '2016 추대회원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풍문화재 단지 문화유산 답사와 청풍나루에서 장회나루 유람선 탑승 등 추대회원 초청 행사를 가졌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대구광역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가 5월 12일 대구건축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건축행정의 일환으로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대구시 관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건축사회, 국회의원 당선자 교례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전라남도건축사회가 후원하고 전남일보가 주관한 광주와 전남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교례회가 광주 무등 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총 18명 중,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3명(박지원, 이정현, 박준영)의 당선자를 제외한 1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전라북도건축사회가 5월 21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전라북도청 및 시군 소속 건축직공무원, 전라북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소속 기술직공무원,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축구, 줄다리기, 계주, 레크리에이션 경기 등이 치러졌다.

경상북도건축사회,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 한마당

경상북도건축사회가 경상북도와 영덕군과 공동으로 5월 21일 영덕 창포해맞이 축구장에서 '2016 경상북도 건축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진 영덕군수, 강석호 국회의원, 김현기 행정부지사와 경상북도 내 건축 담당공무원 및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원 등 1,100여명이 참가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회관 이전식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가 5월 19일 오전 11시 경상남도건축사회 회관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 날 회관 이전식에는 협력업체 대표 감사패 전달과 축하떡 절단식 및 기념촬영과 테이프컷팅식이 있었다. 경상남도건축사회관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77, 4층(산호동, 다이노스빌딩)으로 이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자원봉사 나눔페스티벌 기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5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를 방문해 '자원봉사 나눔 페스티벌'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이번 자원봉사 나눔 페스티벌을 통해 제주도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이 지원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동구건축사회, 강동구청장과 간담회

강동구건축사회가 5월 2일 강동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그간 강동구건축사회의 장학금 기부 및 재능기부, 각종 지역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치하하며, 강동구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강동구민표창(5명)과 명예지도원위촉(20명)식을 가졌다.

안양지역건축사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안양지역건축사회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현안사항 간담회를 열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재정비'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토론을 했다. 안양지역건축사회는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TF팀에 참여하는 등 지자체 건축정책 수립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함안지역건축사회, 우수주택 순회 전시회

함안지역건축사회과 함안군과 지역 주거문화발전을 위해 우수주택 순회전시회를 개최했다. 함안지역건축사회가 주최하고 함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함안군 건축사 회원들이 직접 설계한 우수주택 총 25동의 사진과 함께 간이도면, 설계자, 건축비 등의 특징 안내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당진지역건축사회, 집수리 봉사활동

당진지역건축사회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당진시 건축직 공무원과 당진지역건축사회 회원을 비롯한 지역 건축인 60여명과 함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과 순성면에 위치한 취약계층 가정 두 곳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진지역건축사회는 집수리 봉사활동을 6년 째 이어왔다.

대한여성건축사회, 제2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대한여성건축사회가 5월 2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여성건축사대회는 1994년 처음 개최된 후 올해 22회째를 맞이했다. 개최지를 서울과 지역으로 나누어 교대로 개최하며,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됐다.

신간 소식

건축가를 위한 친환경 BIM 가이드

– IN SMALL-SCALE SUSTAINABLE DESIGN

저자 : François Lévy
역자 :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발행인 : 임진우
공급처 : 기문당

François Lévy의 저서인 IN SMALL-SCALE SUSTAINABLE DESIGN을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번역하여 발간한 '건축가를 위한 친환경 BIM 가이드'이다.

이 책은 BIM을 이용하여 친환경 설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건축사를 위한 안내서이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검증된 BIM 방법론으로 통풍냉각, 자연형 난방과 같은 친환경 설계의 필수항목들을 다룸으로 독자가 BIM의 실무 적용에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록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

역대회장 활동사항(2)

_ 김득수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

_ 역대회장 활동사항(2)

50 Years History of Korea Institute Registered Architects

편집후기

지난 2015년 3월 대한건축사협회 50년 역사에 대한 초대 회장에서부터 역대 회장들의 활동사항을 알고자 資料(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업에 임하면서 계획 수립 없이 歷史(역사)를 찾아보고 建築士(건축사) 50년의 세월 속에 무에서 유를 創出(창출)하는 작업임을 實感(실감)하면서 지난해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 낮,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본협 資料室(자료실)을 오고가면서 연도별로 건축문화신문, 건축사지에 있는 기록을 찾았다.
歷史(역사)의 記錄(기록)이 文化(문화)를 繼承(계승)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文化(문화)의 資産(자산)이며 밑거름임을 자부한다.
人類學者(인류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歷史硏究(역사연구)에서 국가의 浮沈(부침)은 고유의 문화가 있는 民族(민족)만이 국가로서 존속한다고 하였다.
짧은 기간에 체계 있게 출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통감하지만 부족하고 稚拙(치졸)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수고 代價(대가)는 모든 허물의 相殺(상쇄)로 보상해본다. 원고 정리에 도움을 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사무국, 본협회 홍보편찬팀에 감사도 잊지 않겠다.

2016년 5월
건축사 **김득수**

16대 회장 안기태(1986.10.30~1988.11.29)

■ 주요활동 사항

- 1987년 1월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설립
- 1987년 4월
  - 경남건축사회관 개관[44)]

慶南建築士會舘 開舘

44) 1987.4.17 본협회 안기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각 시도지부장, 김정수 경남지부장, 회원 다수가 참석하고 경남 도지사, 국회의원, 각 시장 군수, 관련부서 및 유관단체 인사 등 200여명의 저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관 앞 광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 속에 오색테이프가 커팅 되어 개관식의 성대한 막이 올랐다. 대지위치 : 마산시 중앙로 3가 3번지, 대지면적 278평,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40평

◦ 1987년 11월 13일

– 본협회에서 건설부 주관 간담회 개최[45)]

◦ 1987년 12월 8일

– 건설기술관리법 업무추진위원회[46)]

◦ 1987년 12월 9일

– 건설기술관리법 대책위원회[47)]

◦ 1988년 1월 4일

– 주요 추진업무 계획[48)]

---

45) 건설부는 '87.11.13 오후 2시부터 본협회 4층 중회의실에서 2급 건축사 특별전형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에서 1천8백4명의 본협회 회원이 2급 건축사특별전형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건설부에 접수시킴으로서 건설부가 다수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개최된 것이며, 이날 간담회는 본협회 임인혁 사무처장이 건의문에 대한 취지 설명과 건설부 건축과 이융세 사무관의 사회 배종명 과장의 진행에 의해 건축계 원로교수 관계 공무원, 건축계 실무자, 본협회 회장단, 임원진, 본협회 14개 시도지부 및 일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7시가지 5시간에 걸처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교수 : 이광로(서울대), 신현식(중앙대), 박윤성(고려대), 유희준(한양대), 김형철(서울대), 정재철(국민대), 윤도근(홍익대).

– 관계기관 : 한규봉(주택공사 이사), –관계공무원 : 배종명(건설부 건축과정), 변영진(서울시 건축지도과장)

– 본협회 임원 : 회장 안기태, 부회장 김기수, 이사 안장원, 이문우, 강기세, 조준원, 박연익

– 지부장 : 유경철(서울), 정황호(부산), 황용주(대구), 고창영(인천), 박영희(광주), 조상호(경기), 조정호(강원), 연관흠(충북), 강우식(충남), 엄수호(전북), 김인호(전남), 김영철(경북), 김정수(경남), 백정철(제주)

– 2급 대표 : 서울 김형배, 김기완, 김정기, 심기섭, 최상혁, 오기수, 부산 조성대, 경기 백종순, 안영준

– 일반회원 : 서울 신길웅, 김영수, 양원영, 김기두, 공청인 10명

46) 1987.12.8 오후3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안기태 회장, 김기수 부회장, 강기세, 이문우, 이영일 이사, 유경철, 정환호, 조상호, 박영헌 지부장, 김영섭, 여세현, 박우하, 박정길, 이동근, 고창영, 윤진우, 문상식 회원이 모여 건설기술관리법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본 위원회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내용 : 총회 시 전체회원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키로 협의(작성자 강기세, 이문우, 정환호, 김영섭, 이동근) 성명서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소요예산을 총회 시 추경토록 협의

47) 1987.12.9 정오부터 본협회 중회의실에서 12.8 개최된 건설기술관리법 업무추진위원회 협의내용을 토대로 한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안기태 회장, 김기수 부회장, 송기덕, 안장원, 이문우, 황재운, 강기세, 조춘원 이사, 유근열, 정효환 감사, 박영헌, 조상호, 김영길, 백형철, 조정원 지부장

48) ◆ 건설기준관리법 대책

– 시행령 작업 직접 참여(단기), 동법 제40조 개정작업(장기)

– 공사의 품질, 공정, 인사관리 등 업무지침 : 공무원이 이행하던 감독 대행의 업무계획

– 감리 checklist 작성 연구

◆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 건축설계 감리업무의 개방대비 : 국내 건축사 면허의 해외 면허 인정, 2급 건축사 특별전형 제도 개선

– 법 개정 초안 작성 건의 : 방법에 대한 대책 수립

◦ 1988년 6월

- 건기법 의견제출(건축사 '88.8월호)[49]

◦ 1988년 10월 25일

- 풍수지리세미나(건축사 '88.12월호)[50]

◦ 1988년

- 통합예산제도에서 건축사별 독립예산제로 전환

◦ 1988년 11월 7일

- 제3회 아시아건축사대회 서울개최[51]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건설기술인협회(1988), 전문건설공제조합(1980)

◦ 최초 민간건설백서(1988)

◦ 내진설계기준마련(1988)

◦ 1985년 11월 9일

정관개정

- 준회원 신설
- 국제위원회 및 법제위원회 신설

◦ 1987년 10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 독립기념관 화재계기(1986년 8월 4일)

---

49) 본협회는 '88.6.29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3934호, '87.10.24)이 제정 공포됨에 따른 시행령(안)이 입법예고('88.6.1)에 대한 본협회 의견을 제출하였다.<중략>

50)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이영희) 영등포분소(분소장 김득수) 주관으로 '88.10.25 영등포문화예식장에서 지부장, 분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지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 분야에 연구가 많은 박시익 회원(일신종합건축사사무소)이 풍수지리설의 현대건축 계획론적 적용방법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다.

51) 본협회는 '88.11.7~11.11의 5일간 건설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후원 하에 아세아건축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제3차 아세아건축사대회(ACA-3)를 주관 개최하였다. 제2회 아시아지역 건축 학생대표 잼보리도 겸하여 개최한 본 대회의 개략적인 개최 사항은 다음과 같다.(대표임원, 학생) 방글라데시 4, 홍콩 12, 인도 4, 인도네시아 37, 말레지아 35, 파키스탄 13, 필리핀 27, 타이랜드 11, 싱가폴 3, 스리랑카 8, 자유중국 23, 미국 3, 영국 2, 일본 6, 호주 1인.

17대 회장 송기덕(1989.11.29~1990.12.21)

■ 주요활동 사항

- 1989년 1월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설립
- 1989년 3월
  - 제1회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 1989년 4월 18일
  - 국무총리 초정 간담회 개최(건축사 1989.04월호)[52)]
- 1988년 8월 30일
  - 송기덕 회장 총리 사정자문위원에 위촉(건축사 1989.09월호)[53)]

---

52) 본협회 송기덕 회장은 '89.4.18 국무총리(강영훈) 초청으로 총리 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축 현안 전반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 본 협회의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정전담기구 보강
 - 건설부에 건축국 신설(시도에 건축국, 또는 건축과 신설)
 - 건축기능의 확대와 건축행정 인력의 확보
 - 200만호 주택건설 시책의 조직적 기능적 지원
2.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연내 개정 추진)
 - 도시발전과 국민의 생활의식 환경의 변화에 적용
 - 규제 통제 위주에서 조장 위주로(경직성 연성화)
 - 책임과 의무와 권한의 합리적 배분(건축관계인의 책임 기능 분담) ※본 사항은 건설부와 의견 협의 중
3. 서울시 강남화 균형 개발 유도
 - 강북지역 용적률 강남 지역과 동일하게 완화(현재 수도권 실무 기획단에서 검토 중)
 - 법정 건폐율 적용(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법정 규정보다 10% 하향 조정 시행 중)
 - 옥내옥외 주차비율 의무화 폐지
4. 정부 내 건축관계 정책자문의 참여 요청
 - 건축문화 행정발전에 실무반영

53) 본 협회 송기덕 회장은 '88.8.30 강영훈 총리 주재로 열린 사정 자문회의에서 공직자 사회의 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자문에 응할 국무총리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이날 위촉된 국무총리 사정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중략>

◦ 1989년 11월 25일부터 6일간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 접수

- 건설부 11월 25일부터 6일간(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제54조 관련)

◦ 1990년 4월

- 김기수 상근부회장 이임식(건축사 1990.5월호)[54]

◦ 1990년 6월 15일

- 정순호 상근부회장 취임(건축사 1990.9월호)[55]

◦ 1990년 7월 2일

종합건설업면허제 적극대처(건축사 1990.9월호)[56]

- 본협회 결사반대키로

건설부 건축법 개정 최종안 확정(건축사 1990.7월호)[57]

- 본협회 의견 대체로 반영돼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한국강구조협회(1989)

◦한국주거학회(1989)

---

54) 지난 '82년 5월부터 8년간 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김기수 부회장의 이임식이 '90.7.17 송기덕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2층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8일자로 임기 만료된 김기수 부회장은 그 동안 본협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건축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김기수 상근부회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현 건설부 국립지리원 정순호 원장(1939년생)을 2년 임기에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55) 정순호 신임 상근부회장의 취임식이 '90.6.15 본협회 회의실에서 송기덕 회장을 비롯한 본협회 임직원과 건설부 유원규 도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중략>- 건축사의 사회적 직을 높이고 권익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아끼지 않고 바치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하고 협회의 대 정부 관계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56) 본 협회는 최근 정부가 UR협상의 일환으로 재검토 하고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제 도입에 대처하기 위해 수시로 관계위원회의 개최와 임원 협의회를 통한 협회의 대응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57) 건축법 개정안이 '90.7.2 입법예고되어 본 협회 주관 하에 회원 및 공무원, 교수,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던바 운영상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본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본협회와 건설부의 Task force Team 운영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 건설부 최종안이 확정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중략>

18대 회장 오운동(1990.10.21~1992.11.27)

■ 주요활동 사항

- 1991년 6월
  -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1991.6)

- 1991년 7월
  - 시도지부를 시도건축사회로 변경
- 1991년
  - 신임 법령연구소장 취임(건축사 1992.01월호)[58)]
  - 팔당대교 붕괴(1991)
- 1992년 2월 28일
  - 건축가협회 신임회장 장석웅 회원 피선(건축사 1992.3월호)[59)]

58) 본협회에서는 '91년 구랍 13일자로 그 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건축법령연구소장에 김해전 씨를 임명했다. 신임 김소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원자력연구소와 건설부 등에서 30여 년간 우리나라 건축행정 발전에 이바지 해 왔다.

59) 1992.2.28 서울하이야트호텔 리젠시룸에서 개최된 한국건축가협회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윤도근 회장 후임에 장석웅 ㈜아도무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수석부회장이 만장일치로 18대 회장에 피선되었다.

◦ 1992년 3월 12일

–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건축사 1992.04월호)[60]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창립총회

◦ 1992년 6월 5일

– 임인혁 사무처장 퇴직(건축사 1992.07월호)[61]

◦ 1992년 7월 30일

– 부산건축사회 회관 준공 및 25년사 발간 기념식[62]

◦ 1992년

– 신행주대교 교각 붕괴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91년

건축법 12차 개정

–건축물 높이 제한 구체화

60) 본협회는 1992.3.12 제3회 이사회에서 본협회 상근부회장에 박경환 씨를 임명하였다. 한국감정평가업협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순호 부회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 부회장은 부산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30여 년 동안 건설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시국장, 해외건설국장 등을 역임하여 우리나라 건축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다.

61) 1974.2.24부터 1992.6.5까지 약 18년간 본협회 발전을 위해 임인혁 전 사무처장이 6.5자로 의원사직하고 6.8 정안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본협회 회원으로 입회하였다.

62) 부산건축사회(회장 성훈섭)는 1992.7.30 부산건축사회관 2층 전시실에서 부산건축사회관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부산건축사회관은 지하2층, 지상12층, 연면적 5,922㎡의 건물로서 부산건축사 회원이 오랫동안 정성을 다하여 모은 기금으로 이룩한 거대한 결실로서 앞으로 항도 부산의 문화발전에 굳건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관 준공식과 때를 맞추어 부산건축사회 25년사가 발간되어 부산건축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건축역사에 있어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대 회장 이영희(1992.11.27~1993.6.8)

■ 주요활동 사항

- 서울건축사회 제1기 시민건축대학 개강
- 1993년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 「청주사고」의 교훈을 되살리자[63]

구포열차 사고

- 1993년 1월 5일
  - 제1회 임시총회서 건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구성키로[64]
- 건축사법 개정(안) 전면거부 움직임 각 시도건축사회장 건축사법 결사반대[65]

63)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에는 가스폭발의 외적 요인이었으나 근본적으로 시공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볼 때 건축관련인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는 한국건축의 위상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었다.(서울건축사신문 제15호 사설)

64) 이 회장 격려사에서 「최근 협회에서 일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풍조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한다」고 전제 더불어 생각하고, 고뇌함으로서 회원화합의 문을 열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건설부에서 작성된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대책의 건이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건축사법 개정 특별대책위원회를 규정하여 대응키로 했다.(서울건축사신문 제19호)

65) 사무소 형태 독소조항인 법인 설립 건과 공제조합 건은 건설회사에 건축사사무소가 존속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표명했으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법인설립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것으로 자본적인 요소를 경영에 참여시킨다는 배경을 갖고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사 다른 법에서도 대표자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 이필원 건설부 건축기획관은 개정 건축사법의 주요 취지는 정부 시책으로 부실공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UR 타결에 따른 대외 개방과 국제화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무소를 대형법인화 하여 건축사는 건축전문인으로 자율과 개방경쟁이 보장되는 방향 등 이라고 설명했다.

◦ 「사법개정특대위」 연일 속개 결의서, 탄원서, 일간지 홍보 등 집중논의[66]

◦ 1993년 4월 9일

- 속개된 임시총회[67]

◦ 1993년 6월 8일

- 오웅석 신임 회장 재추대, 본협회 제12회 임시총회서 결의[68]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건축사법 개정(안)

- 법인 설립 건축사사무소
- 공제조합
- 건설기본관리법 법제화 사건에 의한 사퇴

66) 업무범위 문제는 자율과 책임 경쟁의 신경제 원리에 맞추어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건축사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협회와 건설부 간의 의견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서울건축사신문 제20호)

67) 4.9일 속개된 임시총회에서 이규복 전임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해 부의안건 원안을 통과시킨뒤 불신임받은 이영희 회장 후임으로 오웅석 본협회 전임회장을 추대했다.

68) 본협회 신임 임원진의 건설부 승인이 반려됨에 따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8일 본협회 제2회 임시총회에서 오웅석 신임회장을 재추대 결의(서울건축사신문 25호)

20대 회장 오응석(1993.6.8~1994.11.25)

(❖ 19대 잔여임기)

■ 주요활동 사항

- 행정쇄신위 도서검토제 폐지 결정
- 1994년 10월
  - 한국문화대상시상식(협회 최초 공동주최 참여)
- 건설업체 설계겸업 요구 시작
- 1994년 10월 21일
  - 성수대교 붕괴사고

- 본협회 특별비상대책 끝나, 설계전문화 건축사 중심발전 기대
  - 행쇄위 건설업체 설계겸업 원안 부결[69)]

69) 지난 14일 개최된 제64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축용역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제안자 원안부결」이 결의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꿈이 무산됐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제65차 행정쇄신실무위원회(94.9.14)에서 「설계와 시공은 분리하여 각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부동의 하고 전문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키로 결정」함에 따라 상정한 것을 원안대로 수용하였다(서울건축사신문 57호)

21대 회장 김규태(1994.11.25~1996.10.29)

■ 주요활동 사항

◦ 건축사법 제23조 「법인」 문구 삭제

- 국회 구랍 16일 건축법, 건축사법 의결(서울건축사신문 제62호)

◦ 1995년 3월

- 건축개혁 대국민 발표회 건축백서발간(건축개혁)

◦ 1995년 10월

-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1996년 2월

-건축사사무소 정보화 실태조사

◦1996년 6월

- 건축사자격시험의 설계과제 예시제 폐지

◦ 제1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시상식

◦ 1995년

-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 **삼풍백화점 붕괴('95.6.29.) 계기로 건축사법 개정**

- 「삼풍 참사 부실에 대한 유죄 선고」칼럼[70)]
- 건축사사무소 기술인력 경력관련 신고업무 시작

70) 사고의 근본원인은 부실시공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주의 돈벌이 독식과 감리자 의무포기라는 국내건설 현장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언론은 지적했다. 삼풍 참사의 교훈과 현실적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건축인 전체가 자성하고 진지한 본연의 자세와 사명을 되찾아야 할 때다. 원칙을 지키며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일만이 우리의 할 일이다(서울건축사신문 제70호)

◦ 건축사연금 정산 지급키로, 본협회 임시총회 승인 후 시행예정(서울건축사신문 제68호)
◦ 건설회사 설계겸업 요구 또다시 제기(서울건축사신문 제94호)
- 건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요청서 검토
- 본협회 : 재론 여지없도록 관련기관에 쐐기[71)]
◦ 설계감리업무도 건설업!(건설관리법 개정, 건설산업) 본 법에 명시 회원들 극렬반대 움직임(서울건축사신문 제95호)[72)]
◦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백지화 마땅, 건교부 법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150여 회원 어깨띠 두르고 항의 표시(서울건축사신문 96호)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1995년 9월 정관개정
- 분회→지역건축사회
- 분회장→지역건축사회 회장
◦ 1995년 1월 25일
건축사법 8차 개정
-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예비시험+자격시험)
-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단일화(단독/종합건축사사무소제도 폐지)
- 외국건축사업무 허용(국내건축사와공동계약)
◦ 1995년 10월 30일
건축법 22차 개정
- 설계자/시공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71)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 심의결과 일달락 되었던 「건설회사의 설계, 감리 업무수행」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서울건축사신문 제94호)
72) 그간 행정개혁위원회 등을 통하여 건설회사의 설계겸업 문제가 수년간 추진되어 오던 중 이번에는 기존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일반법으로 개정 하면서 「설계. 감리. 시공」 모두를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2대 회장 김영수(1996.10.29~1998.10.29)

■ 주요활동 사항

- 1996년 4월
  - 서울건축사회 30년사 발간
- 1996년 10월 29일
  - 본협회장에 김영수 회원 당선[73)]
- 건설산업기본법 국회 제출 우리협회 회원들 강한 분노 예상[74)]
- 건설산업기본법 국회 건교위 통과
  - '96.12.13 당초(안) 거의 무수정 의결[75)]
- 1997년 1월
  - 한중일 건축교류협정체결

73) 김영수 회원, 회장 출마공약으로 설계비, 감리비 정상화, 건축사 행정처벌 완화, 공제조합설립추진, 건축관련법 개선, 건축분쟁 조정을 위한 건축민원실 운영, 건축정보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74) 건축사들의 강한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키고, 건설관련업계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위에 회부되어 본협회장도 참석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5)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건설산업법(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 및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96.12.13 개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통과 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서울건축사신문 104호) 그 동안 건축, 건설계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개정('96.10.30)됐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서울건축사신문 제106호('97.10.16)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 1997년 7월 29일

- 건축연구소 개소<건축계, 계획분야 연구에 박차>
(서울건축사신문 제119호)

◦ 1997년 8월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출범

◦ 건설기술자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97.12)

◦ 홈페이지 개설('98.1)

◦ 건축정보센터 개관(서울건축사신문 145호, '98.9.1)

- 현판식, 기념세미나 개최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건설산업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공포

- 구랍 30공포, 7월 1일 시행
- 그동안 건축, 건설계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개정 공포('96.12.30)됨
-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 서울건축사신문 제106호('97.1.16)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 1997년 8월 1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 감리전문회사 대표 자격 완화 규정(서울건축사신문 제119호)

23대 회장 이의구(1998.10.29~2001.2.23)

■ 주요활동 사항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창립총회
- 1999년 3월
  - 공제사업 규정 총회 승인
- 1999년 5월
  - 부산건축사회 건축사신문 창간

- 1996년 6월 30일
  - 씨랜드 화재
- 1999년 9월
  - 제10차 아카시아포럼 서울 개최[76)]

76)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 주제로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서울건축사신문 62호, '95.5.16)

◦ 건축사법 개정 건축사협회 복수설립허용

◦ 1999년 8월 1일

-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제 시행(서울건축사신문 제167호, 1999년 8월 1일)[77]

◦ 2000년 1월

-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 2000년 2월

- 대학5년제 건축학과 도입법 개정 착수

◦ 2000년 6월 25일

- UIA(국제건축사연맹)에 회원단체로 정식 가입[78]

◦ 2000년 7월

- 85㎡ 이상 건축물 건축사 설계의무화

◦ 2000년 9월

- 한국건축문화대상 주관기관으로 시행

◦ 2001년 2월

- FIKA사무국(한국건축단체연합) 현판식

FIKA 한국건축단체연합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77) 지난달 28일 서울시장과 협의-우리 건축사회가 전담키로 4층 이하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사용검사 시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서울건축사신문 제167호, '99.8.1)

78) UI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승인 사협, 가협 공동 특별기구 FIKA 설립(서울건축사신문 제191호, '00.8.3) 당선인 이의구 회장 공약으로 건축사업무영역의 확충, 소득표준인하, 행정처분의 합리적 개선, 정부의 각종자유화조치 유보 등을 위한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도록 의견 개진과 조언을 당부했다.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한국건축시공학회(2000)
◦ 한국도시설계학회(2000)
◦ 건축법 중 개정 법률 공포
- 건축물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상업지역 일조권 적용도 없앰
(서울건축사신문 제156호, 1999년 2월 16일)

◦ 2000년 1월 18일
건축사법 13차 개정
- 건축사면허제를 자격제로 일원화
-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 건축사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 건축사협회 가입 임의화
-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업무일부 허용

◦ 2000년 8월 14일
건축사법 14차 개정
- 건축사업무 보수대가기준 마련 : 설계 및 감리의 부실방지 및 분쟁방지 모색

24대 회장 우남용[79](2001.2.23~2003.2.26)

■ 주요활동 사항

- 2001년 2월 23일
  - 본협 회장에 우남용 회원 당선[(79)]
- 2001년 10월
  - 한미건축단체간 협정체결/FIKA
- 2002년 4월
  - 건축설계 교수협의회 발족
- 2002년 6월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공고[80)]
-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건축사업무법위, 대가기준, 실적관리제 도입근거조항 마련
    (서울건축사신문 제215호, 2001년 8월 1일)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한국생태환경 건축학회(2001)
-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서울건축사신문 제215호, 2001년 8월 1일)
  - 건축사업무법위, 대가기준,
  - 실적관리제 도입근거조항 마련

79) 우남용 회원의 공약 중 각종 제증명 발급 등으로 협회의 주도권 확대와 전 건축사 대회를 개최해 회원 연대 의식을 고취, 각종 수일사업으로 협회 재정 자립도 극대화 등 이밖에 설계 감리비 현실화, 조사 검사업무의 법제화, 건축사 업역 확대, 건축사 신문 창간 등의 공약사항 준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여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24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80) 2000.6 임시국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사 업무법위, 대가기준 근거조항이 마련돼 1999년 초 건축사보수기준 폐지이후 정해진 기준 없이 시장 경제 원리에만 의존해 왔던 건축설계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5대 회장 이세훈(2003.2.26~2004.10.1)
송수구 수석부회장 회장 대행체제(2004.10.1~2005.2.24)

■ 주요활동 사항

◦ 2003년 7월
- 전국여성건축사대회

◦ 3층 또는 300평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81)]
- 건교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서울건축사신문 제271호, 2003년 12월 1일)

◦ 2003년 12월

회관 재건축 현상설계 당선자 발표
- 우수작 ㈜유진인터내셔날종합건축사사무소

81)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대상건축물 기준을 “6층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 “새로운 건축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새건협)” 사단법인 인가[82)]
- 대한건축사협회 소식 “이사 및 감사 선임 결의 무효 소송과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서울건축사신문 제286호, 2004년 7월 16일)[83)]
- 2004년 10월 1일
  - 대한건축사협회 임시총회 오후2시 건설회관 (서울건축사신문 제291호, 2004년 10월 1일)[84)]
- 송수구 부회장 회장대행체제로(서울건축사신문 제287호, 2004년 5월 1일)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종합부동산세 신설(2004)
- 2003년 5월 29일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정
- 건축연구원 설립
- 건축개혁 2004 발행

---

82) 약칭 새건협의 법인 설립 신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본협회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의견서 참조)을 제출하였으나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이하 건축사협의회라 한다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하오니 불허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다음 생략)

83) 협회 제38회 정기총회('04.2.26)시 제8호 의안으로 상정된 “임원개선의 건”을 처리하면서 제적대의원이 과반수가 미달한 상태라고 하여 이영기, 이영복 감사는 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거 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 부족이유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 및 감사의 직무집행 정기 가처분('06.6.10)이 신청되어 '04.7.12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결정되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대상 임원7명(강성익, 안택영, 이창섭, 정명옥, 최영집, 한명수, 이길웅) 감사 1명(강신)

84) 제2호 감사불신임의 건, 제3호 회장 신임여부에 관한 건에 관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친결과 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세훈 회장이 불신임되었고 감사 불신임 건은 이영복 감사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별도의 투표 없이 종결되었고 임원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26대 회장 이철호(2005.2.24~2007.2.22)

■ 주요활동 사항

- 2005년 3월
  - 건축사회관 기공

- 건축문화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서울건축사신문 제311호, 2005년 8월 1일)[85]
-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의 차기 회장에 이근창 건축사 당선
- 2005~2006 아카시아건축상[86](서울건축사신문 제311호, 2005년 8월 1일)
- 전국건축사대회 부활 개최(서울건축사신문 제312호, 2005년 8월 16일)
  - 2015년도 건축의 날 개최
- 2005년 9월
  - 제1회 건축의 날 개최[87](서울건축사신문 제312호, 2005년 8월 16일)
  - 제1회 한국건축산업대전 개최

85)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회사 설계겸업요구에 대응하려 "건축설계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불합리한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축문화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서울건축사신문 제311호, '05.8.1)

86) 우리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에서는 매 2년마다 아시아의 우수건축물을 대상으로 아카시아건축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태국건축사협회(ASA)가 주관하고 2005년 11월 개최되는 아시아건축사대회에서 수상자 발표 예정인 '05~'06 아카시아 건축상이 시행된다. 작품 출품 일정이나 출품을 원하는 회원은 대한건축사협회로 문의하면 된다(서울건축사신문 제34호)

87) '05년도 건축의 날 행사개최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의 위상제고에 기하고자 하는 "건축의 날"이 제정됐다.(서울건축사신문 제312호, '05.8.16)

◦ 2006년 6월

– 한중일 건축사 축구대회

◦ 2006년 9월

– 대한건축사협회(건축사문화신문) 창간

창간호 건축문화신문

지면안내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 서둘러야

◦ 서초동 신축회관 낙성식(건축문화신문 제6호, 2006년 12월 1일)

– 연건평 3500평, 지하5층 지상7층, 2년간 공사)

◦ 2007년 2월

– 정기총회 건축사 등록원 및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의결

◦ 2007년 6월
건축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건축사 궐기대회(과천)
- 8천 건축사의 분노 과천벌 뒤덮다
-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정책 철회까지 투쟁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2005년 8월 31일
- 서울건축사신문 지령 312호로 폐간

◦ 2006년
- 주택성능등급 표시 제도시행

◦ 2007년 1월 3일
건축법 49차 개정
- 건축에 관한 심의 제도 개선

◦ 회관 대지지분 소송경위에 대하여(시론 건축사 2007년 2월호 참조)
- 서울지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필요
- 지난 1965년 협회가 설립하면서 사무실을 번번이 이전함
- 1965년 12월 3일 서울 중구 회현동3가 2번지에 본협회 사무소 설치
- 1966년 2월 19일 서울 중구 북창동 94-12 동아빌딩 515호
- 1966년 7월 2일 서울 중구 무교동 33-1 무교빌딩 301호
- 1967년 10월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5 정양빌딩 301호
- 1972년 3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17 해성빌딩으로 이전
- 1974년 7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89-1 이전
- 1983년 11월 4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451-1 금강빌딩으로 이전
- 1985년 3월 29일 신축회관 건축사회관으로 이전
- 2006년 12월 1일 재건축 신축회관으로 이전
(지하5층, 지상7층 / 연건평 3,500평)

27대 회장 한명수(2007.2.23~2009.2.25)

■ 주요활동 사항

◦ 2007년 12월

- (사)한국건축가협회(사)새건축사협의회와 건축사법 개정 이전까지 통합 합의

◦ 2007년 11월 22일

- 건축계를 혁신할 수 있는 건축기본법 국회의결[88)]
  (건축문화신문 제27호, 2007년 12월 1일)

◦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 사건

- 수도 서울의 일그러진 얼굴(건축문화신문 2008년 2월 16일)[89)]

88) 건축분야 체계적 발전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대
강길부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07.9.17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큰 문제없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길부 국회의원은 건축기본법은 이미 10년 전에 있어야 할 법이었다며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기본이념 국가정책의 수립 및 추진계획, 건축문화의 진흥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조시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원칙과 방향제시(건축문화신문 제27호, '07.12.1)

89) 수도 서울이 관문이자 얼굴인 동시에 나라의 상징인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되었다.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사고가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건축문화신문 '08.2.16)

◦ 2008년 8월

- 건축기본법 시행령 공포

◦ 2008년 10월 30일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부산개최(건축문화신문 2008년 11월 1일)[90]

- 17개국 아시아 건축사들의 축제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성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건축문화신문, 2008년 12월)[91]

- 국가정책위원회 '첫발을 내딛다-건축이라는 이름의 첫 국가조직 3개 분과위원회 구성

◦ 2009년 2월

- 3단체 통합결의안 승인

◦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AIA) 회장국('07~'08년)

90) 아시아 건축사들의 최대축제인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The 13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이하 ACA-13」가 '80.10.27~31까지 부산 BEXCO, 누리마루 APEC하우 등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17개국 국내외 건축사와 건축전공 학생 등 5천여 명이 참가하여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인원이 찾았다.(건축문화신문 08.11.1)

91)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립된 국가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008년 12월 10일 국가정책위원회 정명건 위원장(교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민간위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공식적인 업무활동에 들어갔다. 건축정책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정책조정분과, 국토환경디자인분과, 건축문화진흥분과)로 구성 건축 각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건축기본법 제4조)은 △건축정책기번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사업의 지원 △건축행정개선 △건축문화행사 추진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 △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건축문화신문 '08.12.16)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한국친환경건축설계학회(2007)

◦ 2007년 3월 6일

정관개정

- 외국건축사자격취득한자 준회원에 포함
- 상근이사제 도입
- 사업내용에 건축연구소 및 건축정보센터 설치운영, 건축문화전담사업, 남북건축문화교류사업 추가

◦ 2007년 12월 21일

- 건축기본법제정

◦ 2008년 6월 5일

건축법 56차 개정

- 이천 냉동창고 화재 계기(2008년 1월 7일)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 않을시 처벌 강화

◦ 2008년 12월 26일

건축사법 19차 개정('08.12.26)

- 건축사업무보수 대가 기준을 폐지하고 공공 업무대가 기준안 존치

◦ 2009년 2월 6일

건축법 58차 개정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28대 회장 최영집(2009.2.25~2011.2.25)

■ 주요활동 사항

◦ 2009년 11월
- 제1회 서울국제영화제 개최

◦ 2008년~2011년
- 국제건축사연맹(UIA) 이사국

◦ 2009년 11월
- 호남지역 건축월간지 <건축문화사랑> 창간

◦ 협회 공제조합 창립총회

◦ 5년제 건축학 교육 문제(건축문화신문 제91호, 2010년 8월 1일)[92)]

- 이제는 한국형 건축학 인증프로그램이 필요
- 「국내 건축학 교육의 현실과 학제 다변화 세미나」에서 다양화 주장

◦ 2010년 12월

건축사지 500호 특집 建築 建築士, 建築史

- 12월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1965~2010) 특별별책 발간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2010)

◦ 한국환경공단(2010)

◦ 3단체 통합정관 의결(2009)

◦ 3단체 통합정관 부결(2010)

◦ 2010년 7월 23일

건축사법 20차 개정

-건축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의무화

92)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는 '10.7.28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건축학 교육의 현실과 학제 다변화」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건축문화신문 제91호, '10.8.1)

29대 회장 강성익(2011.2.25~2013.2)

■ 주요활동 사항

◦ **건축사자격등록 및 갱신제도 도입 실무교육 의무화[93)]**
(건축문화신문 제109호 2011년 5월 1일)
-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년 11월 18일**
김규태 전임회장 별세(건축사 2011년 12월호)
- 향년 78세

◦ **2011년 11월**
-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 개최 확정[94)]

◦ **2012년 3월**
건축허가절차 간소화되고 맞벽 건축 확대[95)]
- 국토부, 건축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3)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1.4.29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이다.(건축문화신문 제109호 '11.5.1)

94) 약 4,000억 원 안팎의 경제 파급과 5,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기대. 오는 2017년 UIA세계 건축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됐다. '11.10.1 동경에서 개최된 UIA총회에서 서울은 싱가포르와 멕시코시티를 제치고 2017년도 UIA세계건축사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95) 국토해양부는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및 건축 협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3.14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 취약지역에 건축물은 모두 허가 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대상도 연면적 1,0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건축물의 철거 시에는 해체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도록 하여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했다.

◦ 2012년 5월 4일

– 제1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개최

– 건축사 559호 에세이

전성기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조원용 건축사)

"…이제는 내 인생의 전성기에 설계수주를 위해 뛰기보다는 더 많은 감나무를 심고, 더 많은 꿈나무를 가르치리라 다짐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원용 건축사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좋은 건축주 만들기'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 계속 살아 있지 않을까…"

◦ 2012년 5월

건축사등록원 출범[96)]

– 현판식 갖고 본격적 업무가동(건축문화신문 제131호, 2012년 6월 1일)

◦ 2012년 10월

– 대한건축사협회 교육원 설립[97)]

◦ 2011년 8월 22일

대한건축사협회 이규복 전임회장 별세

– 향년 85세(건축사 521호, 2011년 9월호)

---

96) 「건축사등록원: 국제적 수준의 건축사,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당신은?」 2012년 5월 31일 건축사등록원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건축사등록원은 공공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건축사 업무수행 지침을 개발 시행한다. 또한 무자격자등의 명의도용 및 불법 대여 등에 건축사 명의보호를 대변할 것이다. 등록 신청자들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7,716명의 건축사를 배출하고 있다. 건축사의 등록원의 출발이 희망의 메시지인가? 또 하나의 구속인가?(건축문화신문 제131호 '12.6.1)

97)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등록원에 이어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했다. 협회는 '12.9.12 이사회에서 건축사교육원 설립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건축사교육원 설립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실무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원시기는 10월초로 예상된다. 초대 건축사교육원장은 강성익 회장이다(건축문화신문 제142호. '12.9.16)

◦ 2011년 4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권병조 상근부회장 취임[98)]

- 전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국장('11.4.25~'13.4.24)

◦ 2012년 6월

-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 선정

◦ 2013년 2월

정기총회 회장 직선제와 임원임기 3년으로 가결

- 건축사공제조합의 법인화는 부결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2011년 5월 30일

건축사법 23차 개정

- 건축사자격시험제도개편 예비시험폐지(유예 조항은 별도 마련) 건축학 인증과정 이수 및 3년 이상 실무수련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가능토록 강화
-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실무교육 강화

◦ 2011년 1월 21일

정관 개정

- 건축문화진흥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물 및 공간환경조성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추가

◦ 서치호 건국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취임(건축사 517호, 2012년 5월호)

◦ 2012년 11월 17일

건축법 7차 개정

-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

◦ 2012년 3월 26일

정관 개정

- 정회원 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로 확정

98)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에 권병조 전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기획국장(59)를 선임하고 '11.4.25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익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 신임 부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테네시주립대 경영학 석사, 한양대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건교부 도시철도 과장과 국민임대 주택건설 단장을 역임했다.

30대 회장 김영수(2013.2~2015.2)

■ 주요활동 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2013년도 협회발전 워크숍 개최
- 건축설계산업육성 마련
- 서울특별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조례안 통과[99)]
- 2013년 4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100)]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공포(시행 '14.6.5, 법률 제11865호, '13.6.4. 제정)

- 제1회 신진건축사 대상 개최
- 2013년 3월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매뉴얼과 점검사례집 발간

- 건축문화 재단설립 추진위원장에 강성익 전임회장 위촉(건축사 532호, 2013년 8월호)
- 2013년 8월

– 건축사교육원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99) 높이 9m이하는 1.5m초과는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이상으로 앞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와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의회 강희용 의원(민주 동작), 대표 발의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 됐다(건축문화신문 '13.3.16)

100) '12년 9월 강석호 의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입법발의, 건축분야 정책연구 및 개방 등을 위해 건축진흥원 설립할 수 있어 앞으로 설계경기 시 다양한 발주 방식이 이뤄지며 건축진흥원과 건축센터 설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건축문화신문 제158호. '13.5.16)

◦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 사고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무엇이 문제였나[101)]

◦ 2014년 4월
- 건축임의 규제 관행 신고센터 설치

◦ 2014년 6월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

◦ 상근부회장 선임(임기 '13.4.25~'16.4.24)

◦ 2014년 6월 5일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공포(시행 '14.6.5 법률 제11865호 '13.6.4 제정)

◦ 건축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진일보(건축문화신문 제158호, 2013년 5월 16일)[102)]
- 4월 30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건축사협회 송기덕 전임회장 별세(향년 81세)

◦ 2014년 8월
-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창립총회 및 회칙(안) 승인

◦ 대한건축사협회 첫 직선제 회장 탄생
- 제31대 회장에 조충기 건축사 당선

◦ 2014년 12월
- 협회 최초 직선제 회장 선거를 위한 전국6개 권역 합동토론회 개최
-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한국건축100년 대계 토론회 개최

---

101) '14.2.17 경주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5명의 사상자(사망자 10명, 부상자 105명)가 생겼으며,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 2.2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건축주 마우나오션리조트를 비롯하여 건축사사무소, 시공업체, 총학생회 등 100며영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붕괴원인을 찾기 위해 감식반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건축문화신문 제158호 '14.2.17)

102) '12년 9월 강석호 의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입법발의, 건축분야 정책연구 및 개방 등을 위해 건축진흥원 설립할 수 있어 앞으로 설계경기 시 다양한 발주 방식이 이뤄지며 건축진흥원과 건축센터 설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건축문화신문 제158호. '13.5.16)

◦ 2015년 1월 15일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 발간('15.1.15발행)[103)]

- 건축문화신문 「시론」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를 발간하며" (건축문화신문 2015년 1월 16일)[104)]
- 건축문화신문「시론」 "협회 창립 50년 광복 70년"[105)]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2013년 6월 4일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 2013년 4월 10일 정관 개정

- 회장직선제 선거

◦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년 2월 17일) 계기

-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 목적

◦ 한국건축가협회 한종률 회장 취임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최명숙 회장 취임

◦ 대한건축학회 김광우 교수 36대 회장 취임

---

103) 2015.1월 발간된 50년사는 -제48회 정기총회('14.2.27)에서 승인된 사업비 외에 발간위원회의 요청('14.7.23)에 따라 이사회에서 2차례에 걸쳐 조성된 예산 1억 원(회원 1인당 1만원 상당)을 투자해 제작됐다. 그러나 1만여 회원 중 0.3%인 24명의 필자가 참여해 학술논문이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중론이다. 이와 같이 편중된 문헌작성으로 개인 수필집 같은 인상이 짙다는 의견이 역대회장 고문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04) 「건축사에게는 위대한 직업의 지침서가 되고 건축사협회는 둘도 없는 역사의 교훈서가 될 것」
"자랑스러운 대한건축사협회의 50년사를 총 정리하는 뜻 깊은 기념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전국의 건축사 회원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중략> 건축사, 건축사협회 그리고 건축문화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반세기를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50년을 어떠한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러러보는 귀중한 책으로 만들고자 했다. 아무쪼록 이 귀중한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가 건축사에게는 위대한 직업의 지침서가 되고 건축사협회에는 둘도 없는 역사의 교훈서가 될 것이며, 건축계에는 명예로운 건축의 산 역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건축문화신문 '15.1.16, 50년사 발간위원장 김영수)

105) 김영수 발간위원장은 건축문화신문 '시론'(「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를 발간하면서」)에서 "'대한건축사협회 50년사'가 건축사에게는 위대한 직업의 지침서가 되고, 건축사협회에는 둘도 없는 역사의 교훈서가 될 것… "이며, 차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정판이나 증보판 또는 외국 홍보형 책자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고 언급했다(건축문화신문 '15.1.16). 장양순 편집위원은 건축문화신문 '시론'(「협회창립 50년·광복 70년」)에서 "전 집행부가 대의원에게만 배포한 50년사를 재편집하여 전 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회원이 '협회사'를 가지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해 '협회사'를 만든단 말인가?"고 기고하였다(건축문화신문 '15.5.16). 이와 같이 "50년사" 편집에 관여했던 위원장은 "수정판", 위원은 "재편집"으로 견해가 다른 뜻을 비쳤다.

31대 회장 조충기(2015.2~현재)

■ 주요활동 사항

◦ 2015년 3월 26일

– 충청남도건축사회 신축회관 개관

◦ 2015년 10월 19일

건축사보 환원

– 건축과 5년제에서 4년제, 전문대학, 고등학교

– 건축사보 자격기준 5년제에서 4년 전문대학으로 완화

◦ 2015년 12월 22일

부산건축사회 양정동 시대를 열다(부산건축사신문 제199호)

–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부산건축사회관 준공

◦ 2016년 1월 8일

건축법 개정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16시 50분)

-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방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일부 세력의 극렬한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2016년 3월 8일

대한건축사협회 사회공헌사업 '카리브 잔지바르 프로젝트' 현지 착공[106)]

- '희망TV SBS' 다큐멘터리 방영(2016. 5. 27~28)

◦ 2016년 4월 25일

권병조 상근부회장 이임(2011.4.25~2016.4.25 재임)[107)]

◦ 2016년 5월 4일

오웅석 전임회장 별세(향년 85세)

■ 법제정 및 기록사진, 기타

◦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 27차 개정

-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학경력자 추가
- 건축사공제조합의 별도설립 가능

---

106) 3월 8일 탄자니아 잔지바르 현지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SBS, 주탄자니아 대사, 코이카, 동국제강, 굿네이버스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착공식을 진행했다. 착공식에는 잔지바르 부통령 및 교육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들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2012년부터 SBS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5년간 아프리카에 학교건립사업인 희망학교 프로젝트는 현재 100번째가 되며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현지에서도 관심이 많다. 학교 건립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시키고 지역 커뮤니티로 사용할 수 있는 C4D(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권리옹호와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07) 권병조 상근부회장은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 헌장과 더불어 건축법 제도개선에 힘썼다. 임기 동안 감리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통과 등에 일조했다.

[참고자료]

조선건축(1943년 3월)
왜색논쟁에 대한 여론의 추이(1966년 5월~1971년 9월)
건축사지(창간호~현재)
건축문화신문(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20년사(1965~1985)
서울건축사신문(창간호~312호)
한국현대건축기술사년보
대한건축사협회 반세기 영광도전 50주년(건축문화신문 2015년 10월 16일)
한국건축가협회 50년사
한국고도육성포럼, 부여학 제5호, 백제 김수근(구.부여박물관)